

〈권두논문〉

영산강 유역 강배[江船] 고찰 박종오 _ 1

〈일반논문〉

해남 윤씨 설화의 기호적 의미와 전승집단의 인식 표인주 _ 31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특징과 전승의미 한서희 _ 67

빈곤의 경험과 공간의 장소화 : 광주(光州) 학동(鶴洞)
사람들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한정훈 _101

광주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화 추주희 _143

미국 남장로교 목포, 순천지역 선교기지(Mission Station)
조성에 관한 고찰 우승완 · 천득염 _195

후보 _223

영산강 유역 강배[江船] 고찰*

A Study on the GangBae(River Boat) of Yeongsan River basin

박종오**
Park, Jong-O

목 차

- | | |
|---------------------|----------------------|
| I. 영산강을 항해하다 | IV. 영산강에서 조업하다 : 어업배 |
| II. 영산강을 연결하다 : 뱃길 | V. 영산강의 배를 기억하다 |
| III. 영산강을 건너다 : 나룻배 | |
-

| Abstract |

The river is a channel connecting the inland with the coast through. The river played a role of exchanging various artifacts over time. What is needed to perform this role is a ship. In Korea, the tide section is divided into GangBae(River Boat) and BadaBae(Sailing ships).

The Yeongsan River was a place where culture was transported through a waterway. The area with the depth and width that can be operated by the ship is known as Gwangju Seochang, which is the upper stream of Youngsan River. But, the actual end point where the ship was operated on the Youngsan River is Yeongsanpo. And the small boat that used to travel to Seochang was not a boat connecting river and sea directly. This boat was a ferry that crossed two areas facing the river.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247)

**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2 호남문화연구 제63집

In the Youngsan River, a ferry boat connecting the two areas facing the river was mainly operated. Downstream, there were boats carrying various fish. There was a “DudukBae(ship)” in the form of “Han Seon”, a traditional Korean ship. However, There were “GaesuBae(ship)” and “Haechoseon(ship)” that caught eel or carried luggage. This boat is Japanese style V-shaped boats

Surveys and field surveys reported so far confirm that various ships were operated on the Youngsan River. There were boats on the Youngsan River that moved up and down the river or carried goods and people across the river. However, in 1981, the “Yeongsangang estuary dam” was established. So the ships stopped the sailing. But still many people remember the ferry that crossed the river and connected people’s affairs. And remember the ships that carried the load or caught the fish. So people expect to be able to operate the ship on the Youngsan River again.

Key words : Youngsan River, GangBae(River Boat), Ferry, A ferry boat, tradition knowledge, management.

I. 영산강을 항해하다

인류 문화의 시작이 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강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물의 원천이며, 상류로부터 옮겨온 비옥한 토지는 식량생산의 근원이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주거의 입지가 되었다.¹⁾ 아울러 수로를 통해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문물의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바로 배(船)이다.

일반적으로 강에서 운용된 배는 밑바닥이 평평하면서 뱃전은 얇고, 배의 폭이 좁은 대신 길이가 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배를 평저선(平底船)이라 하는데,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대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 특히 수심이 얇고 물살이 빠른 여울을 통과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²⁾ 우리나라 강에서 조수가 뱃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 조수구간을 기준으로 강배[江船]와 바닷배[海船]로 구분하기도 한다.

담양 용추산 가마골 용소(龍沼)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 또한 뱃길을 통해 문화가 운반되었던 곳으로 1994년까지 무안군 몽탄(夢灘) 지역에서 나루가 운용되었다.³⁾ 영



〈1920년대 영산포 나루〉
(출처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 1) 이상수(2013),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포천과 경포호」, 『하천과 문화』 9권 3호, 한국하천협회, 12쪽.
- 2) 김준기(2004), 「돛배의 특성 및 운용」,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9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394쪽 참조.
- 3) 범선규(2011), 『영산강 옛 하루 나루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 『영산강연구센터 2011년도

산강의 뱃길이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매우 활발하게 운용(運用)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에서도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영산강 물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최초 기독교 선교사라 할 수 있는 유진 벨(Eugene Bell, 미국, 1868~1925)이 1897년 9월 5일 미국에 있는 누나에게 쓴 편지를 보면 당시 영산강 뱃길에 대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나와 내 집을 신고(木浦에서) 30마일 떨어진 나주까지 데려다 줄 배를 구하기 위해 흥정을 해야 했다. 다행히 흥정이 평소보다는 덜 힘들게 이루어져 밀물이 드는 정오 무렵에 출발하였다. 아마 누이는 배가 강물을 타고 올라가려면 밀물 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힘들 거야. 밀물로 강물이 불어나는 것은 여섯 시간이고, 그리고 한 시간쯤 강물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내 반대방향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시간 동안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류가 밀물로 변해 되돌아 올 때까지 강위에서 일곱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목포가 겨우 시야에서 벗어날 즈음에 강한 역풍이 몰아쳐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우리 배는 닻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겨우 출발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는 밀물이 거의 빠져 나갈 시간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닻을 내린 채, 일곱 시간 뒤 밀물이 다시 밀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때가 새벽 1시쯤이었다. (누이에게)이렇게 해서 (제물포로부터) 이틀 밤을 자고 만 하루하고도 열두시간이 더 걸려서 나주에서 3마일 떨어진 제창이라는 강가에 도착했다.⁴⁾

유진 벨이 인천에서 증기선을 타고 목포에 도착한 후 다시 돛단배를 타고 나주로 가기 위한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유진 벨은 1897년 8월 31일 정오 무렵 나주로 출발한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집을 신고 갈 배를 구하기 위해 흥정을 했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선(私船)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사업보고서』, 전남발전연구원 영산강연구센터, 50쪽.

4) 「光復50돌 1百年전 南道풍물기행」, 『광주일보』 1995.01.01; 01.11자 기사.

이 사선은 밀물에만 닻을 올려 운항하고, 썰물과 역풍에는 정박하는 돛단배로 여겨진다. 물때에 맞춰 장박하거나 항해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9월 2일 정오 무렵, 나주 제창포에 도착하게 된다. 역풍이 불어 한 밀물을 지체하였으니, 결국 세 번의 밀물을 탄 후에야 나주 인근에 도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영산강을 항해하려면 물때와 바람의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다. 그렇지만 유진 벨이 배를 타고 오르던 영산강 물길은 1981년 하굿둑이 완성되면서 영영 끊기고 말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강배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강배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원식의 연구⁵⁾는 우리나라 배의 구조적 특성을 살피면서 종류에 따라 배 만드는 방법과 쓰임새를 연구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김준기의 연구⁶⁾는 한강의 강배[돛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강배의 특성을 밝힌 연구로 강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준기는 이 논문에서 한강 하류지방의 배인 아랫강배[水下船, 두멍배]와 한강 상류의 배인 윗강배[水上船, 늘배]가 세부적으로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선(韓船) 제작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길의 환경 조건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개성적으로 제조하였다 점을 밝히고 있다.

영산강 유역을 항해하거나 운용되었던 영산강 유역 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뱃길연구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일제 강점

5) 이원식(2014), 『한국의 배』, 대원사.

6) 김준기(2004), 앞의 논문.

7) 영산강 뱃길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김경수(1987), 「榮山江 水運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광순(1998), 「榮山江 뱃길 복원의 意義와 基本構想」, 『영산강 뱃길복원과 개발방향 학술대회논문집』, 나주시·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김종일(2005), 「영산강의 주운복원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한국지역지리학회, 40~53쪽; 고석규(2007), 「영산강 물길·뱃길과 문화의 흐름」, 『강과 바다의 문화교류사 학술대회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남도민속학회; 변남주(2011), 「영산강 중·하류 뱃길 환경과 돛단배 항해술」, 『지방사와 지방문

기의 뱃길에 관해 연구”나 “영산강 뱃길 복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중에서 변남주의 연구는 영산강 뱃길을 중심으로 강배의 존재 가능성과 뱃길과의 관련성 등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변남주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중하류 뱃길과 상류지역 포구와 뱃길에 관해 고찰하고 있어 영산강 뱃길과 관련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영산강 유역의 포구에 관한 연구로는 범선규의 작업을 들 수 있다. 범선규는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몽탄대교에서부터 영산강과 고막원천의 합류점까지 영산강 본류 양안(兩岸)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영산강의 나루를 살펴보고 있다.⁸⁾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영산강 본류를 중심으로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는 지역의 포구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다.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영산강 상류 지역에 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⁹⁾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옛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영산강유역의 어로민속을 조사하면서 영산강 하구에서 운용되었던 두덕배, 해초선, 중선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영산강에서 운용되었던 배에 대한 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어로작업에 사용된 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¹⁰⁾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강배에 관한 연구는 거의 한강유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도 지역의 강배에 관한 연구로는 섬진강에서 운용되었던 ‘떼배’에 관한 것¹¹⁾이 있다. 그러나 떼배가 목재를 운

화』 14-1, 역사문화학회, 373~407쪽; 변남주(2012), 「영산강 상류지역 포구와 바닷배 뱃길 여부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73~110쪽.

8) 범선규(2011), 앞의 보고서.

9)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2012), 『영산강의 나루터』,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0) 국립해양유물전시관(1999), 『우리배 · 고기잡이 · 전통어선 · 어로민속 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 박종오·이정록(2010), 「섬진강 떼배 제작과 운용」, 『국토지리학회지』 44-1, 국토지리학회, 73~110쪽.

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회성 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강에서 운용되었던 배에 관한 연구라고 보기에는 미약하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영산강 유역의 강배에 관한 연구는 뱃길과 관련된 연구에서 조금씩 언급되고 있는데, 나룻배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에서 운용되었던 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영산강을 연결하다 : 뱃길

2004년 3월 31일, 영산강 강가에서 배의 꼬리 쪽 부재(部材)와 외판(外板) 조각이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 되었다. 이후 나주시에서는 긴급조사가 진행되었고, 여러 편의 여러 편의 선박부재가 추가 발견되었다. 나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주선(羅州船)’이라 이름 지어진 이 배는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 등을 이용해 만들었는데, 깃털이 발달한 서해안이나 강에서 운행하는데 적합한 평저선(平底船)이었다. 이 배는 고려 전기에 제작되어 영산강과 부근 바다를 항해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¹²⁾

그렇다면 이 ‘나주선’은 어디까지 운항이 가능했을까? 일찍부터 영산강은 배를 운항하여 물자를 운반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중요한 물길이었다. 1751년(영조 27) 실학자 이중환(李重煥, 1690 ~ 1752)이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지리서 『택리지(擇里志)』에도 영산강의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 수레가 다니기에는 불편하므로 온 나라의 장사치는 모두 말에다 화물을 싣는다. 그러나 목적지가 멀면 노자는 많이 허비되면

12) 「고려시대의 배 나주선」, 『국립나주박물관』(<https://naju.museum.go.kr/html/kr/>, 2018.05. 01. 접속)

서 소득은 적다. 그러므로 배에 물자를 실어 옮겨서 교역하는 이익보다 못하다. 우리나라는 동·서·남의 삼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중략〉... 전라도는 나주의 영산강과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이 비록 짧은 강이나, 모두 조수가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¹³⁾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운반함에 있어 배를 이용한 해운의 효율성과 그 가치의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다.¹⁴⁾ 그러면서 전라도에서 조수(潮水)가 통해 장삿배가 모여드는 물길로 나주의 영산강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하천에 뱃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강을 건너는 도하(渡河)의 기능을 주로 하는 나루의 경우에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뱃길을 통해 물건을 운반하는 수운(水運)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다 뱃단배(海船)의 경우에는 조건이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정도로 배의 아랫부분이 물에 잠기는 깊이인 흘수(吃水)가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조수(潮水)의 영향, 순방향의 적당한 바람, 하천의 경사와 물의 흐름, 얼지 않는 기온, 교량, 보와 같은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¹⁵⁾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산강의 경우 이를 충족하는 부분까지 뱃단배(海船)가 운항을 했을 것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¹⁶⁾에 의하면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과 폭을 가진 영산강의 수로는 상류인 광주 서창까지로 표기하고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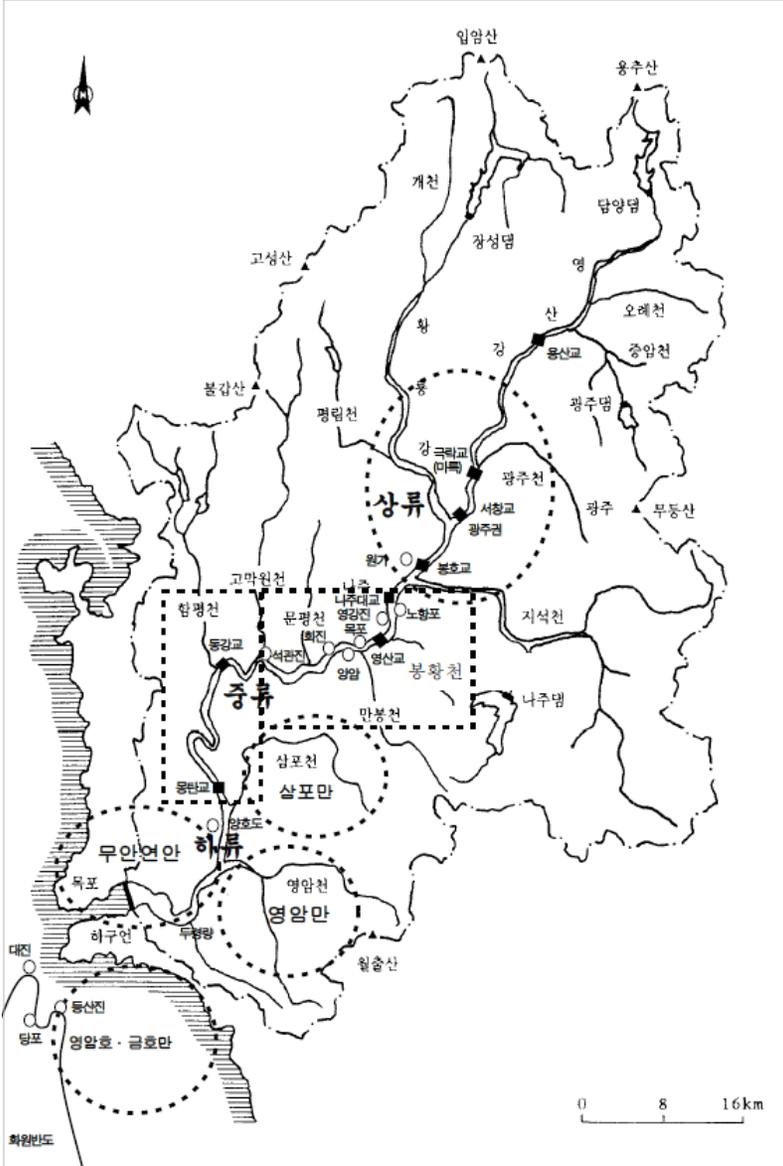
13) “我國山多野小車行不便一國商賈皆以馬載貨道遠盤纏之費贏得少是故莫如船運貨財而爲買遷交易之利我國東西南皆海船無不通然 ...〈中略〉... 全羅則羅州之靈山江靈光之法聖浦興德之沙津浦全州之沙灘水雖短皆以其通潮而聚商船。”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

14) 변남주(2012), 앞의 논문, 99쪽.

15) 변남주(2011), 앞의 논문, 374쪽 참조.

16) 조선총독부(1929), 『朝鮮河川調査書』, 朝鮮總督府, 401~402쪽 자료 참조.

17) 당시 하구(河口) 기준은 무안군 일로읍 양호도이고, 大正 3年(1914) 조사 자료이다.(변남주(2012), 앞의 논문, 75~76쪽 자료 참조.)



〈영산강유역 물길 개념도〉 (출처 : 변남주, 2011, 378쪽.)

〈일제강점기(1910년대) 영산강 내륙 수운〉

주요포구	가항거리(km)	조수(潮水)	운항선박	주요화물
無灘津	3.0	有	巨舶	出 : 곡물 入 : 鹽, 잡화
龍洞浦	9.8	〃	小汽船 (200석)	〃
剡浦	12.6	〃	〃	〃
海倉	15.7	〃	〃	〃
沙浦	16.5	〃	〃	〃
中村里	20.2	〃	〃	〃
石亭里	21.0	〃	〃	〃
本食里	26.6	〃	〃	〃
濟民倉	37.5	〃	〃	〃
榮山浦	39.9	〃	〃	出 : 쌀, 곡물, 면(棉) 入 : 鹽, 잡화, 粉類
路頂浦	42.3	無	小汽船 (100석)	出 : 곡물 入 : 鹽, 잡화
鳳浩里	52.3	〃	小舟	
西倉	60.3	〃	小舟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 중 영산강 본류 포구를 표로 정리해본 것이다. 이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몽탄진[無灘津]에서 200석 이상을 실을 수 있는 큰선박[巨舶]이 운항되지만, 노항포까지는 100석~200석을 실을 수 있는 작은 선박[小汽船]이 운항된다. 나주 봉호리와 광주 서창까지는 작은배[小舟]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사실상 노항포가 영산강에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종점이었던 셈이다.

“영산강은 항로는 모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배를 운항한다. 영산포와 사포 사이에는 세 곳의 급류가 있다. 일본식 배에는 백석을, 조선식 배에는 이백석을 실어 운반하기에 적합하다. 대체적으로 영산포가 영산강 운항의 종점이다.”¹⁸⁾

배의 운항 가능성은 서창까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산포까지만 배가 운항되었음을 위의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봉호리와 서창 등지에서는 화물을 싣고 내린 기록이 없다는 점도 영산강의 배가 서창까지 올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그러면 서창까지 운항하였다는 작은배[小舟]는 어떤 것일까? 변남주는 이와 관련하여 작은배[小舟]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²⁰⁾.

小舟의 성격을 보면, 당시 개화기에 운행되었던 동력선이나 화물선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돛단배인 전용 여객선일 가능성만 남는데, 그 효율성을 보면 소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영산포에서 서창까지는 옛 물길로 약 22km는 돛단배로 정상 항해 시 한 물거리(약 6시간)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조수를 비롯한 모든 항해조건이 부합하다고 가정하면, 돛단배는 썰물에는 쉬고 밀물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단 12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육로로 영산포에서 서창까지 옛길로 약 18km로 수로보다 거리가 짧고, 특별한 고개도 없으므로 도보로 천천히 가도 5시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여객용 소주 운항은 효율성이 떨어져 굳이 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보아 일본인들이 말하는 소주는 나룻배와 같은 거룻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8) “本流航路は總て潮汐な利用するものにして、榮山浦沙浦間に三箇所の瀬あり、日本型百石積、朝鮮型二百石積に適す。榮山浦は大體本江航運の終點。” 조선총독부(1929), 위의 책, 402~403쪽 자료 참조.

19) 변남주(2012), 앞의 논문, 75~76쪽.

20) 변남주(2012), 같은 논문, 각주 12번 참조.

즉, 서창까지 운항하던 작은배(小艇)는 강과 바다를 직접 잇는 배가 아닌 강과 인접한 두 지역을 이어주던 나룻배로 보고 있다.

서창까지 바다배가 들어올 수 없는 까닭은 또 있다. 광주지역에서 조선시기 문헌상으로 확인된 포구는 총 8개소가 있다. 그 위치는 모두 조수의 한계인 나주대교 상류에서 확인된다. 나주대교 인근과 그 상류는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강물의 깊이가 1m를 넘지 않았으며, 홍수기에도 물의 흐름이 빨라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또한 조선 전기부터 영산진(榮山津)에 ‘영산대목교’가 있었는데, 규모는 작은 배는 지나다닐 정도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영산포역 정면에 개폐식 목교(1914년)가 건설되었다가 고정식 목교(1922년)로 개축된다. 이러한 영산강 본류의 교량들은 서창의 뱃길에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다. 바깥 이야기하자면 바다 뱃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다리 건설이 가능했을 것이다.²¹⁾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배가 직접적으로 운항할 수 있었던 곳은 영산포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Ⅲ. 영산강을 건너다 : 나룻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산포를 지난 상류지역은 강을 오르내리며 물자를 수송하거나 어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항한 배들이기 보다는 강을 마주하고 있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나룻배가 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산강 상류에서 나룻배가 운용되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渡船이 顛覆 四名이 溺死

자동차를 연락하든 중 생긴 光州極樂江의 慘事

21) 변남주(2012), 앞의 논문, 104-105쪽 내용 참조.

【광주】 자동차 교통을 연락하고 잇는 도선이 전복되어서 승객 二명과 선원 二명이 몰사하여 버린 참사 - 광주읍 황금정(光州邑 黃金町)의 상마(相馬) 자동차부에서는 지난 二十一日 오전 八시반에 자동차에 승객 三名을 태우고 장성(長城)을 향하여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광주군 비아면(化州郡飛鵝面)에 잇는 극량강 상류에서는 승객 三名을 도선에 태우고 선부 二명을 도선에 태우고 선부 二명이 조종하여 건너가든중 二十일밤의 폭우로 격중한 홍수로 인하여 도선이 전복되는 동시에 한명만이 九시一생으로 헤어나왔으나 四名은 행위불명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산동교(山東橋)가 잇엇섯는바 七月 二十六일의 대홍수로 인하여 유실되어 버린 후 상마 자동차부에서는 적은배 一척을 가져다가 연락중이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3.08.23 기사)

광주광역시 동림동 친수공원에는 영산강을 가로질러 건설되어 있는 3개의 교각이 있다. 동림동 쪽에서 광주보건대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왼편에 있는 것은 호남고속도로 교각이고, 오른 편에는 북문대교를 연결하는 산동교이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교각과 산동교 사이에는 구 산동교(舊山東橋)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 다리가 놓이게 된 확실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산동교가 놓이기 전 이 지역에는 나룻배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던 나루가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 내용 중 '산동교가 있었는데, 7월 26일 대홍수로 유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리가 유실되자 작은 배 1척을 가져다가 양 지역을 연결하는 나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나루의 존재는 현지 주민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동교. 산동교도 옛날에는 산동교가 건설되기 전에. 전에는 나룻배를 갖고 건너. 그런게 산동교가 요로고 있으면 저기 담양서부터 영산강까지 흐르거든. 그

랑께 거리거리 땀졌지. 우리는 못봤어. 그랑께 소화 6년도엔가 이 산동교를 건립 했어. 그렇게 그 뒤로는 거 다리로 땀기제 거시기가 없었제. 그랑께 그때는 나룻 배로 할 때 사람이 큰물에 떠내려가서 죽기도 허고 모도 그랬어. 그리고 왜놈들이 철도 놔서 여기 극락 철도 놔서 거리 떠내려가서 떠내려가다가 여그 철도 잡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제보자 : 노△기)²²⁾

일제강점기 영산강에서 선박이 운항될 수 있었던 상류의 마지막 지점으로 이야기된 서창(西倉)에서도 나룻배의 운항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서창은 현물로 세금을 받던 시절의 창고였다. 당시 광주는 시내 총장로3가 쪽에 있었던 ‘읍창’, 첨단단지 무양서원 자리에 있던 ‘동창’, 그리고 지금 서창마



〈서창나루〉 (출처 : 『서창만드리』, 2015, 62쪽.)

을 인근 언덕에 있었다는 ‘서창’까지 모두 세 군데의 창고를 두었다. 서창은 동네 분들이 ‘창 등’이라 부르는 마을 뒤편 언덕 위에 있었다고 전한다. 또 이곳에는 서창나루라 불린 나루터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관아에서 운영하는

나룻배 1척이 배치돼 있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기도 하고, 건조한 지 10년째가 되면 새로 나룻배를 짓도록 했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나룻배를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관아로부터 인

22)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16년 11월 15일에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는 노△기(남, 1929년생, 동배마을 출생, 농업)이다.

정된 도선업자는 거의 흩어지고 대신에 사선업자(私船業者)가 나루터 운영을 책임진 일이 많았다.²³⁾

본래 서창나루는 윗나루터와 아랫나루터 두 곳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나루터의 거리는 불과 6~70m에 지나지 않았다. 두 곳 모두 너럭바위가 요철로 생겨 있어 자연스런 선착장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은 소(沼)여서 수심이 깊었다고 한다.

배? 응 배로 댕꺀어. 밥해갓고 이고. 배 타고 가고, 배 타고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뱃사공을 지칭함). 배 샀은 걷어꺀어 농사 짓으면. 보리 때 한번, 가실에 한번. 요로코. 노 짓는 사람. 그 사람이 태와 주고 내려 주고. 온 사람 간사람 다 태와주고. 줄 잡아 준거 고거로도 댕기고. 그러게도 댕기고. 인자 나중에는 다리를 뉘꺀던? 나무로 댕긴 다리를.

(제보자 : 김△막)²⁴⁾

음. 그곳에서 (마을 쪽으로) 좀 밑에. 나루터가 두 개였어. 인자 처음에 나루터는 외양수라고. 외양수라고 아조 깊었어 수심이. 그래갓고 외양수하고 남평 디딜강하고 맞 뚫어져 있다고 그랬었거당? 그 정도 깊었어. 그라고 바위가 두군데가 이라고 돌출되야갓고 나왔어. 큰 바위가. 그라믄 처음에는 웃양수에서 배가 다니다가 인자 홍수가 자주 나고 그러니까는 강이 미어져 들어와. 그러니까 인자 아랫양수로 또 옮겼어. 그랑께 바위가 50m, 한 70m 거리로 두 개가 돌출되어 있었어. (잠시 중단) 박호련씨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뱃사공을 두었어요. 두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1년에 보리쌀 몇 되, 쌀 몇 되, 이라고 인자 여름 가을로 해갓고 한디, 배는 박호련씨가 자비로 해가지고 목포나 영산포 쪽에서 해 가지고 물길 따라 왔지요. 노 짓는 배. 그래갓고 해방 되야 갓고 좀 있다가는 선동연씨라고 하는

23) 조광철(2012), 「노짓는 뱃사공 아니었으면 농사는 꿈도 못꾸고-서창나루」, 『광주드림』, 6. 27.

24)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17년 10월 26일에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는 김△막(여, 1925년생, 남평읍 강촌마을 출생, 18세에 서창으로 시집옴, 농업)이다.

분이, 내가 건너어가 또 세집이 살았었어요. 그 분이 그 관리를 해 갖고. 그 분이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선비(船費)를 받고 관리를 했지요.

(제보자 : 곽스기)²⁵⁾

1960년대까지 운영되었다는 서창나룻배는 사선업자가 운영하던 것이었다. 사선업자, 즉 뱃사공은 언제나 승객들이 부르면 배를 댔다. 승객은 배를 이용한 대신 배 삐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대개 승객은 같은 마을주민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따로 뱃삐를 내지 않았다. 대신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에 보리와 나락(벼)으로 뱃삐를 나누어 지불했다. 그렇다고 연중 나룻배를 띄운 건 아니었다. 홍수로 강물이 불어 강폭이 넓어진 뒤에야 운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직접 강바닥을 가로질러 건너거나, 징검다리(일명 똑다리)를 놓아 그 위를 건너 다녔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울력으로 만든 자그마한 목다리(흙다리)로 강을 건너다니기도 했다. 목다리는 갈수기(渴水期), 특히 겨울철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와 흙으로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후 시멘트 다리가 놓이면서 1960년대 초에 목다리를 놓는 울력 관행은 사라졌다.

똑다리 났어. 똑다리 있을 때도 배는 있었어. 썰로 침에는. 배 있을 때 똑다리 했어라.

(제보자 : 김삼막)

다리는 내가 요룽고 있어가지고, 거 하천으로 헤가지고 목다리로. 이렇게 엮어서 해 놓고, 또 홍수 나서 없어지믄 또 해서 났두고, 물이 냇가 전체에게 있잖에 물 있는 데만 그렇게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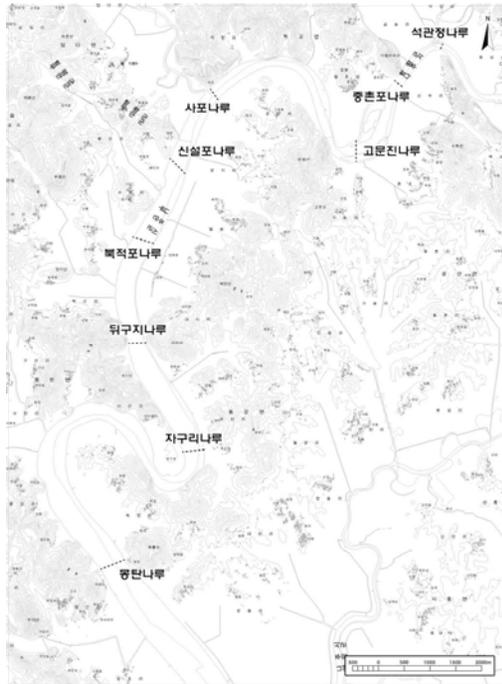
(제보자 : 곽스기)

25)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17년 10월 27일에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는 곽스기(남, 1942년생, 서창마을 토박이, 농업)이다.

영산강 중·하류에 가면 나룻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다.²⁶⁾ ‘석관정나루’는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와 신곡리를 연결하던 나루이다. 강폭이 좁아서 노 젓는 배가 아니라 줄 배가 다녔다. 그러다가 줄 때문에 큰 배가 오르내리지 못하게 되자, 줄을 철거해서 나중에는 노를 젓고 다녔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타면 배 샅을 돈으로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봄, 가을에 각각 보리 한말, 나락 한말로 배 샅을 받았다. 배는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규모였다.

하류에서 올라온 배는 영산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거나 고막강(고막원천)을 따라 올라가기도 했다. 그래서 강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산 이름이 이별바우산이다. 나루터에는 주막도 있었다. 사포에 다리를 놓으면서 중촌포나루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중촌포나루가 석관정 나루보다 훨씬 더 컸는데, 이곳 나룻배는 사람은 20여 명, 소 한두 마리를 실을 수 있는 규모였다.

‘북적포나루’는 무안군



〈영산강 중·하류 나루 위치〉(범선규, 2011, 48쪽.)

26) 이하 ‘석관정나루’와 ‘북적포나루’, ‘몽탄나루’의 내용은 범선규의 보고서에서 인용함. (범선규(2011), 앞의 보고서, 58-68쪽.)



〈북적포나루의 나룻배〉 (출처 :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군지마을 박효덕 제공, 범선군, 2011, 60쪽에서 재인용.)

몽탄면 사창리와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를 연결하는 나루이다. 20명 정도 탈 수 있을 정도 규모의 배인데, 장날에 많이 탈 때는 30명까지도 탔다고 하며, 배 샀은 돈으로 받았다. 목포에서 영산포를 오르내리는 배가 잠시 들리기도 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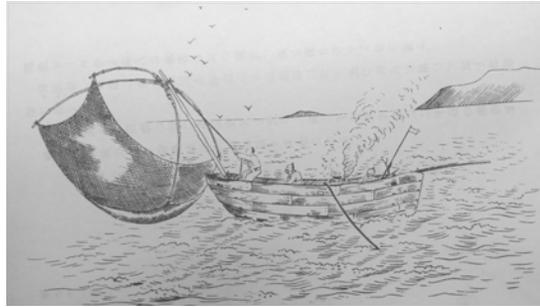
다. 이곳에서 운영한 배의 규모는 2톤으로 20명 정도 탈 수 있었다. 재질은 나무로 만들었고, 노를 젓는 배였다. 바닥은 평평한 평저선 형태였다. 1990년대 초에 큰 홍수가 나서 배를 잃었고, 이후 배를 운영하지 않았다.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하류에 위치한 나루는 '몽탄나루'이다. 이 나루는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와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를 연결하던 나루이다. 강폭이 넓어 나루터로서의 기능이 매우 활발했던 곳으로, 1994년 몽탄대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운영되었다. 배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바닥이 평평한 형태로 45명 정도 탈 수 있는 규모였다. 이곳은 강 양안의 거리가 7~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줄 배를 운용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처음에는 노를 젓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기계배로 바뀌었다. 배 샀은 돈으로 받았는데, 명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목포로 통학을 하던 통학생(중, 고등학생)들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나락으로 운임을 지불했다. 명탄대교가 완공되면서 1994년 이후 운용을 멈추었다.

IV. 영산강에서 조업하다 : 어업배

영산강에서는 하구언이 막히기 전까지 다양한 어종이 잡혔다. 특히나 중·하구는 직접적으로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풍부한 어종이 서식하는 곳이었다. 무안군 몽탄면 일대는 삼포천과 영암천 사이의 남해만 연안과 간석지를 끼고 있는 곳이어서 송어, 장어, 맛, 굴, 뽕게, 짱뚱어 등이 많이 잡히던 곳이었다. 몽탄면 명산리(明山里)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민들이 이주 정착하면서 장어로 유명하게 된 지역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장어를 즐겨 먹었으나

우리는 지천에 장어가 널려 있어도 일상음식으로 먹지 않았다고 한다. 간혹 걸려든 장어를 구워먹는 어부들이 몇몇 있었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약용으로 이용할 뿐이었다. 또한 비싼 가격 때문에



〈명산마을에서 사용한 장어잡이와 비슷한 방식의 멸치그물(鱚四ツ手網)〉 (출처 : 『韓國水産誌』 第二十圖)

서민들이 먹는 일상음식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은 장어 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남해만의 갯벌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민물장어에 눈독을 들였고, 이곳 명산에 장어가공공장인 장어통조림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²⁷⁾

이러한 까닭에 아직도 이곳에서는 어업 활동을 영위할 때 사용한 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명산에서는 뜰망질을 통해 장어를 잡았다. 배의 한쪽 부분에 큰 장대를 설치하고, 두 개의 대나무로 네귀통이를 묶은 그물을 단다.

27) 선영란 · 김준 · 심운정(2010),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어족자원과 음식문화」, 『영산강연구센터 2010년도 연구사업보고서』, 전남발전연구원 영산강연구센터, 126~130쪽 참조.

이 그물을 물에 담구었다가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 올려 물고기를 어획하는 방식이 뜰망질이다.

(조사자 : 장어 잡을 때 뜰망질로 잡어요?) 영. 뜰망질. 뜰망질은 배가 이라고 있다고?(직접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러믄 배 뒤에 가서 이렇게 머시가(큰 장대) 하나 있어. 그럼 여기 가서 흙이 파져갖고 쇠가 이렇게 걸쳐졌어. 그러면 이 돛대 같이로 나무가 있어. 그러면 요놈을 여기에다가 걸쳐 파져 있음께. 그러면 찌기만큼 가졌더라고? 그러면 이 끝터리 요놈 한나만 가운데 만큼 있고. 그러면 저 끝터리에 뜰망줄이 니게(네게)가 있어요. 대가 두겐디, 서로 걸른 니게가 될거 아니라고? 그러믄 뜰망 그물을 대 끝에다가 고리가 있어. 그러믄 니반디가 딱 고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믄 이 뜰망하는 대가 있어. 나무. 고놈에다가 딱 달아. 그물은 니 군데가 매져 있음께. 그리고 이놈을 물에다 넣믄는, 강에다 넣믄는 이놈이 까랑 지것다고 바닥으로? 그러믄 이놈을 고기가 들었을만 하믄는 이놈을 들어. 그러믄 요놈 끝터리를 눌러야 이놈이 들리제. 그것이 뜰망이여 뜰망.

(제보자 : 박스숙)²⁸⁾

배에서 사용한 뜰망은 사각형인데, 폭이 3~6m 정도 되었고, 배와 연결된 길이가 10여m 정도라고 한다. 이 뜰망을 배 뒷부분에 장착한 후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밀물이 되어 고기가 들 때 썸 되면 들어 올려 망에 갇힌 고기를 거둬 올렸다. 이 망에는 새우, 망둥이, 송어, 장어 등 갖은 고기가 다 잡힌다. 이 배에는 10여 명이 승선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영산강 하구언이 막아져 어업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존재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옛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조사한 바²⁹⁾에 의하면 영산강 하구에 두덕배라고 하는 전통 어선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두덕배는 두

28)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17년 8월 29일에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는 박스숙(남, 1924년생, 토박이)이다.

29) 국립해양유물전시관(1999), 앞의 보고서, 117~119쪽. 이하 두덕배 및 해조선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함.

명이 작업하는 작은 나무배인데 느리고 위험하여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식 해초선의 등장으로 1920년대 없어지게 되었다. 두덕배의 재료는 소나무나 삼나무가 주 재료였으며, 목포에서 주로 구입하였고 때로는 인근에서 소나무 등을 채취하여 배를 수리하기도 하였다. 두덕배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기는 6~8m, 너비 2.5m 정도이다. 배의 형태는 뭉툭한 사각형이며, 이물부분(배의 앞부분)에는 걸장이 있어서 닻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돛대는 2개가 있었는데 이물돛대와 허리돛대가 있었다. 이물부분에 갑판이 있어서 어획물을 분류하는 등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허리돛대를 중심으로 방간이 있어 휴식공간이나 창고의 기능을 하였다. 배의 제작을 보면 배밑판은 2~3개의 판재를 맞대어 장쇠로 연결하고 외판은 15~20cm의 판재 4~5개를 연결하였다. 그런데 이런 두덕배에 대해서는 기억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도 있고, 부엌 같은 디도 있고, 또 우계 딱 쌓아진 데도 있고. 그전 배는 이통게 쪼뻗하니 밑바닥이 그라고 생겼어요. 나중에 한 놈은 쪼뻗해도 좀 평평하고. 앞에가 쪼뻗해갖고 노 젓고 땡겨어요. 거 나락 싣고 땡기고 하는 배. 그렇게 그 나룻배같이 타고 땡기는 배. 나 여기서 목포까정 타고 땡긴 배. 그런 것이 두덕배. 노 젓고 목포까정 땡겼는디, 풍선 달고, 밑에 아조 바닥도 쪼뻗해. 뽀족해. 노 젓어서 가고, 바람불믄 돛대로 가고. 겁나 커요. 나락 한배씩 싣고 목포 땡겨어요. 돛은 두 개. 한나는 크고 한나는 작고 그래요. 노 젓어서 가고. 그라믄 이틀씩 걸려서 가고 그랬어요, 이틀씩. 바람불믄 또 오디 가서 쉬다가도 가고. 이 두덕배는 영산강 막음서 없어졌어요, 영산강 막음서. ...〈중략〉... 여기는 배 맨드는 데가 없었고, 목포가 있었어. 목포에서 배가 영산포까지 간디 옛날에는 그 배들이 다 두덕배 같이 생겼어. 그것이 두덕배여. 주선하고 두덕배는 틀려. 주선은 크고, 두덕배는 작고. 많이 타믄 너이나 타겟네. 고기도 잡고. 큰바다는 못나가지만 바다로 나가. 목포가는 돌머리까정 가, 고기잡으러. 그물쳐서 잡어.

(제보자 : 광△애)³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옛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보고서에서는 두덕배가 전통 한선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배라고 하였지만, 위 제보자의 구술에서는 모두 일본식 배로 이야기되고 있다. 즉 전통 한선의 특징을 지닌 평저선(平底船)이 아니라 밑바닥이 뾰족한 일본식 첨저선(尖底船)이다. 중선배와 다르며 특히나 영산강을 오르내리던 배와 같다고 하는 구술로 보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조사 내용과는 차이를 보인다.³¹⁾

개숫배. 개숫배는 짝간한 배보다 개숫배라고 했는디. 장어잡은 배하고 연결하는 배여. 짝간해. 한나나 둘이나 타고 땡겨. 노 젓어서.”

(제보자 : 박△숙)

“뗏마. 이것이 뗏마그마(사진을 가르키며) 사람 한나 타고 땡겨. 샷대로. 두덕배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이여.”

(제보자 : 곽△애)

강에 묶여 있거나 조업하는 두덕배와 연결하는 배로 개숫배와 뗏마가 있다. 개숫배는 1~2명 정도 탈 수 있는 소형 일본식 배를 말한다. 두덕배가 장어를 잡기위해 강에 떠 있을 때 잡은 장어를 옮기거나 사람 혹은 필요한 물품 등을 옮길 때 사용하는 작은 배다. 뗏마는 통나무 몇 개를 묶어 물에 띄운 후 1명 정도의 사람이 장대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뗏목을 말한다.

이 외에 영산강 하류에는 해초선이라는 배도 있었다. 해초선은 일본식 조선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향을 미쳐 만들어진 배를 말한다. 해초선은 두덕배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훨씬 날렵하게 각을 이루었다. 해초선의 재료는 소나무나

30)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17년 8월 29일에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는 곽△애(여, 1945년생, 영암 시종에서 출생하여 시집움. 두덕배 두 대를 운영하였음)이다.

31) 기존에 있던 평저선이 첨저식의 배로 형태가 바뀌었지만, 같은 역할을 수행할 때 동일한 명칭으로 불렸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삼나무가 주 재료였으며, 나무못은 뽕나무를 깎아 박았다. 해초선의 규모는 두덕배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길이 6~8m 너비 2.5m 정도이고 이물 부분에는 호룡이 있어서 작업 시에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효율적인 기능을 하였고 닻을 놓고 고정하는



〈복원된 해초선〉
(출처 : 다음 블로그 “산과 파도와 함께”)

부분이 있었다. 돛대는 2개가 있었는데 이물돛대와 허리돛대가 있었다. 이물부분에 갑판이 있어서 어획물을 분류하는 등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허리돛대를 중심으로 방간이 있어 휴식공간이나 창고의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초선에는 걸대(삿대)를 외판의 상단에 매달아 다녔는데, 대나무로 만들었다. 배의 제작을 보면 배 밑판은 2~3개의 판재를 맞대어 장식로 연결하고 배 밑과 외판은 바로 연결하였다. 외판은 40cm의 판재 2~3개를 연결하였다.

V. 영산강의 배를 기억하다

지금까지 영산강에서 운용되었던 배를 나룻배와 어업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강은 통해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통로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문물의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바로 배(船)이다. 우리나라 강에서 조수가 뱃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조수구간을 기준으로 강배[江船]와 바닷배[海船]로 구분하기도 한다.

담양 용추산 가마골 용소(龍沼)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 또한

벧길을 통해 문화가 운반되었던 곳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과 폭을 가진 영산강의 수로는 상류인 광주 서창까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영산포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종점이었다. 그리고 서창까지 운항하던 작은배(小舩)는 강과 바다를 직접 잇는 배가 아닌 강과 인접한 두 지역을 이어주던 나룻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이 완성되면서 영산강의 벧길은 영영 끊기고 말았다.

영산포를 지난 상류지역은 강을 오르내리며 물자를 수송하거나 어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운항한 배들이기보다는 강을 마주하고 있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나룻배가 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산강 중·하류에도 나룻배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도 들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배는 모두 첨저식의 일본식 배들이다.

영산강 하구에는 다양한 어종을 잡던 어업배들도 있었다. 두덕배와 해초선이 그것들이다. 두덕배는 우리나라 전통 한선의 모습을 지닌 배라고 하지만, 기억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 해초선은 평저선(平底船)이 아니라 밑바닥이 뾰족한 일본식 첨저선(尖底船)으로 우리의 전통 한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첨저식 형태의 배로 뜰망 어업선을 연결하던 개숫배도 있었다. 조사된 내용들을 보면 이들 배는 일본식 형태의 배들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산강 상류라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용전나룻배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점은 찾아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에는 용산나루가 있었다. 현재 용전동 용전마을과 용산마을 사이를 잇는 콘크리트 다리인 용산교가 자리한 곳이 용산나루터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이곳을 운항했던 것으로 알려진 나룻배가 전시용으로 2012년까지 존재하였다. 길이 3m, 폭 1m 남짓한 크기의 작은 배이다. 오랫동안 사공이 삿대로 강바닥을 짚어가며 움직였으나 나중에는 강 양안에 밧줄을 매어 놓고 이를 당겨 움직이는 줄배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 나

룻배는 기능을 멈춘 채 용산교 근처의 찻집 앞마당에 장식품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가 2012년 쯤 사라졌다.³²⁾



<용산 나룻배> (출처 : 『영산강의 나루터』, 2012, 92쪽)

지금까지 보고된 조사 자료와 현장 조사들을 통해 영산강에는 다양한 배들이 운용되

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나 바다에서 짐을 싣고 올라온 배들이 영산포까지 바로 닿았음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강에서 배가 운항되기 위해서는 조수의 영향이 지대하다. 『택리지(擇里志)』에서는 조수의 한계를 영산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산강의 경우 조수 한계가 나주대교 인근 즉, 광탄까지이다.³³⁾ 그러기에 지금의 영산포까지 배가 운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수구간을 기준으로 강배[江船]와 바닷배[海船]를 구분하는데, 해선은 폭이 넓은 반면에 길이가 짧았고, 강선의 경우 폭이 좁은 대신 길이가 길었다. 해선은 바다를 주로 항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강선의 경우 저항을 줄여 강을 건너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다.³⁴⁾

바다 조수가 통하는 곳은 그만두고, 오로지 강배가 오가는 것만 말한다면, 강배는

32)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2012), 앞의 책, 90~92쪽. 필자가 2017년 4월 현지조사를 통해 찻집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방치되어 있다가 파손되어 인근에 버려졌다는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33) 변남주(2011), 앞의 논문, 387~393쪽 참조.

34) 변남주(2012), 앞의 논문, 99~100쪽.

작아 바다에 나가 이익을 얻지 못한다. 온 나라 안에서 한강이 가장 크고, 근원이 멀며 조수를 많이 받는다. ...〈중략〉... 오직 한양이 좌우로 바닷가의 배편과 통하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강에도 온 나라의 물자를 수운하는 배가 모여드는 이익이 있다.³⁵⁾

위의 내용은 『택리지(擇里志)』의 기록으로 오직 한강에서만 바닷배(海船)와 강배(江船)가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내용들을 종합해 보아도 영산강에서 운용된 배를 강배와 바닷배에 구별한 내용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영산강 강배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인 나주 봉호와 광주 서창 사이에 운항되었다는 작은배(小船)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그 나룻배가 엄청 요긴하게 썼어요. 저 문촌이나 저 신야촌이나 송대나. 대홍수가 나면은 거 깊은 집들이 올라와갖고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서창이 동네가 컸거든요. 노 저어갖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구출해갖고 오고 그랬어요, 그 배로.

(제보자 : 곽스기)³⁶⁾

강으로 오르내리거나 가로질러 물자와 사람을 싣고 다녔던 영산강의 배들은 하구언이 막히고,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생기면서 그 생명을 다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강을 건너 주고, 사람들의 정(情)을 연결해준 나룻배를 기억한다. 그리고 물때를 기다렸다가 짐을 옮기거나 물고기를 잡았던 어업배들을 기억한다. 또한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을 구출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된 나룻배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배들이 다시 영산강에서 운항(運航)되기를 기대한다.

35) “至若捨通潮處專以江船往來論之江船小不能出海縮利然一國之中惟漢江最大而源遠受潮水多 ... 〈中略〉... 惟漢陽左右通海峽之利東西江都輸一國船運之利而多.”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

36)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17년 10월 27일에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는 곽스기(남, 1942)년생, 서창마을 토박이, 농업)이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擇里志』.

農商工部水産局(1910), 『韓國水産誌』.

조선총독부(1929), 『朝鮮河川調査書』, 朝鮮總督府.

「光復50돌 1百年전 南道풍물기행」, 『광주일보』, 1995.01.01; 01.11 기사.

국립해양유물전시관(1999), 『우리배·고기잡이·전통어선·어로민속 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2012), 『영산강의 나무터』,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 저서 및 논문

고석규(2007), 「영산강물길·뱃길과 문화의 흐름」, 『강과바다의 문화교류사 학술대회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남도민속학회.

김경수(1987), 「榮山江 水運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일(2005), 「영산강의 주운복원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한국지역지리학회, 40~53쪽.

(UCI : <http://uci.or.kr/G704-000607.2005.11.1.008>)

김준기(2004), 「돛배의 특성 및 운용」,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9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391~411쪽.

목포대학교도서관문화연구원(2017), 『2017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 (전라지역) 최종보고서』.

박광순(1998), 「榮山江 뱃길 복원의 意義와 基本構想」, 『영산강 뱃길복원과 개발방향 학술대회논문집』, 나주시·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9~18쪽.

박종오·이정록(2010), 「섬진강 떼배 제작과 운용」, 『국토지리학회지』 44-1, 국토지리학회, 73~110쪽.(UCI : <http://uci.or.kr/G704-001284.2010.44.1.004>)

- 범선규(2011), 「영산강 옛 하류 나무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 『영산강연구센터 2011년도 연구사업보고』, 전남발전연구원 영산강연구센터.
- 변남주(2011), 「礮山江 중하류 뱃길 環境과 뚝단배 항해술」,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역사문화학회, 373~407쪽.
(UCI : <http://uci.or.kr/G704-001407.2011.14.1.006>)
- _____ (2012), 「영산강 상류지역 포구와 바닷배 뱃길 여부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73~110쪽.
(UCI : <http://uci.or.kr/G704-001407.2012.15.1.011>)
- 이상수(2013),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포천과 경포호」, 『하천과 문화』 9권 3호, 한국하천협회, 12쪽.
- 이원식(2014), 『한국의 배』, 대원사.
- 향토문화개발협의회·광주광역시서구청(2015), 『광주의 농요 ‘서창만드리’』, 서창만드리조사용역결과보고서.

3. 인터넷 자료

- 광주드림(<http://gjdream.com/v2/>)
- 국립나주박물관(<https://naju.museum.go.kr/html/kr>)
- 국립수산과학원(<http://www.nifs.go.kr/bbs?id=filshing>)
- 다음 블로그 “산과 파도와 함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Na73)
- 전라남도청(<http://www.jeonnam.go.kr/>)

| 국문초록 |

영산강 유역 강배[江船] 고찰

강은 통해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문물의 교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바로 배(船)이다. 우리나라 강에서는 조수구간을 기준으로 강배[江船]와 바닷배[海船]로 구분한다.

영산강은 뱃길을 통해 문화가 운반되었던 곳이다.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과 폭을 가진 영산강의 수로는 상류인 광주 서창까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영산강에서 배가 운항된 종점은 영산포이다. 그리고 서창까지 운항하던 작은배(小舨)는 강과 바다를 직접 잇는 배가 아닌 강과 인접한 두 지역을 이어주던 나룻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영산강에서는 강을 마주하고 있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나룻배가 주로 운용되었다. 영산강 하구에는 다양한 어종을 잡던 어업배들도 있었다. 두덕배와 해초선이 그것들이다. 해초선은 평저선(平底船)이 아니라 밑바닥이 뾰족한 일본식 첨저선(尖底船)으로 우리의 전통 한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조사 자료와 현장 조사들을 통해 영산강에는 다양한 배들이 운항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영산강에서 운용된 배를 특별히 강배와 바닷배에 구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강을 오르내리거나 강을 가로질러 물자와 사람을 싣고 다녔던 영산강의 배들이 있었다. 그러나 1981년 영산강 하구언이 생기면서 그 배들은 운항을 멈췄다. 지금도 사람들은 강을 건너 주고, 사람들의 정(情)을 연결해준 나룻배를 기억한다. 그리고 짐을 옮기거나 물고기를 잡았던 어업배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영산강에서 배가 운항되기를 사람들은 기대한다.

주제어 : 영산강, 강배, 나루, 나룻배, 전통지식, 운용

해남 윤씨 설화의 기호적 의미와 전승집단의 인식

The Symbolic Meaning and Transmission Group Cognition of The tale of The Haenam Yoon Clan

표인주*
Pyo, In-Joo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설화의 유형별 기호적 의미 |
| II. 설화 형성의 물리적 배경 | V. 설화의 원초적 근원과 전승집단의 인식 |
| III. 설화의 자료 개관 및 분류 | VI. 맺음말 |
-

| Abstract |

The Tale of The Haenam Yoon clan is physically based on the agriculture lifestyle, and the economic and the political basis of the subject of the clan tal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tales.

13 tales of the Haenam Yoon clan has been transmitted in the Jeonlla region, and has been intensively distributed in the Haenam area. The symbolic meaning of the tales are “The good life of the protagonist”, “The wise protagonist overcoming difficulties”, “The deception of the strong person”, “The active will to overcome destiny” and etc.

The first tale formed among the tales of the Haenam Yoon clan were the type of “how to become rich” tale and “how to take up a public office”, which was based on it. It can also be inferred that two types of tales also formed the basis for tales on “how to live a long life”, or “how to get the auspicious location.”

Key words : Haenam Yoon clan, Forming the tales, Physically based, The agriculture lifestyle, Transmission Group, The Jeonlla region, The symbolic meaning

* 전남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스토리란 인간이 사건, 현상, 사물 등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위대한 창작품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인간 행위와 사건, 다양한 현상의 의미 확장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삶의 이념적 가치와 정신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서사물인 것이다. 따라서 서사를 단순히 언어적 형식의 서사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서사가 곧 문화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서사이기 때문이다. 서사는 한마디로 인간의 삶의 본질을 묻는 이야기이기로서¹⁾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유토피아를 구축하고 상상하는 방법이며, 의미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미리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²⁾ 이런 점에서 서사는 문화적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기초자료인 것이다.

문화로서 구비서사는 인물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영웅적인 인물에 관한 구비서사가 행적의 비범함과 신이함 등을 재현하는 이야기라면, 역사적 인물의 구비서사는 인물의 행적을 비롯하여 사건이나 삶과 관계된 내용을 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영웅적인 인물이 비범한 모습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신앙성이 강한 구비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은 평범한 인물로서 정치적인 행보나 역사적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들 구비서사는 역사성이 강한 이야기이고 증거물을 토대로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인물과 관련된 서사의 주인공이 구비서사 전승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물과 관련된 구비서사는 기본적으로 인물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생애

1)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옮김(2015),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5쪽.

2) 제레미 탬블링, 이호 옮김(2010), 『서사학과 이데올로기』, 예림기획, 271~274쪽.

서사는 가정 및 사회, 혹은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삶의 내용으로서 구비서사 형성의 원초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한 까닭에 인물과 관련된 구비서사의 이해는 인물의 생애와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남 윤씨 설화의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선도는 그간 다양한 문헌기록을 근거로 문인으로서 조명을 받아왔고, 그에 따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의 행적은 물론 시가 작품을 통해 윤선도의 면모나 문학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온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문헌이나 문집 등의 기록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구비서사의 기억을 통해 윤선도의 모습을 엿보는 것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기록서사와 구비서사는 전승집단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는다. 기록서사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지배계층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구비서사는 문자 해독의 능력과는 다소 동떨어진 피지배계층이 수용하고 전승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록서사는 기록자의 관점이나 태도에 따라 정리했다면, 구비서사는 전승집단의 의식을 기반으로 구술 기억으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윤선도의 모습이 기록서사에서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비서사를 통해 기층민들은 윤선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 본 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구비서사의 분석 방법은 주로 역사지리학적인 방법이나 구조주의 혹은 현장론적 방법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³⁾ 역사지리학적인 방법이나 구조주의는 주로 텍스트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장론적인 방법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콘텍스트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3) 1970년대는 전파론, 구조주의, 연행이론이 설화에대한 분석적 연구를 선도하는 시대였다. 이 세 방법론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늘날까지도 구비서사의 분석에서는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 전파론은 각국 설화들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데 유효했고, 구조주의는 순차적 구조나 단락소의 개념을 토대로 구조적 짜임새와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행론은 구술 공동체의 구술연행을 현상적으로 발견하는 경험적 접근을 강조했다.(천혜숙(2017), 「구비서사 분석의 방법론 모색을 위한 제안」, 『구비문학연구』 제47집, 구비문학회, 10~15쪽.)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텍스트 형성 과정이나 배경, 가장 중요한 것은 구비서사 형성의 물적 기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구비서사도 정신적 경험의 소산으로 물리적 기반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승집단의 경험의 구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체험주의 방법론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체험주의는 모든 경험이 신체/물리적인 층위의 경험에 근거하여 ‘신체화되어(embodied)’ 있기 때문에 경험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여기서 신체화된 경험은 신체/물리적 층위의 경험과 정신/추상적인 층위의 경험의 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층위의 경험은 항상 신체적 층위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기호적 경험이다.⁴⁾ 이처럼 체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호적 경험의 형성 근거인 물리적 기반으로서, 물리적 기반이 변화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 기호적 경험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구비서사도 전승집단의 물리적 기반에 근거해 형성되고, 그것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해남 윤씨에 관한 설화를 해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록서사에 나타난 해남 윤씨 집안의 행적과 구비 전승집단의 생활환경을 물리적 배경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물리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설화의 기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설화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해남 윤씨 설화의 전승집단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설화 형성의 물리적 배경

해남 윤씨 집안은 중앙의 관직을 계기로 주로 한양에서 생활하였고, 윤덕희

4) 노양진(2013), 『몸이 철학을 말한다』, 서광사, 160쪽.

가 68세 되던 1752년에 해남 연동 종가로 이사 오면서 거주 기반이 해남이 중심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윤선도가 50대에 가장 억울하고 답답하던 시기를 보내면서 해남에서 생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⁵⁾ 실질적으로 윤선도가 가문과 가풍을 세운 선조 윤효정의 묘가 방치되고, 제사가 끊긴 것을 안타까워하여 자신부터 전답을 출연하고 내외 자손들에게 미포(米布)를 모으도록 하여 묘위전(墓位田)을 마련하여 묘제를 영구히 지내도록 했다. 그리고 윤선도는 근실과 절검 그리고 적선의 가풍에 충실할 것을 큰아들에게 요구하였다.⁶⁾ 이러한 것은 해남 지역사회에서 해남 윤씨 집안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설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설화 전승 집단은 해남 윤씨 집안보다는 그들과 관련이 있거나 함께 공동체 생활 하는 기층민들이었다. 특히 농경시대에 농민들이 설화를 창작하고 전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설화 형성의 물리적 기반은 당연히 농경민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설화 형성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농민들에겐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삶이 중요했다. 풍요로움은 비단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지만,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움은 기본적으로 농사지를 토지가 많아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관직에 진출해야 했다. 즉 관직생활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다시 그 경제적 기반은 관료생활의 유지를 지속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과 관직은 서로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것은 농민들이 관직에 대한 선망으로 신량이 혼례복으로 관복을 착용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재복(財福)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념적 세시행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설화 형성의 전승집단은 선망하고 싶은 인물

5) 려증동(1990), 「17세기 윤선도 작품에 관한 연구」, 『고산연구』 4권, 고산연구회, 147~148쪽.

6) 이종범(2004), 「고산 윤선도의 출처관과 정론」, 『대구사학』 제74집, 대구사학회, 43~44쪽.

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과 관직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비서사로서 설화가 신체/물리적 층위의 경험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비서사의 대상에 대한 전승집단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즉 '해남 윤씨 설화'는 구비전승집단이 해남 윤씨 집안에 대한 경험적인 인식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어서 구비전승집단의 경험적 기반을 확인하는 것은 해남 윤씨 설화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텍스트의 핵심적인 화소를 중심으로 구비서사 전승집단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해남 윤씨 설화의 물리적 배경으로서 정치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남 윤씨 집안은 한 마디로 중앙 지향의 관료를 배출하고 재지사족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해남 윤씨의 출발은 강진에서 출생한 윤희정(尹孝貞/1476~1619)이 해남에 기반을 둔 해남 정씨와 결혼하여 해남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후손을 윤희정의 호를 따서 어초은공파(漁樵隱公派)라 칭하고 있다. 윤희정의 아들 윤구(尹衢)대부터 18세기 윤덕희(尹德熙)대까지 8대를 연이어 문과 혹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해남이 아닌 중앙이었다. 특히 윤선도 때에 오면 윤씨가 관직 및 정치적 위상이 최고의 정점을 달했다. 윤선도 이후에 다소 주춤하기는 했으나 윤두서를 제외하고 8대에 걸쳐 중앙 관직이 거의 끊이지 않았다.⁷⁾ 이처럼 윤선도 이후 관직은 계속 이어졌지만 정치적 위상으로 보아 윤선도 만한 자리에 오르는 인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윤선도가 해남 연동에서 6년 7개월, 해남 금쇄동에서 9년 4개월, 보길도에서 12년 8개월여의 생활을 한 것이 지역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⁸⁾ 그리고 윤선도는

7) 문숙자(2012), 「17-18세기 해남윤씨의 토지 확장 방식과 사회·경제적 지향」, 『고문서연구』 40권, 한국고문서학회, 38~40쪽.

8) 문숙자(2016), 「조선 후기 양반가계와 지역민의 관계 및 변화양상」, 『고문서연구』 48권, 한국고문서학회, 114쪽.

25세에 해남의 선대묘소를 처음 방문할 정도로 그 전에는 거의 한양생활을 하였으며, 1차 유배생활로서 30세에서부터 37세에 이르기까지 6년 4개월, 2차 유배생활은 52세에서 53세에 1년간, 3차 유배생활은 74세에서 81세까지 7년 3개월간을 타 지역에서 지냈기 때문에⁹⁾ 윤선도는 주로 한양과 유배지 그리고 해남을 왕래하면서 생애를 보냈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¹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각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해남 윤씨 집안은 지역민과의 가부장적 관계를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계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이었다. 해남 윤씨의 경제적 기반은 윤희정이 해남의 부호이자 호장직을 세습해 온 해남 정씨와 혼인하면서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상속이 토대가 되었는데,¹¹⁾ 윤선도로부터 그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40여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1570년부터 1710년대까지 약 140여년 동안 꾸준히 언전(堰田)을 개발하여 토지 확대를 통해 해남 윤씨 집안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였다. 토지 매입은 주로 해남의 화산면과 현산면에 집중되었고, 언전 개발도 주로 이들 지역에 집중되었다.¹²⁾ 해남 윤씨가는 전체적으로 지체가 높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입안(立案) 입지(立旨)를 통해서 꾸준히 재산을 증식 유지했으며, 그만큼 송사(訟事)도 많았다.¹³⁾ 해남 윤씨 집안의 경제적인 기반의 실상이 어느 정도이었던

9) 윤승현 편저(2017), 『윤고산문화사전』, 재단법인 녹우당중가보존문화예술재단, 742~757쪽.

10) 고산의 생애는 대략 면학시대, 초년의 유배시대, 중년의 출사시대, 은거 및 유배시대, 그리고 만년의 당쟁생활 및 유배생활로 구분되는데, 그의 경력과 작품의 창작 시기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재홍(1990), 「윤선도 시의 형성동인」, 『고산연구』 4권, 고산연구회, 87~88쪽.

11) 정운섭(2008), 「16-18세기 해남윤씨가의 해언전 개발과정과 배경」,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1호, 역사문화학회, 121~122쪽.

12) 문숙자(2012), 앞의 논문, 41~51쪽.

13) 한상권(2011),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 『고문서연구』 39권, 한국고문서학회, 110쪽.

지는 윤씨가 노비가 해남 백련동을 중심으로 해남과 인근 도서지방에 있는 노비가 540명이었다고 한 것을¹⁴⁾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윤씨가 중앙에서 정치적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해남의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가부장적 관계로서 해남 윤씨 집안이 보호자 역할로서 지역민을 구휼하고, 혹은 그 대가로 노동력을 활용하여 토지를 개간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Ⅲ. 설화의 자료 개관 및 분류

해남 윤씨 설화는 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접할 수 있고, 최근에 간행하고 있는 《증보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해 각 시군별로 간행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부득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 자료 또한 제한된 조사지역으로 인해 분포권의 측면에서 전승지역을 일반화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해남 윤씨와 관련된 설화는 13편으로 주로 전라도 지역에 전승되고, 해남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화는 연구자들마다 분석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고에서는 설화의 서사적 화두에 착안하여 위의 13편의 설화를 분류하고자 한다. 신동훈은 서사적 화두(話頭)를 “그 요점을 화두 및 순차구조의 상호관계 속에서 쟁점적 문젯거리 형태”로 표현하면서, 즉 “서사적 의미 축을 이루는 쟁점적 문젯거리”로 규정했다. 화소의 의미자질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면서 서사적 의미가 구성되기 때문에 화소들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통해 서사적 화두를 추출할 수

14) 문숙자(2016), 앞의 논문, 116쪽.

	제 목	전승 지역	출 처
1	해남 연동 윤씨	해남군 화산면 흑석리	구비문학대계 6-5/해남군편
2	윤고산에게 반한 처녀	해남군 화산면 흑석리	구비문학대계 6-5/해남군편
3	윤고산의 신위지지	해남군 화산면 흑석리	구비문학대계 6-5/해남군편
4	묘자리로 인해 망한 입금리 윤씨들	신안군 암태면	구비문학대계 6-6/신안군편(1)
5	해남 윤씨	화순군 북면 수리	구비문학대계 6-9/화순군편(1)
6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	화순군 북면 수리	구비문학대계 6-9/화순군편(1)
7	해남 윤씨 증시조	화순군 능주읍 석고리	구비문학대계 6-10/화순군편(2)
8	해남 윤씨 이야기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구비문학대계 6-11/화순군편(3)
9	정승 낱을 부인을 알고 결혼한 해남 윤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구비문학대계 6-8/장성군편
10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구비문학대계 6-3/고흥군편
11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1)	남원군 송동면 세전리	구비문학대계 5-1/남원군편
12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2)	남원군 송동면 세전리	구비문학대계 5-1/남원군편
13	여자 유혹을 물리친 해남 윤씨 증시조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구비문학대계 5-3/부안군편

있다.¹⁵⁾ 서사적 화두가 화소와 서사구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소들의 긴밀한 연결망 속에서 서사의미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서사적 화두에 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사적 의미이기 때문에 서사적 화두에 근거하여 서사의미를 읽어갈 필요가 있다.

대다수 설화는 화소 중에서도 핵심적 역할 하는 화소가 있는데, 그 핵심적 화소를 이루는 것이 ‘주인공의 결핍’이라고 한다.¹⁶⁾ 해남 윤씨 설화에서 주인

15) 신동훈(2017),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6집, 구비문학회, 50~52쪽.

공이 ‘가난함’ 혹은 ‘벼슬 없음’, ‘명당자리 없음’, ‘단명함’에 처한 경우가 많다. 그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주인공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존재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 속에서 선대의 무덤을 이장하여 명당발복으로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가계계승¹⁷⁾의 자손이 없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따라서 해남 윤씨 설화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즉 서사적 화두의 개념에 근거하여 설화를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유형으로는 <해남 연동 윤씨>와 <해남 윤씨 이야기>, <해남 윤씨>의 3편이 있고, 두 번째로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의 유형으로는 <해남 윤씨 중시조>, <정승 낳을 부인을 알고 결혼한 해남 윤씨>,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 <여자 유혹을 물리친 해남 윤씨 중시조>,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1)>,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2)> 6편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의 유형으로 <운고산의 신위지지> 1편이 있고, 네 번째로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의 유형으로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 1편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으로 <운고산에게 반한 처녀>¹⁸⁾와 <묘자리로 인해 망한 입금리 윤씨들>¹⁹⁾ 2편이 있다.

16) 김정은(2016),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25쪽.

17) 가계계승(家系繼承)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의 살림살이 경영권을 며느리에게 물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장권은 가족을 외부에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代表權), 가족 구성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가독권(家督權), 그리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권(財産權),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들 제사권(祭祀權)으로 가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권리이고, 살림살이 경영권은 주부권이다. 따라서 한 집안의 가장은 다름 아닌 가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표인주(2014), 『남도 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15~16쪽.)

18) <운고산에게 반한 처녀> 설화를 요약하면, “가난한 아가씨가 빨래하면서 말을 타고 지나

IV. 설화의 유형별 기호적 의미

설화의 분석은 서사구조의 관계를 통해 서사적 의미를 탐색하여 주제를 파악하고, 주인공의 변신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해남 윤씨 설화는 서사적 화두를 기준으로 분류한 설화 유형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주인공의 변신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많다. 따라서 서사적 의미가 주인공이 변신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설화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앞서 신동훈의 이야기처럼 “서사적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이 서사적 화두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했듯이 서사적 의미가 서사적 화두에 대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서사적 화두가 화소들을 아우르는 서사적 구심점 역할 하기 때문에²⁰⁾ 즉 서사적 의미에 따라 주인공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화는 상상의 반경을 넓히고 사유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재하는 것 이상의 상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상은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현상계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¹⁾ 상상이 실재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을 때 현상계의 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서 설화 또한 실재의 경험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재의 경험에 근거하여 구술된 경험적 내용을 기호 산출자와 수용자의 관계에서 보면 경험적 구술내용이 기호적 경험인 것이다.

기호적 경험은 ‘기표’와 ‘기호대상’ 그리고 ‘기호내용’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가는 윤고산을 보고 상사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자, 부모가 나서서 윤고산의 후처로 결혼하게 하여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윤학관인데 공부를 하여 출세했다.”고 한다.

19) <묘자리로 인해 망한 입금리 윤씨들> 설화를 요약하면, “스님이 부자인 해남 윤씨 집에 시주를 갔는데, 오물 바가지를 받은 스님이 바위를 없애고 밧자리를 쓰면 좋다고 중얼거리자, 실제로 윤씨가 바위를 없애고 묘를 썼더니 입금리 윤씨들이 망했다”고 한다.

20) 신동훈(2017), 앞의 논문, 50쪽.

21) 신동훈(2017), 같은 논문, 42쪽.

것으로 실재라고 하는 물리적 경험을 근거로 형성된다. 여기서 기호내용은 기표 형성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설화에서 기호내용 핵심은 다름 아닌 서사적 의미이면서 서사적 화두인 것이다. 체험주의 기호학에서 기호내용이 바로 기호적 의미의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²²⁾ 서사내용에서 화소들의 서사적 중심점 역할을 하는 서사적 화두 또한 서사적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기호적 경험에서 기호적 의미가 서사적 의미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남 윤씨 설화를 화소와 서사적 구조를 통해 서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기호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호적 의미는 설화 주인공이 변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1.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유형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유형의 설화로 <해남 연동 윤씨>와 <해남 윤씨 이야기> 그리고 <해남 윤씨>가 있는데, 이들 설화는 기본적으로 해남 윤씨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본고에서는 설화 형성의 신체적/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해남군 화산면 흑석리에 전승되는 <해남 연동 윤씨> 설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해남 윤씨 이야기>와 <해남 윤씨> 설화는 해남과는 다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와 화순군 북면 수리에 전승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설화 전승지역의 물리적 기반이 해남 윤씨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남 윤씨> 설화는 “해남 윤씨가 본래 부자이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다니다가 낙방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유랑생활을 하다가 원혼들의

22) 노양진(2013), 앞의 책, 91쪽.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해남 연동 윤씨> 설화와 <해남 윤씨 이야기>와 다르다. 이 두 설화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가난한 삶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호적 경험의 측면에서만 보면 <해남 윤씨 이야기>가 해남 윤씨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남 연동 윤씨> 설화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해남 윤씨 이야기> 설화가 “해남 윤씨가 창평 고씨와 결혼하여 장인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 그 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서사줄거리에서 보면, 주인공이 지혜를 발휘하여 그 대가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해남 연동 윤씨> 설화에서 주인공이 부자 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설화는 대립구조와 순차구조는 물론 인물관계나 시공간의 구도 등의 서사 문법을 통해 구현되지만, 그 가운데 설화의 이해는 순차구조로부터 시작된다 고 할 수 있다. 순차구조야말로 설화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 연동 윤씨> 설화의 서사단락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윤씨가 강진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가난한 삶/경제적 결핍)
- ② 윤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을 만들어 베풀다.(묘지 이장 시도)
- ③ 영감(지관)이 착한 윤씨에게 밋자리를 잡아주려 한다.(지관 도움)
- ④ 윤씨(어초은)의 부모님 묘를 연동에 이장하다.(묘지 이장)
- ⑤ 해남의 초개 정씨가 용꿈을 꾸고 윤씨를 데려오다.(해남 이주 시도)
- ⑥ 초개 정씨가 윤씨를 사위를 삼으려 하자 아내가 반대하다.(해남 이주 좌절)
- ⑦ 딸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다.(해남 이주 성공)
- ⑧ 딸이 윤씨와 결혼하다.(변신 계기)
- ⑨ 윤씨는 3년간 처가에서 처한테 글을 배운다.(변신 노력)
- ⑩ 윤씨가 눈 삼십 마지기를 가지고 연동으로 돌아오다.(변신 성공)
- ⑪ 그로부터 윤씨는 부자가 되었다.(부자된 삶/경제적 해결)

위에서 각 서사구조 개별단락 끝에 제시한 서사기본 단위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난한 삶/경제적 결핍 → ②묘지 이장 시도 → ③지관 도움 → ④묘지 이장
 → ⑤해남 이주 시도 → ⑥해남 이주 좌절 → ⑦해남 이주 성공 → ⑧변신 계기
 → ⑨변신 노력 → ⑩변신 성공 → ⑪부자된 삶/경제적 해결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②~④은 주인공이 묘지를 이장하여 강진에서 해남으로의 이사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이야기로 <에피소드 I>이라면, ⑤~⑦은 주인공이 해남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에피소드 II>라 할 수 있고, ⑧~⑩은 주인공이 결혼하여 변신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III>에 해당한다. 다시 위 설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 <에피소드 I> → <에피소드 II> → <에피소드 III> → ⑪

이처럼 <해남 연동 윤씨> 설화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독립된 이야기이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에피소드 I>은 주인공이 명당자리를 얻는 이야기이고, <에피소드 II>는 주인공이 해남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이며, <에피소드 III>은 주인공이 결혼하여 성공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모두 가난한 주인공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인공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라는 서사적 화두에 답을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로서 최소한 7가지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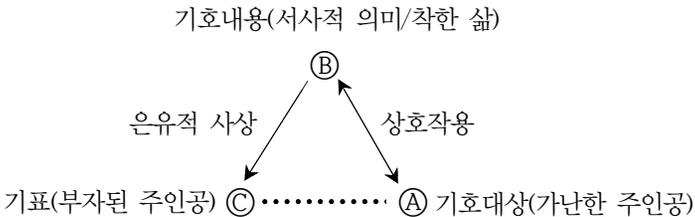
A. ① → <에피소드 I> → ⑪

B. ① → <에피소드 I> → <에피소드 II> → ⑪

- C. ① → 〈에피소드Ⅰ〉 → 〈에피소드Ⅲ〉 → ②
- D. ① → 〈에피소드Ⅰ〉 → 〈에피소드Ⅱ〉 → 〈에피소드Ⅲ〉 → ②
- E. ① → 〈에피소드Ⅱ〉 → ②
- F. ① → 〈에피소드Ⅱ〉 + 〈에피소드Ⅲ〉 → ②
- G. ① → 〈에피소드Ⅲ〉 → ②

위의 7가지 형태의 이야기는 설화 전승자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난한 주인공이 어떻게 하여 부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설화 구연자의 상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남 연동 윤씨〉 설화는 “가난한 윤씨가 착하게 살면서 선대의 무덤을 이장하고 해남으로 장가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요약되고, 주인공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의 서사적 화두에 답을 해주는 서사적 의미가 주인공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착한 삶이라는 서사적 의미가 기호내용으로 작용하여 가난한 주인공이 부자된 주인공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의 착한 삶이라는 서사적 의미가 기호적 의미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은유적으로 사상되어 주인공이 부자가 되는 존재로 거듭 태어난다. 이를 기호체계로 정리하면 ①기호대상(가난한 주인공) → ②기호내용(서사적 의미/착한 삶) → ③기표(부자된 주인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의 유형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는 해남에서는 수집되지 않고 인근 지역인 화순에서 1편, 장성 1편, 고흥 1편, 남원 2편, 부안 1편에서 발견된다. 해남 윤씨 선조 혹은 중시조에 관한 이야기는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를 비롯하여 <해남 윤씨 중시조>와 <여자 유혹을 물리친 해남 윤씨 중시조>이고, 해남 윤씨 집안의 정승에 관한 이야기는 <정승 낳을 부인을 알고 결혼한 해남 윤씨>와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1)> 그리고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2)>이다. 여기서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1)>와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2)>는 《구비문학대계》에서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로 통합하여 읽어갈 필요가 있다.

<해남 윤씨 중시조>설화는 “윤씨가 벼슬을 하기 위해 전답을 팔아 벼슬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친구와 여자의 도움으로 벼슬을 하였다.”는 이야기이고,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는 “하인으로 생활했던 윤씨가 나환자인 여자를 보살피 결혼하고 그 아들이 벼슬을 하여 양반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자 유혹을 물리친 해남 윤씨 중시조>설화는 “윤씨가 벼슬을 얻기 위해 서울을 다니다가 산신령도 해하지 못한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낳은 아들이 정승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어사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설화는 “어사 박문수가 해남 윤씨 집안의 아이를 거두어 서울로 올라가고 그 아이가 국가의 난관을 해결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여 정승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해남 윤씨 중시조에 관한 이야기와 해남 윤씨 집안의 정승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들 이야기가 해남 지역에 전승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성이 강하고 어떻게 벼슬

을 할 것인가의 서사적 화두에 가장 적합한 분석 자료로 화순군 능주읍 석고리에 전승되는 <해남 윤씨 중시조> 설화를 선택했다. 화순의 설화는 나주 인접지역으로서 당시 전라도의 정치적 중심이 나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해남과 나주 그리고 화순의 어느 정도 물리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남 윤씨 중시조> 설화의 순차구조에 따라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해남 윤씨가 천석꾼으로 잘 살았다.(경제적 흥만/정치적 결핍)
- ②윤씨가 벼슬을 하기 위해 전답을 팔아 서울로 올라간다.(정치적 해결 시도)
- ③남정승에게 전답을 바쳤으나 윤씨에게 벼슬을 주지 않다.(정치적 해결 실패)
- ④윤씨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비도 없는 신세가 된다.(정치적 결핍/경제적 결핍)
- ⑤윤씨가 기생에게 여비를 얻으려고 찾아가다.(경제적 결핍 해소 시도)
- ⑥윤씨는 도리어 기생에게 도리어 외상값을 갚다.(경제적 해소 실패)
- ⑦윤씨가 친구 도움으로 기생으로부터 삼백 냥을 받다.(경제적 해결)
- ⑧윤씨가 고향으로 내려오려던 차에 30세의 여자와 동행하다.(사회적 문제 잠복)
- ⑨윤씨가 수원의 대궐 같은 집에서 그 여자로 인해 도둑 누명을 쓰다.(사회적 문제 발생)
- ⑩윤씨는 지혜로 도둑 누명을 벗고 서울 친구 집으로 간다.(사회적 문제 해결)
- ⑪윤씨가 도둑 누명을 쓰게 했던 여자를 만나 동거생활하다.(정치적 해결 계기)
- ⑫그 여자의 지혜로 남정승을 곤경에 처하게 한다.(정치적 해결 시도)
- ⑬남정승은 통영 통제사를 제수하도록 한다.(정치적 해결)
- ⑭해남 윤씨는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내려가 중시조가 되었다.(경제적/정치적 해결)

위에서 각 서사구조 개별단락 끝에 제시한 서사기본 단위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경제적 충만/정치적 결핍 → ②정치적 해결 시도 → ③정치적 해결 실패 → ④
 정치적 결핍/경제적 결핍 → ⑤경제적 결핍 해소 시도 → ⑥경제적 해결 실패 →
 ⑦경제적 해결 → ⑧사회적 문제 잠복 → ⑨사회적 문제 발생 → ⑩사회적 문제
 해결 → ⑪정치적 해결 계기 → ⑫정치적 해결 시도 → ⑬정치적 해결 → ⑭경제
 적/정치적 해결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②~④는 윤씨와 남정승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윤
 씨가 남정승에게 전답을 받쳐 벼슬을 얻으려 했으나 실패한 이야기를 <에피소
 드 I>이라면, ⑤~⑦은 윤씨와 기생 그리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 윤씨가 기생에
 게 여비를 구하려다 도리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쟁
 기는 이야기는 <에피소드II>이고, ⑧~⑩은 윤씨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윤씨
 가 여자로 인해 누명을 쓰고 벗어나는 이야기가 <에피소드III>이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⑪~⑬은 윤씨와 여자 그리고 남정승의 관계 속에서 윤씨가 여자의
 지혜로 남정승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벼슬을 얻는 이야기를 <에피소드IV>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위 설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 <에피소드 I> → <에피소드II> → <에피소드III> → <에피소드IV> → ⑭

이처럼 <해남 윤씨 중시조> 설화는 네 개의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의 순차적 서사구조는 윤씨가 친구와 30세 여자의 도움으로 벼슬
 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윤씨가 벼슬을 하기까지는 자신의 능력으
 로 이루기보다는 원조자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씨가 벼슬을 얻고 부자가 되기까지는 제3의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윤씨가 벼슬을 하는데 조력자로 남정승, 기생, 친구, 여자가
 있지만 친구와 여자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순차적
 서사구조로 통해 서사적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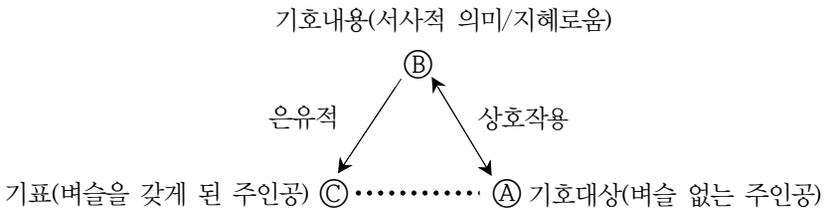
실제로 〈에피소드Ⅱ〉는 전체적인 서사구조에서 탈락되어도 서사전개에 있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에피소드Ⅱ〉를 삽입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혀진다. 하나는 윤씨가 벼슬하기 위해 재산을 남정승에 바쳤기 때문에 경제적 결핍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기생과의 무질서한 생활로 인해 경제적 결핍을 초래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윤씨가 벼슬을 얻는데 친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만약에 윤씨가 여자의 도움으로만 벼슬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에피소드Ⅱ〉는 설화의 군더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즉 〈해남 윤씨 증시조〉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도 서사적인 완성도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① → 〈에피소드Ⅰ〉 → 〈에피소드Ⅲ〉 → 〈에피소드Ⅳ〉 → ⑭

그리고 〈에피소드Ⅲ〉은 〈에피소드Ⅳ〉에서 윤씨가 벼슬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 윤씨와 결혼해야 하고 윤씨를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자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곤경에 처하도록 했던 것은 윤씨가 어떻게 곤경을 헤쳐 나오는가를 확인하고자 함이고, 그것은 윤씨로 하여금 지혜로움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다. 그것은 여자가 윤씨를 가르쳐 벼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에피소드Ⅲ〉은 〈에피소드Ⅳ〉에서 주인공이 벼슬을 얻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남 윤씨 증시조〉설화는 “벼슬이 없는 윤씨가 친구와 여자의 도움으로 지혜로움을 통해 벼슬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주인공이 어떻게 벼슬을 얻었는가의 서사적 화두에 대한 서사적 의미는 인간이 지혜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성취한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경제적인 결핍을 초래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주인공의

지혜로움으로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결핍과 경제적인 결핍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인공의 욕심이 곤경에 처하도록 했지만 주인공의 지혜로움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벼슬을 얻게 되었다는 서사적 의미는 곧 기호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은유적으로 사상되어 나타난 것이 <해남 윤씨 중시조> 설화이다. 이를 기호체계로 정리하면 ㉠기호대상(벼슬 없는 주인공) → ㉡기호내용(서사적 의미/지혜로움) → ㉢기표(벼슬을 갖게 된 주인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의 유형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의 설화는 해남군 화산면 흑석리에 전승하는 <윤고산의 신위지지> 설화가 대표적이지만, 같은 마을에 전승하는 <해남 연동 윤씨> 설화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해남 연동 윤씨> 설화는 서사적 줄거리가 명당자리를 얻어 부자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에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바 있다. <해남 연동 윤씨> 설화에서 주인공이 착한 삶을 살았기에 제삼자가 밭자리를 잡아 준 것이지만, <윤고산의 신위지지> 설화는 주체적으로 명당자리를 빼앗아 확보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해남 흑석리에는 해남 윤씨 설화가 3편 전승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해남 윤씨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윤고산이 어떻게 명당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윤고산의 신위지지> 설화를 순차구조에 따라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윤고산이 지리를 아는 사람이다.(명당자리 결핍)
- ②윤고산의 매제인 이의신이 처가인 연동에 오다.(인척인 원조자 등장)
- ③의신은 밥을 먹고 매일 나귀를 타고 나간다.(1차 명당자리 탐색)
- ④윤고산이 의신의 행적을 추적하여 의신이 뗏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하다.(1차 명당자리 확인)
- ⑤윤고산이 의신이 잡은 뗏자리를 속임수로 바꾸어치기 하다.(명당자리 바꾸어치기 시도)
- ⑥윤고산이 뗏자리(신위지지)를 구했다고 말하고 의신과 함께 확인하러가다.(2차 명당자리 탐색)
- ⑦의신은 자신이 묻어놓은 곳에서 윤고산의 묘표를 확인하다.(2차 명당자리 바꾸어치기 성공)
- ⑧의신이 어쩔 수 없이 윤고산에게 뗏자리를 양보하다.(명당자리 획득)
- ⑨윤고산이 묘를 금사동에 쓰다.(명당자리 확보)

위에서 각 서사구조 개별단락 끝에 제시한 서사기본 단위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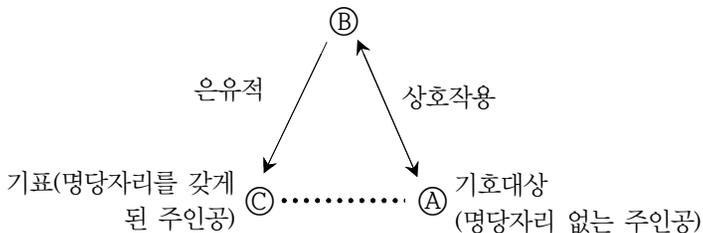
- ①명당자리 결핍 → ②인척인 원조자 등장 → ③1차 명당자리 탐색 → ④1차 명당자리 확인 → ⑤명당자리 바꾸어치기 시도 → ⑥2차 명당자리 탐색 → ⑦2차 명당자리 바꾸어치기 성공 → ⑧명당자리 획득 → ⑨명당자리 확보

이처럼 <윤고산의 신위지지>설화는 순차적 서사구조를 토대로 서사단락간의 유기적 긴밀성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다. ②~④의 서사단락은 윤고산의 매제인 의신이 지극정성으로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명당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이고, ⑤의 서사단락은 윤고산이 의신의 명당자리를 속임수로 바꾸어치기 하는 과정이며, ⑥~⑧의 서사단락은 윤고산이 의신을 속여 명당자리를 확인하여 자기 것으로 빼앗는 과정이다. 즉 이 설화는 윤고산(①의 서사단락)이 의신의 명당자리

(②~④의 서사단락)를 손윗사람의 속임수(⑤의 서사단락)를 통해 자신의 명당 자리로 빼앗는 내용(⑥~⑧의 서사단락)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고산의 신위지지>설화는 주인공이 풍수지리를 아는 사람이지만 명당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매제인 의신이 확보한 명당자리를 속임수로 빼앗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설화는 운고산과 의신의 명당자리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고산이 매제인 의신의 명당자리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속임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의 서사적 의미는 강자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명당자리를 가지지 못한 운고산이 명당자리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호적 의미의 역할을 한다. 이를 기호체계로 정리하면 ㉠기호대상(명당자리 없는 주인공) → ㉡기호내용(서사적 의미/강자의 속임수) → ㉢기표(명당자리를 갖게 된 주인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호내용(서사적 의미/강자의 속임수)



4.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의 유형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로 화순군 북면 수리에 전승하는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설화가 대표적이다. 이 설화는 실제로 주인공이 판소리 명창으로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단명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유랑생활하면서 소리를 익혀 음악적 능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

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야기로서, 내용은 단명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여 장수할 것인가] 서사적 화두에 답하는 이야기이기이다.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 설화를 순차구조에 따라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부잣집 진사가 아들을 입양하다.(불확실한 삶)
- ②중이 시주오자 진사가 아들에게 시주하도록 시키다.(문제 발단)
- ③중이 심부름한 아들을 보고 단명하다고 말한다.(문제 발생)
- ④아들이 명을 잇기 위해 10년 동안 집을 나가다.(문제 해결의 시도)
- ⑤동냥질한 아들이 단골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거들다.(1차 기회 탐색)
- ⑥아들이 4년 동안 있으면서 소리를 배우다.(능력 획득)
- ⑦아들이 단골집에서 거지처럼 하고 나온다.(1차 변신 시도)
- ⑧아들이 세 딸이 있는 정승집으로 들어가다.(2차 기회 탐색)
- ⑨아들이 글도 배우고 정승집의 일을 거들며 6년간 거지처럼 살았다.(1차 변신 수행)
- ⑩주인집 가족들이 고을 양반 잔칫집에 가고, 아들은 혼자 남다.(2차 변신 시도)
- ⑪아들이 잔칫집에 변장을 하고 가다.(2차 변신 수행)
- ⑫변장한 아들이 잔칫집에서 노래를 부른다.(1차 능력 발휘)
- ⑬막내딸이 총각이 잔칫집에 온 것을 알다.(2차 변신 노출)
- ⑭총각이 해남 윤씨라는 것을 말하고 막내딸과 언약한 뒤 해남으로 돌아간다.(존재 확인)
- ⑮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혼인 이야기를 하다.(존재 확장 시도)
- ⑯해남 윤씨 아들이 정승집의 막내딸과 결혼하다.(존재 확장)
- ⑰신랑이 잘난 체한 동서와 구박했던 처제들과 내기를 하다.(능력적 존재 확인 시도)
- ⑱신랑이 노래 경연에서 이기고 과거시험에 급제하다.(2차 능력 발휘)
- ⑲막내사위가 제압한 동서들에게 일자리를 주다.(능력적 존재 확인)
- ⑳해남 윤씨 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충만한 삶)

위에서 각 서사구조 개별단락 끝에 제시한 서사기본 단위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불확실한 삶 → ②문제 발단 → ③문제 발생 → ④문제 해결의 시도(주인공의 가출) → ⑤1차 기회 탐색(단골집) → ⑥능력 획득(노래 배움) → ⑦1차 변신 시도(거지 모습) → ⑧2차 기회 탐색(정승집) → ⑨1차 변신 수행(거지 모습으로 글과 일 수행) → ⑩2차 변신 시도(검정 칠한 모습) → ⑪2차 변신 수행 → ⑫1차 능력 발휘(노래) → ⑬2차 변신 노출 → ⑭존재 확인(불확실한 삶의 존재) → ⑮존재 확장 시도 → ⑯존재 확장(주인공의 변신) → ⑰능력적 존재 확인 시도 → ⑱2차 능력 발휘(노래/과거시험) → ⑲능력적 존재 확인(충만한 삶의 존재) → ⑳충만한 삶

위의 <관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 설화는 순차적 서사구조가 서사단락간의 긴밀한 유기성을 가지고 구현되고 있는데, 여섯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서사단락 ②~④는 아들과 시주승과 관계된 이야기 <에피소드 I>이고, ⑤~⑦의 서사단락은 아들과 단골과의 이야기 <에피소드 II>이며, 서사단락 ⑧~⑩는 아들과 정승집의 이야기 <에피소드III>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⑪~⑬의 서사단락은 아들과 잔치집 이야기 <에피소드IV>이고, ⑭~⑯의 서사단락은 아들과 정승집 막내딸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V>이며, 서사단락 ⑰~⑱는 아들과 동서들과의 이야기 <에피소드VI>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 <에피소드 I> → <에피소드 II> → <에피소드III> → <에피소드IV> → <에피소드V> → <에피소드VI> → ⑳

위에서 <에피소드 I>은 설화의 주인공이 왜 집을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화 전개의 발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에피소드II>가

주인공이 단골집에 가는 이야기로 전개된 것은, 이것은 민속에서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가 묻어 태어나거나 명이 짧은 아이는 단골에게 이름을 팔거나 단골로 하여금 공을 들이게 하는 의례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²³⁾ 이것은 단명할 것이라고 생각한 주인공이 단골집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 것이다. 단골집에서 노래를 배우게 한 것도 단골로 하여금 주인공의 단명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주인공의 단명함을 주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에피소드Ⅱ〉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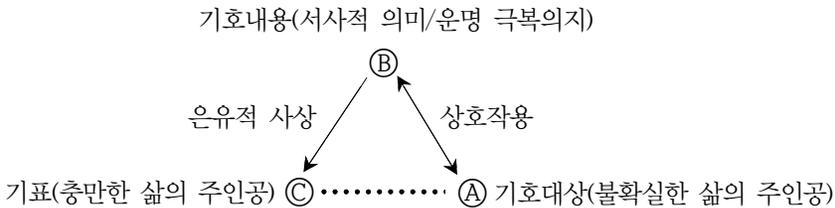
〈에피소드Ⅱ〉로부터 주인공의 본격적 활동의 전개가 시작되어 〈에피소드Ⅳ〉에서 절정에 달하고 〈에피소드Ⅴ〉에서 마무리되는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에피소드Ⅱ〉에서 주인공이 음악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에피소드Ⅲ〉에서는 주인공이 지혜로움을 갖게 하는 학문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주인공이 글을 배웠지만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여 불안정한 삶의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은 〈에피소드Ⅳ〉이고, 〈에피소드Ⅴ〉에서는 불안정한 삶의 존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에피소드Ⅵ〉에서는 주인공이 음악적이며 학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삶의 존재로 변신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명한 아들이 집을 나가 단골집에서 노래를 배우고 정승집에서 글을 익혀 정승 집 딸과 결혼하고 과거급제 하여 잘 산다.”

따라서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 설화에서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의 서사적 화두에 대한 대답이 “주인공이 집을 나가 노래를 배우고 글을 익혀 좋은 인연과 지혜로움을 통해 단명한 운명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서사적 의미는

23) 표인주(2014), 앞의 책, 249쪽.

‘운명의 적극적인 극복 의지’인 셈이다. 즉 주인공이 불확실한 삶에서 충만한 삶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라는 기호적 의미가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호체계로 정리하면 ㉠기호대상(불확실한 삶의 주인공) → ㉡기호내용(서사적 의미/운명 극복의지) → ㉢기표(충만한 삶의 주인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5. 설화의 원초적 근원과 전승집단의 인식

설화는 일정한 문법체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처럼 담화적 의사소통의 체계로 구현된다. 여기서 담화적 의사소통 체계라 함은 설화도 언어처럼 일정한 규칙적인 담화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설화에 대한 해석이 서사적 원리와 규칙에 근거한 서사문법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즉 설화의 서사문법의 체계를 정리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설화의 구조적 변이를 추적하는 관심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설화의 구조적 변이는 단순히 텍스트 형태상의 변화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술자의 삶의 체계라고 하는 물리적 경험이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상상적 능력의 차이가 빚어내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설화는 실제와 상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화 가운데 허구적인 요소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인간 삶의 내용이 응축되어 표현된 것이고 실제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설화가 인간의 실제와 상상의 체계로 구성된 서사물인 것이다. 여기서 상상은 당연

히 실재를 근거로 형성되고, 상상이 구현되는 곳이 설화인 까닭에 설화가 인간의 실제 삶을 운택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설화가 인간 삶의 체계에 대한 상상적 표현으로서, 즉 설화는 구연자의 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적 표현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의 구조적 변이가 단순히 구연자의 상상력이나 기억력의 차이만이 아닌 기호적 경험의 근원인 물리적 경험의 변화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설화도 여타의 기호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리적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설화의 형성과 변화는 인간의 물리적 경험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 설화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해남 윤씨 설화의 기호적 의미를 파악해보았던 것처럼 설화를 단순히 텍스트 중심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체험주의적인 측면에서 설화의 형성 과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설화는 구연자의 신체적/물리적 경험에 근거하여 형성된 정신적인 경험으로, 정신적 경험은 다름 아닌 기호적 경험이다. 여기서 기호적 경험인 설화가 구연자의 물리적 경험에 앞서 주어질 수 없고, 물리적 경험의 다양함은 기호적 경험의 복잡함을 야기한다. 그것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내용이 사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내용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근거로 한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은유²⁴⁾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해남 윤씨 설화의 형성배경으로 물리적 경험 기반과 설화 전승 집단의 인식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4) 은유는 기호를 비롯하여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학과 상상도 단순히 예술적인 측면의 좁은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체계인 경험적 영역이 상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은유, 기호, 미학, 상상의 개념을 문화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설화 또한 단순히 서사미학적 체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술문화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유형의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해남 윤씨의 경제적인 배경이다. 실제로 강진에서 출생한 윤효정이 해남 정씨와 결혼하여 해남에 정착한 것이나, 윤효정이 해남 정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해남 윤씨는 해남과 인근 도서지방에 있는 노비가 54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고, 토지 매입은 주로 해남의 화산면과 현산면에 집중되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적 기반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이 설화의 시작이나 마무리에서 주인공이 부자라는 것을 밝히는 근거가 되었고, 해남군 화산면 흑석리 <해남 연동 윤씨> 설화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설화에서 “해남 윤씨가 장가 잘 가서 부자 되었다”는 내용은 <해남 연동 윤씨> 설화는 물론 <해남 윤씨 이야기>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은 설화 전승집단이 마치 해남 윤씨가 재복(財福)²⁵⁾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화에서 재복은 단순히 주인공의 운명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중앙의 관직을 향한 정치적 진출이다. 실제로 윤효정의 아들 윤구대부터 18세기 윤덕희 대까지 8대를 연이어 문과 혹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주로 서울이었고, 윤선도 때에 오면 윤씨가의 관직 및 정치적 위상이 최고의 정점을 달한 것으로 보면 해남 윤씨 집안의 정치적인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설화 전승집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25) 복(福)이란 인간에 의해서 작용되거나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부여되든지 간에 두루두루 넉넉하게 갖추어짐을 의미하고, 수복(壽福), 식복(食福), 재복(財福), 관복(官福), 인복(人福)으로 나누어진다.(표인주(2014), 앞의 책, 199쪽.)

물론 해남 윤씨의 정치적인 위상은 그 자손들이 노력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설화 전승집단은 해남 윤씨가 인복(人福)이 있어서 벼슬을 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해남 윤씨> 설화에서 주인공이 유랑할 때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해남 윤씨 증시조> 설화에서 친구와 여자의 도움, <정승 낱을 부인을 알고 결혼한 해남 윤씨> 설화에서 생인의 도움, <해남 윤씨 선조 이야기> 설화에서 나환자의 도움, <유혹을 물리친 해남 증시조> 설화에서 진정승의 딸의 도움, <어서 박문수와 해남 윤정승 이야기>에서 박문수의 도움을 모두 주인공의 인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설화 전승집단이 해남 윤씨가 벼슬을 하게 된 것은 주인공의 인복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의 지혜로움이 작용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해남 윤씨 집안의 입양 사례이다. 입양은 기본적으로 가계계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해남 윤씨 가운데 큰댁으로 입양 간 사례로 윤선도와 그의 양아버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해남 윤씨 집안에 자손이 귀했음을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손의 단명으로 확장되는데도 기여했다. 이러한 환경이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비단 이러한 설화가 해남 윤씨 설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장남 위주 가족제도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도 한다. 어떻든 <판소리 명장으로 출세한 사람> 설화에서 주인공이 단명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은 수복(壽福)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설화의 전승집단은 주인공이 수복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이 운명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과거 급제하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네 번째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의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윤선도의 정치적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선도는 윤씨가 관

직 및 정치적 위상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 윤선도 이후 관직은 계속 이어졌지만 정치적 위상으로 보아 윤선도 만한 자리에 오르는 인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윤선도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설화 전승집단은 이러한 물리적 배경을 토대로 윤선도가 약자가 아니라 강자로서 군림할 수 있고, 윤선도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의 설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고산 신위지지> 설화에서 윤고산은 약자가 아닌 강자로 등장하며 손아랫사람이 잡은 뱀자리를 속임수로 빼앗는다. 설화에서 속임수는 빼앗기 위해 강자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난관을 극복하거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속임수를 활용하기도 한다. <윤고산 신위지지> 설화의 전승집단은 기본적으로 관복(官福)이 있는 윤선도가 손아랫사람으로부터 뱀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오복(五福)이 넘치는 윤선도의 속임수가 합리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해남 윤씨 설화의 물리적 관계와 전승집단의 인식을 살펴보았지만 설화의 계보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설화 전승집단의 인식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설화 전승집단의 인식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해남 윤씨 집안은 재복이 많고 인복이 많으며, 이것이 관복의 근거가 되거나 수복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복합되어 해남 윤씨 집안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설화의 계보관계를 보면, 가장 먼저 형성된 설화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유형의 설화이고, 그것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설화가 바탕이 되어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로, 혹은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의 설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에²⁶⁾ 불과하고 해남 윤씨 설화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해석방식의 하나로 이해 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것은 공간적으로 해남 윤씨 설화의 전승지역을 토대로 보더라도 해남에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혹은 그로부터 원거리로 전파되거나 형성되었을 가능성을²⁷⁾ 고려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영역	경험	설화 유형			
정신	기호적 경험 (B)	착한 삶	지혜로움	운명 극복의지	속임수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유형 (a)	→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의 유형 (b)	→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의 유형 (c)	→ [어떻게 명당 자리를 얻을 것인가]의 유형 (d)
		재복	관복/인복	수복	오복
몸	물리적 경험 (A)	- 설화 전승집단의 농경민적인 생활 - 해남 윤씨 집안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 해남 윤씨 집안의 입양사례와 윤선도의 정치적 위상			

26) 복의 순환과정이 수복 → 인복 → 관복 → 재복 → 식복으로, 혹은 식복 → 재복 → 관복 → 인복 → 수복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인주(2014), 앞의 책, 209쪽) 중요한 것은 재복과 관복 그리고 인복이 모두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모든 복은 재복이 근간이 되어 관복을 획득할 수 있고, 인복도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의 구조를 복의 의미를 지닌 설화의 형성에도 적용해 본 것이다.

27) 문화 진화 원리에서 문화가 인간의 이동을 통해 전파(diffusion)되거나 수용되어 변화하는 것처럼 설화도 인간의 이동을 통해 인근지역으로 전파되어 확산되면서 그 물리적 기반에 부합한 다양한 설화를 생산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해남 윤씨 설화의 물리적 배경을 확인해 보고, 그로 인해 형성된 설화의 기호적 의미를 파악해 보았으며, 설화의 계보관계를 비롯하여 설화 전승집단이 윤선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되었던 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해남 윤씨 설화 형성의 물리적 배경으로 기본적으로 설화 전승집단의 농경민적 생활이 기반이 되었고, 이야기의 대상인 되었던 해남 윤씨 집안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남 윤씨 집안은 한 마디로 중앙 지방의 관료를 배출하고 재지사족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 지역민과의 가부장적 관계를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계이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이 해남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해남 윤씨 설화는 13편으로 전라도 지역에 전승되고, 해남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설화의 서사적 화두가 화소와 서사구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서사의미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사적 화두에 착안하여 설화를 분류했다. 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유형으로는 3편이 있고, ②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의 유형으로 6편, ③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의 유형으로 1편, ④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의 유형으로 1편, 기타 2편이 있다.

해남 윤씨 설화의 서사구조를 통해 서사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기호적 의미를 파악했다. 기호적 의미는 설화 주인공이 변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유형으로서 <해남 연동 윤씨> 설화의 기호적 의미는 '주인공의 착한 삶'이고, ②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인 <해남 윤씨 중시조> 설화의 기호적 의미가 '주인공의 지혜로움으로 어려운 난관 극복'이며, ③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인 <윤고산의 신위지> 설화의 기호적 의미는 '강자의 속임수'이다. 마지막으로 ④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설화의 기호적인 의미는 ‘운명의 적극적인 극복 의지’이다. 이러한 기호적 의미가 해남 윤씨 설화에 나타난 주인공이 변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남 윤씨 설화의 원초적 근원과 전승집단의 인식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해남 연동 윤씨〉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해남 윤씨의 경제적인 배경이고, 설화 전승집단은 해남 윤씨가 재복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해남 윤씨 중시조〉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중앙의 관직을 향한 정치적 진출이고, 설화 전승집단은 해남 윤씨가 인복이 있어서 벼슬을 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주인공의 지혜로움으로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윤고산의 신위지지〉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해남 윤씨 집안의 입양 사례이고, 설화의 전승집단은 주인공이 수복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이 운명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과거급제 하여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윤선도의 정치적 위상이고, 설화의 전승집단은 기본적으로 관복을 가지고 있는 윤선도가 뒷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윤선도의 속임수가 합리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해남 윤씨 설화의 물리적 관계와 전승집단의 인식을 살펴보았지만 설화의 계보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먼저 형성된 설화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유형의 설화이고, 그것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설화가 바탕이 되어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로, 혹은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의 설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재홍(1990), 「윤선도 시의 형성동인」, 『고산연구』 4권, 고산연구회, 85~98쪽.
- 김정은(2016), 「설화의 서사문법을 활용한 자기발견과 치유의 이야기 창작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I804:11004-000002231236)
- 노양진(2013),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 려증동(1990), 「17세기 윤선도 작품에 관한 연구」, 『고산연구』 4권, 고산연구회.
- 문숙자(2012), 「17-18세기 해남윤씨가의 토지 확장 방식과 사회·경제적 지향」, 『고문서연구』 40권, 한국고문서학회, 35~56쪽.(UCI : G704-000717.2012.40.008)
- _____ (2016), 「조선 후기 양반가계와 지역민의 관계 및 변화양상」, 『고문서연구』 48권, 한국고문서학회, 103~131쪽.(UCI : G704-000717.2016.48.027)
- 신동훈(2017),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6집, 구비문화회, 35~83쪽.
- 윤승현 편저(2017), 『윤고산문화사전』, 재단법인 녹우당종가보존문화예술재단.
- 이종범(2004), 「고산 윤선도의 출처관과 정론」, 『대구사학』 제74집, 대구사학회, 29~58쪽.(UCI : G704-000893.2004.74.002)
- 정윤섭(2008), 「16-18세기 해남윤씨가의 해언전 개발과정과 배경」,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1호, 역사문화학회, 111~147쪽.(UCI : G704-001407.2008.11.1.006)
-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옮김(2015),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 제레미 탬블링, 이호 옮김(2010), 『서사학과 이데올로기』, 예림기획.
- 천혜숙(2017), 「구비서사 분석의 방법론 모색을 위한 제안」, 『구비문학연구』 제47집, 구비문화회, 1~33쪽.
- 표인주(2014), 『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출판부.
- 한상권(2011),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 『고문서연구』 39권, 한국고문서학회, 105~146쪽.(UCI : G704-000717.2011.39.002)

| 국문초록 |

해남 윤씨 설화의 기호적 의미와 전승집단의 인식

해남 윤씨 설화 형성의 물리적 배경으로 기본적으로 설화 전승집단의 농경민적 생활이 기반이 되었고, 이야기의 대상인 되었던 해남 윤씨 집안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남 윤씨 집안은 한 마디로 중앙 지향의 관료를 배출하고 재지사족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 지역민과의 가부장적 관계를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계이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이 해남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해남 윤씨 설화는 13편으로 전라도 지역에 전승되고, 해남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설화의 서사적 화두가 화소와 서사구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서사의미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사적 화두에 착안하여 설화를 분류했다. 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유형으로는 3편이 있고, ②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의 유형으로 6편, ③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의 유형으로 1편, ④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의 유형으로 1편, 기타 2편이 있다.

해남 윤씨 설화의 서사구조를 통해 서사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기호적 의미를 파악했다. 기호적 의미는 설화 주인공이 변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유형으로서 <해남 연동 윤씨>설화의 기호적 의미는 '주인공의 착한 삶'이고, ②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인 <해남 윤씨 중시조> 설화의 기호적 의미가 '주인공의 지혜로움으로 어려운 난관 극복'이며, ③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인 <윤고산의 신위지지> 설화의 기호적 의미는 '강자의 속임수'이다. 마지막으로 ④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 설화의 기호적인 의미는 '운명의 적극적인 극복 의지'이다. 이러한 기호적 의미가 해남 윤씨 설화에 나타난 주인공이 변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남 윤씨 설화의 원초적 근원과 전승집단의 인식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해남 연동 윤씨>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해남 윤씨의 경제적인 배경이고, 설화 전승집단은 해남 윤씨가 재복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해남 윤씨 중시조>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중앙의 관직을 향한 정치적 진출이고, 설화 전승집단은 해남 윤씨가 인복이 있어서 벼슬을 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주인공의 지혜로움으로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윤고산의 신위지지>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해남 윤씨 집안의 입양 사례이고, 설화의 전승집단은 주인공이 수복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이 운명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과거급제 하여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판소리 명창으로 출세한 사람> 설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은 윤선도의 정치적 위상이고, 설화의 전승집단은 기본적으로 관복을 가지고 있는 윤선도가 뒤편 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윤선도의 속임수가 합리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해남 윤씨 설화의 물리적 관계와 전승집단의 인식을 살펴보았지만 설화의 계보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먼저 형성된 설화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유형의 설화이고, 그것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어떻게 벼슬을 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설화가 바탕이 되어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유형의 설화로, 혹은 [어떻게 명당자리를 얻을 것인가] 유형의 설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해남 윤씨, 설화 형성, 물리적 배경, 농경민적 생활, 전승집단, 전라도, 기호적 의미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특징과 전승의미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adition Meaning of Gang, Gam-Chan's narratives in Gurye area

한 서 희*
Han, Seo-hui

목 차

I. 머리말
II. 전승현황

III.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
IV. 맺음말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 and meaning of tradition of Gang, Gam-Chan's narratives handed down in Gurye area.

Gurye's Gang, Gam-Chan's narratives were all 10. This can be regarded as a feature of the tradition of Gang, Gam-Chan's narratives handed down in Gurye.

Gang, Gam-Chan's narratives who is handed down in Gurye province is different from the Gang, Gam-Chan's narratives who is handed down throughout the country. Gurye's Gang, Gam-Chan's narratives is very active with a specific motif called 'Water-noise Calm down'. This is a phenomenon that is linked to the evidence that the story of this area is the 'Village of JanSoo', and based on this, it creates a new type of story called 'Gang, Gam-Chan and JanSoo'.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Secondly, Gurye area are handed down to the story of 'Wonhyo monk and JanSoo', which is similar to the story of 'Gang, Gam-Chan and JanSoo'. These two narratives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at the same time in the background of the village of the old village of Gurye.

Lastly, the meanings of Gang, Gam-Chan's narratives in Gurye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three motifs, namely, 'Mosquito Eradication', 'Water-noise Calm down', and 'Break a Lightning'. Mosquitoes, Water-noise, and Lightning are all interpreted as symbolic expressions of local indigenous forces or local officials who dominate the ruling class. And through the character of Gang, Gam-Chan who is fighting them out in the story, it can be seen that the folk tales of the fable are desiring the emergence of a hero to save them from the real hardships.

Based on Gurye, Gam-Chan's narratives have dynamic talent by creating stories of their own type called 'Gang, Gam-Chan and JanSoo' in combination with the values of the folk tales' group as well as their regional specialties.

Key words : Gang, Gam-Chan's narratives, Village of JanSoo,
Gurye area, 'Mosquito Eradication',
'Water-noise Calm down', Break a Lightning

I. 머리말

고려 전기의 문신 강감찬(948~1031)은 현종9년(1018)에 고려를 침공한 거란의 10만 대군을 귀주(龜州)에서 격파한 명장으로,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대내외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풍전등화의 위기로부터 고려를 구한 강감찬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여러 문인들이 그의 출생과 활약담을 문헌에 기록하여 전할 정도로 지배층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문헌기록이 지배층의 강감찬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면, 피지배층의 강감찬에 대한 인식은 구비 전승되는 강감찬에 관한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감찬과 관련한 설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광포설화다.¹⁾ 때문에 강감찬 설화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그간 강감찬 설화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경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볼 수 있다. 즉 전국에 전승되고 있는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강감찬 설화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²⁾와, 출생담과 성장담 등 강감찬 설화 중 어느 한 시기를 배경으로 이야기된 자료나 이물교구(異物交媾)와 같은 특정 화소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³⁾, 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과 의미

1) 이하 '강감찬 설화로 통칭한다.

2) 이경우(1983), 「인물설화의 의미와 변이 연구」, 『서원대학 논문집』 12, 서원대학교, 9~24쪽.

장장식(1990), 「강감찬 전설 연구」, 『석천정우상박사 화갑논문집』, 교학사, 580~582쪽.

강진옥(1990),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프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대 한국문학연구소, 173~203쪽.

손병국(1997), 「명장과 이인으로 추앙받는 삶 : 강감찬 설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인문사회과학논문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3~47쪽.

권은정(2001), 「강감찬 전설의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2002), 「강감찬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강진옥(1990), 같은 논문, 173~203쪽.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성장담 연구」, 『한국언어문화』 48집, 한국언어문

분석에 대한 연구⁴⁾다. 이 중 장장식⁵⁾은 설화에서 강감찬은 영웅적 행위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신성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인물형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에게서 우호적인 시각을 받으며 전승될 수 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물설화가 비교적 전승력이 강하고 전승내용도 풍부하다고 보았다. 장장식의 이러한 견해는 피지배층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설화의 전승력에 지배층의 인식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설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관련 인물의 문헌기록의 검토 역시 필요함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감찬 설화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눈에 띄는 것은 특정 지역의 전승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특히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에 대한 연구는 단연 압도적인데, 이는 강원지역에서의 전승이 타 지역보다 활발하기에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자료만으로도 강감찬 설화가 지닌 특징과 전승의미를 파악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 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먼저, 서순남⁶⁾은 강원도 지역 설화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로 강감찬과 이이, 정철, 단군을 들고 이들 설화의 유형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감찬은 전설에서

화학회, 229~255쪽.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출생담의 양상과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0, 실천민속학회, 163~192쪽.

이동철(2013), 「강감찬 이물신랑 퇴치설화의 특징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5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359~379쪽.

4) 서순남(1997), 「강원도 지역의 인물전설 연구」, 전북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정룡(2003), 「강원지역 강감찬 설화 고찰」, 『강원민속학』 권17, 강원민속학회, 145~164쪽.

최 웅(2009), 「강감찬 설화의 의미 분석」, 『인문과학연구』 권2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9~187쪽.

김정남(2015), 「강원 지역 역사인물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장장식(1990), 앞의 논문.

6) 서순남(1997), 같은 논문.

책략과 초인적인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특히 강원지역의 특정 지역과 관련하여 강감찬이 거론되는 것은 강감찬과 같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열망한 민중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장정룡⁷⁾은 강원지역의 강감찬 설화를 지역·출생·외모·퇴치와 이적 등의 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강원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정사(正史)의 명장(名將)이라는 면모보다 민중생활상 불편함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최웅⁸⁾은 강원 영동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실존 역사인물이 설화화 되는 과정에서 민중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폈다. 그 결과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가 지역 전승이 될 때는 특정지역 전승집단의 형편에 맞게 각색되고 재창조되어 전승되며, 강감찬이 백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대상들을 퇴치하는 이인적 면모를 통해 민중들의 현실적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남⁹⁾은 강원지역 역사인물설화의 전반적인 전승현황과 전승양상을 살펴면서, 강감찬 설화는 강원지역에 전승되는 목민관 설화로 대표된다고 하고 강감찬 설화를 통해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강감찬과 같은 목민관이 나타나 선정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표출로 보았다.

이처럼 강원 지역에 전승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록 지역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전승되는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강감찬 설화가 광포설화로서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설화의 내용이 대체로 비범한 출생과 신이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물(異物)퇴치 등이 주를 이루면서 전승되고 있기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강감찬 설화가 지닌 특징과 의미를 도출해내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7) 장정룡(2003), 앞의 논문.

8) 최 웅(2009), 앞의 논문.

9) 김정남(2015), 앞의 논문.

보인다.

강감찬 설화와 같은 인물전설은 어떤 인물이 어떤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면서 살아간 이야기이므로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는 관계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또는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나타내는 양상이 다른 전설의 경우보다도 구체적일 수 있다.¹⁰⁾ 설화 속에서 강감찬은 세계와 대결하지만 세계의 우위에 입각하여 행동하는데, 그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강감찬의 신이한 능력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적 인물로서 강감찬이 어떤 이유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변이되어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로, 대개 설화 전승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강감찬과 같은 능력자가 와서 해결해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역사 인물전설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전승될 때 그 속에는 해당 지역민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강원도와 같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인물전설의 지역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례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례를 포함하여 전남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은 전국 전승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볼 때 91편의 강감찬 설화 중 전남지역에는 12편의 자료만이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할 수 있었던 데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비해 전남지역에 전승되는 자료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지역전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전남지역에서 전승되는 12편의 자료 중 10편이 구례지역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남지역에서 특히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고

10) 조동일(197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6~7쪽.

있는 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본 설화가 갖는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전승현황

강감찬 설화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설화 외에도 다수의 문헌에 구비설화와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강감찬 설화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전 시대의 문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감찬에 관한 기록은 최자의 『보한집』을 필두로 하여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용재총화』,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운부군옥』, 『해동이적』, 『해동명승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한집』과 『용재총화』에는 강감찬의 출생담과 이적담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강감찬의 출생을 포함한 생애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보한집』과 『용재총화』의 기록은 현재 구비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구비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는 크게 강감찬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와 신이한 능력으로 동물은 물론 귀신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 그리고 강감찬의 못생긴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 전승되고 있다.

강감찬 설화가 문헌기록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승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강감찬의 출생담을 수록한 문헌 중 가장 먼저 보이는 『보한집』과 강감찬의 신이한 능력을 담은 『용재총화』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한집(補閑集)의 기록>

오늘날 세상에 전해오기를, 한 사신이 밤에 시흥군으로 들어서는데 큰 별이 어

편 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신은 이상히 여겨 곧 관리를 보내어 그 집을 살
펴보도록 하였다. 그 집에서는 마침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사신은 이 일을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으니 그 아이가 곧 강감찬이며 후에 정승까
지 지냈다. 송나라 사신 중에 뛰어난 식별력이 있는 어떤 이가 강공을 보고 “문곡
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 되어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의 강
공이 바로 문곡성이시군요.”하고는 곧 뜰 아래로 내려가 예를 차렸다고 한다.¹¹⁾

<용재총화(慵齋叢話)의 기록>

고려 시중(侍中) 강감찬(姜邯贊)이 한양 판관이 되었는데, 그때에 부의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 관리와 백성이 많이 물려 부윤(府尹)이 걱정을 하자, 강감찬이 부
윤에게, “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3, 4일만 기다리면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하고
는 종이에 글을 써서 첩(貼)을 만들고는 아전에게, “내일 새벽에 북동(北洞)에 가
면 늪은 중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니, 네가 불러서 데리고 오너라.”고 부탁하
였다. 아전이 그가 말한 곳에 가보았더니, 과연 남루한 옷에다 흰 베로 만든 두건
을 쓴 늪은 중 한 사람이 새벽 서리를 무릅쓰고 바위 위에 있다가 부첩(府貼)을
보고 아전을 따라와서 판관에 배알하고는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강감찬이 중
을 보고 꾸짖기를, “너는 비록 금수이지만 또한 영(靈)이 있는 물건인데, 어찌 이
와 같이 사람을 해치는나. 너에게 5일간을 약속할 터이니, 추한 무리를 인솔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곧 썩어 화살로 모두 죽이겠다.” 하니, 중은 머리
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부윤이 크게 웃으며, “판관은 잘못 본 것이오, 종이 어찌
호랑이겠소.” 하니, 강감찬이 늪은 중을 보고, “본 모양으로 화하라.” 하니, 종이 크

11) 최자·유재영 역(1981), 『보한집』, 원광대 출판부, 38쪽.

『보한집』의 기록과 유사한 내용이 『고려사』 열전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어떤 사신(使臣)이 시흥군(始興郡)에 들어왔다가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더니, 마침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다. 사신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겨 그 아이를 앗아와서 양육하니 이가 곧 강감찬(姜邯贊)이었다
고 한다. 뒤에 재상이 됨에 이르러 宋나라 사신이 그를 보고는 不覺中에 下拜하고 말하
기를 ‘文曲星이 보이지 아니한 지가 오래더니 이제 여기 있도다.’ 라고 하였다.” (『역주
고려사』 열전 권94(1971), 동아대 고전연구실, 248쪽.)

게 소리를 지르고는 한 마리의 큰 호랑이로 변하여 난간과 기둥으로 뛰어오르니, 그 소리가 수리 밖에까지 진동하였으며 부윤은 낮을 잃고 땅에 엎드렸다. 강감찬이, “그만두어라.” 하니, 호랑이는 전 모양으로 홑 돌아가서 공손히 절하고 물러갔다. 이튿날 부윤이 이원(吏員)에게 동쪽 교외에 나가 살펴보라고 명하여 가서 살펴보니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너갔다. 이로부터 한양부에는 호랑이에게 당하는 걱정이 없어졌다.

강감찬의 처음 이름은 은천(殷川)이며, 복시(覆試)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수상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몸집이 작고 귀도 조그맣았다. 용모가 아주 크고 위엄스럽고 가난한 어떤 선비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관대(冠帶)를 단정히 하여 앞줄에 서고, 강감찬은 헌옷을 입고 그 밑에 있었는데, 송나라의 사신이 가난한 선비를 보고, “용모는 비록 크고 위엄이 있으나 귀에 성곽(城郭)이 없으니, 필연코 가난한 선비다.” 하고, 강감찬을 보고는 두 팔을 벌이고 엎드려 절하며, “염정성(廉貞星)이 오랫동안 중국에 나타나지 않더니, 이제 동방(東方)에 있습니다.” 하였다.¹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기록>

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산업을 경영하지 않았으며,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이한 계략이 많았다. 형체와 용모는 작고 못생겼으며, 옷은 때가 묻고 떨어져서 볼품은 보통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나, 얼굴빛을 엄정하여 하여 조정에서는 큰 일에 다달아 큰 계책을 결정하여 홀연히 국가의 기둥과 주주가 되었다.¹³⁾

『보한집』과 『고려사』 열전, 그리고 『용재총화』에 보이는 강감찬의 출생과 관련한 기록은 현재 전승되는 강감찬의 출생담과 관련이 매우 깊다. 『보한집』과 『고려사』 열전에 수록된 내용은 강감찬이 문곡성(文曲星)의 탄생이라는 송나라 사신의 말을 수록한 것이며, 『용재총화』에는 강감찬이 염정성(廉貞星)의

12) 성현,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편(1985),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62-63쪽.

13) 김종서 외 『국역 고려사절요』 I, 민족문화추진회 편(1976),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9-210쪽.

화신이며, 한양에서 판관으로 재임시에 증으로 변한 호랑이를 퇴치한 이야기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문헌에 보이는 문곡성이나 염정성 모두 강감찬의 비범한 인물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설화에는 천문성(天文星)이나 문태성(文太星) 등의 말로 표현되고 있다. 문곡성이란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을 일컫는 도교식 이름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관의 운을 결정하는 신으로 여겨 숭상하였다. 또 천문성은 당시주를 보는데 쓰이는 12개의 별 중 하나로, 천문성을 타고 태어나면 용모가 단정하고 학문에 부지런하여 문권을 잡고 백성을 다스리며 만인이 우러러본다고 한다.¹⁴⁾ 따라서 문헌과 구비설화에서 보이는 문곡성 등의 언술은 모두 문인이지만 명장으로 추앙받는 강감찬의 비범함을 출생에서부터 드러내기 위한 서술로 이해된다.

강감찬의 출생담과 더불어 『용재총화』에 보이는 한양에 출몰하여 해를 입히던 호랑이를 퇴치한 이야기는 이후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으며, 구비설화에도 이와 흡사하거나 호랑이가 아닌 여우나 다른 동물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사절요』의 기록은 명장 강감찬의 외모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헌에서 강감찬은 못생긴 외모를 지녔고, 청렴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비로 전승되고 있는데, 대개는 강감찬이 본래 빼어난 인물을 타고 났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마마(천연두)를 불러와 얼굴을 얻게 하여 못생긴 외모가 되었다는 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보한집』과 『고려사』 그리고 『용재총화』에 수록된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가 전국에 전승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구비문화대계』에 수록된 강감찬 설화는 모두 91편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설화집에 수록된 강감찬 설화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구비문화대계』에 수록된 구례지역의 강감찬 설화는 모두 10편으로,

14) 김은주(2002), 앞의 논문, 16-17쪽.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까지 포함하면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자료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기본 대상자료를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로 한정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자료집에 수록된 설화를 활용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 10편의 자료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지역	제목	주요 화소	조사연도 ¹⁵⁾
1	구례군 문척면 죽연마을	강감찬 때문에 사라진 모기와 여울소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2009
2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강감찬과 번개	벼락갈 부러뜨리기	2009
3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강감찬과 벼락	벼락갈 부러뜨리기	2009
4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남악사의 모기와 강감찬	모기퇴치	2009
5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강감찬과 잔수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2009
6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강감찬과 잔수	물소리 잠재우기	2009
7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강감찬의 신통력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2009
8	구례읍 봉서리 동산마을	강감찬의 비범함 1	모기퇴치, 번개(벼락갈) 부러뜨리기	2009
9	구례읍 봉서리 동산마을	강감찬의 비범함 2	모기퇴치, 물소리 잠재우기, 번개(벼락갈) 부러뜨리기	2009
10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이무기를 죽인 강감찬	이무기 퇴치	2009

15)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 자료로 삼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자료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이트(<http://gubi.aks.ac.kr/web/default.asp>)를 통해 검색한 자료들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이트에는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이와 같이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전국적인 전승현황을 고려할 때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겨우 2편만이 조사 채록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구례지역에서 10편의 자료가 채록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강감찬 설화는 강감찬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여러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유형(類型, type)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승적인 이야기다. 따라서 이야기가 아무리 복잡하거나 단순하더라도 다른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고 전승되는 독립적인 이야기라면 이것은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화소는 이야기를 이루는 독립된 요소들이며, 한 유형에는 하나 이상의 화소가 들어 있다.¹⁶⁾ 때문에 구례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전승되는 유형의 이야기를 만드는 공통의 화소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에 등장하는 주요한 화소들과 해당 화소가 나타나는 설화의 전승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화소	세부 화소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구례
기이한 출생	여우소생, 문곡성의 현신과 낙성대	3	8	3		1	2	3	
못생긴 외모		1	2		3			1	
이물(동물) 퇴치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 퇴치	4	4	1	1		2	1	
	신랑으로 변한 여우(쥐, 귀신)퇴치	3	5	7	3	1	3	2	
	도깨비 퇴치			1					

사업과 2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증보사업의 기간 동안 조사 채록된 자료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16) 장덕순 외(1989), 『구비문학개론』, 일조각, 52쪽.

주요 화소	세부 화소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구례
	뱀 퇴치	1							
	개구리 퇴치	1	1	1	1	1	1		
	독수리 퇴치			1					
	개미 퇴치	3				1			
	모기 퇴치					4			6
	이무기 퇴치								1
	침낭쿨 방지					1			
해원(解冤)						1		3	
벼락칼 부러뜨리기		5	1	1	3	1	2	4	4
물소리 잠재우기									5
기타	산신제, 장인 골탕먹이기 등	2	3	4	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의 화소는 크게 6개의 화소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동물이나 이물을 퇴치하는 이야기는 각편(各篇)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각각의 독립된 화소로 취급해 세밀하게 분류하면 강감찬 설화의 화소는 6개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러나 퇴치의 대상이 호랑이, 여우, 개구리, 모기 등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 강감찬의 이인적 능력에 의해 퇴치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보아 ‘이물(동물) 퇴치’라는 하나의 화소로 묶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강감찬 설화의 화소 중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화소는 크게 강감찬의 ‘기이한 출생’과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와 여우를 퇴치하는 ‘이물(동물) 퇴치’ 그리고 ‘벼락칼 부러뜨리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는 출생담과 호랑이와 여우 퇴치담은 앞서 살펴본 『보한집』과 『용재총화』에 수록된 호환 퇴치담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구전 강감찬 설화 중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전승되는

유형의 이야기는 문헌기록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전승되고 있고, 문헌설화의 원형 또한 크게 변형되지 않은 채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례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는 이의 전국화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구례지역의 주요 화소는 ‘이물(동물) 퇴치와 해원’, ‘벼락칼 부러뜨리기’, ‘물소리 잠재우기’ 등 크게 세 가지 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례지역만의 독특한 화소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Ⅲ.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

설화의 유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화소다. 화소가 달라지면 이야기의 유형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해당 유형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화소에 대한 이해는 곧 설화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에, 본 장에서는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주요 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기로 한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대표적인 화소는 ‘벼락칼 부러뜨리기’ ‘이물(동물) 퇴치’ 그리고 ‘물소리 잠재우기’다. 이 중 전국 화소라고 할 수 있는 ‘벼락칼 부러뜨리기’를 제외한 ‘이물(동물) 퇴치’ 화소의 하나인 ‘모기 퇴치’와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여타의 지역과는 다르게 구례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례지역 설화의 특징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화소적 특징을 토대로 하여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를 이해하기로 한다.

1. 전승상의 특징

① 토착 증거물과의 결합을 통한 안정적인 전승기반의 확보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 중에서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에서 유일하게 구례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화소다.

아 저기 구례 호남 아니 전라남선 쪽 타고 내려오며는 구례 구역이 있어요 잉! 구례 구역에서 구례를 들어갈라고 그러며는 섬진강교를 건너죠 잉. 거그가 보며는 여울이거든. 고 밑에가. 물이 만혈(말을) 때는 시끄러워. 그리고 또 모기가 많고. 그리고 인자 강감찬 장군이 어찌 인자 거기 그 곳을 지나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거그서 유숙을 하게 된디, 모기가 많고, 또 머이나 물소리가 시끄럽고 그래서 인자 은연중에 한다는 허는 얘기가, “물소리가 잠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웬 놈의 모기가 이렇게 많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보니까, 대짜 물이, 여울에서 흘러갔던 물이 물소리가 잔잔하니 나고, 또 모기가 없고, 그래서 거그를 잔수라 해요. 잔수!

역전 근방을 우리가 *○*자 써서 기냥 찬수라 그런디. 물이 잔잔하니 내려간다 그래서 잔수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 이 지역만이라도 구례역 들어오면서 거그에 대한 강감찬 장수의 그런 이야기는 전해오고 있어.¹⁷⁾

이 설화는 구례의 동해마을에 모기가 없는 이유와 잔수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를 강감찬의 신통력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구례지역에서만 보이고 있지만, 하나의 단독 화소로 각편을 형성하기보다는 위의 이야기와 같이 대개는 ‘모기 퇴치’ 화소와 결합하여 각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설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들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소들 간의 결합이 용이하여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17) ‘강감찬과 잔수’(『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지역: 광의면 지천리 지상마을, 조사일시: 2009. 06. 19.)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화소와 관련된 마을은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과 구례읍 원방리 병방마을, 문척면 죽마리 동해마을의 세 곳으로, 이들 세 마을은 섬진강을 끼고 서로 이웃한 마을들이다. 신촌과 병방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두 마을 모두 과거부터 ‘잔수(戾水)’ 혹은 ‘찬수’마을로 불려왔으며, 병방마을은 섬진강 여울의 아래쪽에 있다 하여 따로 ‘아래잔수(下戾)’라 불려왔다. 또 동해마을은 잔수마을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마을 안에 무문정(無蚊亭)이라는 정자가 있어 모기 없는 마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⁸⁾ 따라서 이런 지리적 여건이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에서 ‘물소리 잠재우기’와 ‘모기 퇴치’ 화소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화소의 결합은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특징적 양상이 되어 주고 있다. 하지만 두 화소의 결합이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을 담보해주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전국 전승의 자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통의 화소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과 관련된 화소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해당 지역에서의 전승에는 훨씬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구례지역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에서도 발견되는 ‘모기 퇴치’ 화소보다는 구례지역의 고유한 화소인 ‘물소리 잠재우기’가 이 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켜주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잔수마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잔수마을’이 과거 구례지역의 교통의 요지였다는 역사성까지 더하고 보면 강감찬 설화가 특별히 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고 본다.

강감찬이 실제 역사 속에서 구례에 들러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고려 현종이 거란 침입시에 당시 예부시랑이었던 강감찬의 권유로 잠시 전라도 나주 땅으로 몽진했다는¹⁹⁾ 『고려사』의 기록을 참조해 볼 때

18) 구례군지편찬위원회 편(2005), 『구례군지』 하, 구례군지편찬위원회, 102쪽; 107쪽; 152쪽.

강감찬이 전라도 어느 곳 혹은 구체적으로 이곳 구례를 지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잔수마을에 설치된 잔수진(잔수津)이 과거에 섬진강 좌우를 연결하는 주요 나루 중의 하나²⁰⁾여서 잔수마을이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잔수와 강감찬과의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례와 강감찬의 관련성은 가정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연중들은 강감찬과 구례와의 인연을 마치 진실인양 이야기한다. 여기서 설화연중들이 ‘강감찬과 잔수’설화를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잔수’라는 지명 때문이다. 전설에서 증거물은 전설의 진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는 거짓 노래는 참말’이라는 말과 같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이야기 중에서 그나마 전설이 믿을만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그 증거물 덕분이다. 그리고 전설의 증거물은 해당 이야기의 역동적인 전승력을 확보시켜 준다.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에서 유일하게 구례지역에서만 보이는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로 이루어진 ‘강감찬과 잔수’라는 유형의 이야기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데에는 바로 이 증거물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잔수’라는 마을이 전설의 증거물이 되어주기에 ‘강감찬과 잔수’ 설화의 진실성을 더해주고 있고, ‘잔수’라는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구례지역에서 강감찬과 관련한 설화의 전승은 쉽사리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인물전설의 경우 역사적으로 전승지역과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한 경우에 이야기가 일시적으로는 전승이 되더라도 오래지 않아 그 전승이 단절되는 경

19) “많은 신하가 왕께 항복하기를 권했으나 유독 강감찬이 이를 반대하여, “오늘의 사변을 발생시킨 죄는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힘에 겨운 전쟁이니 마땅히 적의 예봉을 피하였다가 천천히 회복할 방도를 강구하십시오.” 하고는 왕을 남쪽으로 피난케 하였다. 왕은 한 때 나주까지 피난하였지만 항복하는 일이 없이 강화가 이루어져 현종2년 2월에 환도하였다.” (『역주 고려사』 열전 권94(1971), 동아대 고전연구소, 220쪽.)

20) 이경엽 외 공저(2007), 『구례 잔수농악』, 구례잔수농악보존회, 민속원, 13~14쪽.

우가 많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감찬과 구례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이 지역에서 유독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지역의 토착 증거물과 결부되어 안정적인 전승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② 지역기반 인물전설과의 상호교섭을 통한 효율적인 전승

전설의 증거물은 이야기가 진실하다고 믿게 하고 후대로의 전승력을 확보해준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 역시 ‘잔수’라는 증거물과 관련되어 현재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구례지역에서 ‘잔수’라는 증거물과 관련된 인물전설이 강감찬 설화 외에 또 다른 인물전설이 전승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 전에 원효대사가 있지, 원효대사 잉? 이 사람이 토지(토지면) 가면은 연곡사라고 있어. 연곡사. 고리 처음에 출가를 했어. -(중략) - 이 우리집 앞에 저그가 동해라고. 동녘 동자 바다 해자, 동해. 그 앞을 지나가는디 말하자면 문제의 전설은 거그서 시작 돼.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거그를 즈그 어메이를 그때는 마을이 살마도 안 살고 그럴 때여. 수목만 있고. 저녁에 그 즈그 어머이를 뵈시구 잘라니까 모기가 한정 없이 대들어. 아이, 그 뭐 아이 암행이 으사 되뿌려, 원효가. “이 모기 없앨 수가 없느냐?” 어, 그러니까 이 살마이 뵈 술수를 도술을 써 가지고 모기를 없앴다. 이래서 모기가 없고. 모기를 없애놓고 잠 잘라고 보니까, 아 인자 여울 소리가 시끄러서 잠을 못자. “여울소리 땀에 나 잠 못 자겠다.”구 그러니까 여 뭐 여울 소리를 죽였다. 그것이 유명해져빠렸어. 인자. 유명해져뿌렸어요. 그래기 땀에 저, 저, 저 마을 앞에 가서 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 났는디 그걸 보고 무식한 사람들이지 무문정(無蚊亭)이라 그래 났어. 모기 문- 모기 문(蚊)짜, 없을 무(無)짜. 모기가 없는 정자다 해서.²¹⁾

위 설화는 구례 연곡사에 출가한 원효대사가 자신을 찾아온 속가의 어머니를 위해 모기를 없애고 여울소리를 죽였다는 이야기다. 강감찬이 원효대사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강감찬 설화와 동일하다. 구례의 '잔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 외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타의 설화 집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표를 통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를 제외하고 현재 '잔수'와 관련하여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설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 목	주요 인물	주요 화소	출처와 조사연도 ²¹⁾
잔수	원효대사	물소리 잠재우기	내고장 전통가꾸기 ²³⁾ / 1981.
강감찬 장군과 잔수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²⁴⁾ / 1992.
강감찬 장군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 1992.
원효대사와 연곡사	원효대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 1992.
잔수의 유래	연기조사	물소리 잠재우기	구례의 설화(중) ²⁵⁾ , 2017
잔수마을 이야기	강감찬, 원효대사	물소리 잠재우기	구례의 설화(중), 2017
병방마을 유래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연기존자 어머니와 가재	연기존자	가재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모기 없는 마을	강감찬	모기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강감찬 장군 이야기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거머리를 없앤 강감찬 장군	강감찬	모기퇴치, 거머리 퇴치	구례의 설화(하), 2017

21) '원효대사와 연곡사' (조희웅·조홍욱·노영근(2010),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도서출판 박이정, 203쪽)

표에서 보듯이 구례의 잔수마을 설화와 관련된 인물로 강감찬 이외에 원효 대사와 연기존자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도에 발간된 구례군의 『내고장 전통가꾸기』에 수록된 잔수 관련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우리 고장 사성암에서 불도를 닦고 있을 때, -(중략)
-그 후 어느날 밤 잠에서 깬 어머니가 “무슨 강물 소리가 이렇게 클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구나.”하며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원효는 바로 즉시 섬진강 강변으로 달려가 두 눈을 감고 지금까지 닦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으로 외우고 나서 다시 하늘을 우러러 “어머님의 잠자리를 편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내려주소서.”하고 불공을 드렸더니 갑자기 시끄럽던 강물 소리는 한군데로 모여 하늘이 무너질 듯 그 소리는 우레와 같았다 한다. 원효대사는 도신력을 이용하여 오산 밑으로 그 물소리를 가두어 버려 이때부터 섬진강 물은 잠자듯 고요해졌고 그 후부터 이곳을 잔수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 근처의 마을도 잔수부락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곳 주민들은 원효의 정신을 본받아 지금도 효자 효녀가 많다.²⁶⁾

두 편의 설화에서 공히 물소리와 모기를 없앤 원효대사가 활동하는 무대로 구례의 연곡사와 화엄사의 사성암이 설정되어 있다. 구례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인 화엄사를 비롯하여 연곡사와 천은사, 그리고 다수의 암자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화 속에서 구례지역의 사찰이 배경이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연기존자는 화엄사 창건주로 알려져 있으

22) 출처문헌과 조사연도를 동시에 표기한 이유는 자료집에 따라 출판연도와 조사연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 논문의 주요 참고자료집인 『구례의 설화』의 경우 출판일은 2010년이지만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 수집일은 1992년 4월 25일부터 28일로 차이가 난다.

23) 내고장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 편(1981), 『내고장 전통가꾸기』, 구례군.

24) 조희웅·조홍욱·노영근(2010), 같은 책, 도서출판 박이정.

25) 구례문화원(2017), 『구례의 설화』 중, 구례문화원.

26) 내고장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 편(1981), 「잔수(潺水)」, 앞의 책, 165쪽.)

며, 원효대사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에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고 갖가지 기행을 일삼다가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은 인물이다. 따라서 화엄사 창건주 연기존자와 갖은 기행으로 설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원효대사가 구례지역 설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잔수 설화와 관련된 인물이 강감찬과 함께 원효대사와 연기존자로까지 넓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잔수 설화와 연관된 인물이 애초에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본래 구비전승을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이 설화이고 보면 자료의 조사연도를 따져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잔수의 인물로 원효대사와 연기존자 그리고 강감찬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잔수설화’를 후대로까지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설화의 주인공이 지역과 관련이 깊은 인물일 경우 해당 설화의 전승력은 매우 강하며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례와 인연이 깊은 원효대사나 연기존자와 잔수가 결합된 잔수설화의 전승력 역시 강할 것이다. 이에 비해 역사적 관련성 여부를 알 수 없는 강감찬과 잔수 설화는 그것이 앞서 살펴본 ‘잔수마을’이라는 증거물과 결부되어 이야기되고 있을지라도 원효대사와 잔수설화에 비해 그 전승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감찬과 잔수 설화는 지금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병방마을 앞에는 말을 내리는 하마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 강감찬 장군이 인자 이쪽 구례에 왔다가 어 거기서 말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유숙을 했던 곳인데, 당시 계절이 여름인지라 아 날이 더워서 잠자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강물이 많이 불어가꼬 물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이 그 강을 향해서 물소리가 왜 이리 시끄럽냐라고 크게 호령을 한 뒤로는 그냥 강물소리가 잔잔해져 버렸대. (중략). 그래서 잔

수 또는 찬수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렀대.

여기 찬수마을은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통일신라 때 그 때 원효대사라고 유명한 그 스님 있잖아. 그 스님이 우리고장 저 오산에 있는 사성암 있지 그 사성암에서 불도를 닦고 있는데, 그 해 인자 어머니가 원효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팠대...(중략)... 잠자다가 깬 원효대사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기냥 강물소리 때문에 통내가 요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 어떤 도력으로 막 불공을 오래 공부했잖아. 그래서 그 도력으로 그 시끄러운 물소리를 끌어다가 그 사성암 옆에 그 절벽 있잖아. 그 절벽에다가 가둬버렸대~~ 물소리를. 그랬더니 인자 그 뒤로 삼진강물이 아주 잠자듯이 이렇게 고요해졌고, 인자 조용히 물이 흐른다고 해서 그 후부터 인자 찬수라고 이 마을을 찬수라고 불렀대.²⁷⁾

위 설화에서 보듯이 한 명의 화자가 ‘강감찬과 찬수’ 설화와 ‘원효대사와 찬수’ 설화를 하나의 이야기에서 동시에 구연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설화향유자들의 의식 속에는 ‘찬수’ 이야기에 원효대사와 강감찬이 모두 동일한 무게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강감찬과 찬수’ 그리고 ‘원효대사와 찬수’라는 두 유형의 설화가 서로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서의 ‘찬수’라는 토착적이고 고유한 증거물과의 결합과 함께 지역을 연고로 하는 인물설화와 서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며 전승되는 것 역시 설화를 안정적으로 전승케 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현상 역시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웅적 인물의 출현에 대한 소망과 현실 극복의지

강감찬 설화는 문헌기록을 비롯하여 구비설화 전반에 걸쳐 그의 이인적 면

27) 구례문화원(2017), 「찬수마을 이야기」, 앞의 책, 61-63쪽.

모를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강감찬의 이인됨은 주로 신통력을 통해서인데, 신통력은 동물이나 칠퉇쿨과 같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을 말로써 또는 부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퇴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강감찬이 퇴치하는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동물 혹은 자연물이라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상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를 퇴치하는 강감찬의 일화가 수록된 『용재총화』의 기록 역시 당시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극심한 피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징치를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 존경의 대상이며 지배층이었던 중이 호랑이로 둔갑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언술은 결국 타락해가는 불교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강감찬에 의해 호랑이가 쫓겨났다는 것은 귀주대첩을 통해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해낸 강감찬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타락한 불교계를 징치하고 그로 인해 곤궁에 처한 백성들의 삶을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당대 민중의 소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구례지역의 강감찬 설화에서 주로 퇴치되는 대상인 모기 역시 단순히 동물로서의 모기가 아니라 그 지역민들을 위해 퇴치되어야 마땅한 존재로 상징화된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강감찬이라고 현 양반이, 싹이 있었는데. 그이가 구례를 와갔고. 저 동해부락이라고 있어요, 동해부락. 역전에서, 구례 역전에서 좌로 쪽 내려가면. 저 강 건너 동해부락이라고 있는데. 거그서 자게 됐는데. 날이 저물어서 거그서 자게 됐는데. 아, 여름인데, 어쨌든가, 드러눕잔디, 어뜨게 모그가, 모기가 달라들고, 물어 뜯어 싸서 못 살, 못 자것거든. 근게, 그이가. 설소리를 허는 것이. “아, 이놈들이 사람 많은디 가서 좀 뜯, 뜯어 먹어라. 여, 동네도, 부락도 몇 호 되도 안 현디. 쪼간현 부락에 사람을 그렇게 못 전디게 뜯어 묵냐.” 아, 그런게로. 딱 모그가 그쳐블드래. 통 안 달라들어. 말 한마디 현디.²⁸⁾

강감찬이 구례의 동해마을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는 동안 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강감찬이 말로써 모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렸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구례지역에는 강감찬이 모기를 쫓아낸 이야기가 타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이 전승된다. 강감찬이 모기를 없앤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보이는 6편의 자료 외에도 『구례의 설화』에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기라는 동물을 없앤 것은 『용재총화』에 보이는 호랑이를 없앤 것과 의미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둘 다 당시 백성들을 괴롭히던 동물이고 징치와 퇴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호랑이가 나타나서 퇴치되는 지역을 보면 한양 즉 당대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인 반면에 모기는 구례라는 향촌에서 더군다나 동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퇴치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강감찬의 호랑이 퇴치가 수록된 『용재총화』와 같은 문헌기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자층이 많은 중앙과 지역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호랑이와 모기, 개구리 등의 동물들이 주는 피해 정도를 생각한다면 구례지역에서는 왜 호랑이가 아닌 모기로 표현되었는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호랑이는 중앙권력으로 상징되는 지배층에 의한 피해를, 개구리나 모기는 부패한 지방관원 내지는 토착세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존재로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모기는 호랑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동물은 아니다. 다만 날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어 피해를 입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지방민들을 괴롭히는 못된 지방관이나 토착세력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기를 없애는 강감찬의 모습을 통해 타락한 목민관과 토착세력에 대한 응징이나 지역민들의 사소한

28) 「강감찬의 비범함」(조사지역: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동산마을, 조사일시: 2009. 7. 3, 제보자: 정원창(남, 89)),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220_SJH_JWC_0004&dbkind=2&highlight=강감찬의 비범함&navi=검색;강감찬의 비범함\(제목\)](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220_SJH_JWC_0004&dbkind=2&highlight=강감찬의 비범함&navi=검색;강감찬의 비범함(제목)))

민원까지도 해결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목민관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백성들은 중앙으로부터의 절대적이고 서슬퍼런 권력에 의한 횡포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신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괴롭히는 토착적 폐해를 없애주는 것 또한 절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록에 보이는 강감찬의 행적 또한 평생을 고려와 백성들을 위해 살아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에 임금은 물론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이르기까지 강감찬을 존경했던 것이고, 이러한 강감찬의 인간됨은 힘들고 억울한 생활을 이어가던 민중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아와 같은 인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강감찬 설화에서 모기를 퇴치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로 강감찬에 의해 시끄러운 물소리가 조용해졌다는 것이다.

강감찬 장군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강감찬, 강감찬 장군 허고 거, 소정방 장군 허고는. 저그, 저, 역전에 나가르는 구례읍이를 나가르는 신월마을이 있어요. 신월 마을이 있네. 그 가르는, 그렇게 인자, 그 강물이, 그렇게 막, 그, 사납게 흘렀는데. 그, 그, 강감찬 장군이 거시기 와갖고는 잔잔했다 해서 잔수라고 그래, 잔수. (조사자 : 그래서 잔수다.) 예. 그렇게 해서 잔수. 거, 잔수라고도 허거든요. 잔수마을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다른 마을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용방은 그렇게 피해를 안 봤어요.²⁹⁾

설화 속에서 사람들은 강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기와 함께 시끄러운 물소리가 의미

29) 「강감찬과 잔수」(조사지역: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하용마을, 조사일시: 2009. 2. 10, 제보자: 김형렬(남, 49)),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210_SJH_KHL_0005&dbkind=2&highlight=강감찬과 잔수&navi=검색; 강감찬과 잔수(제목))

하는 것은 무엇일까. 퇴치 대상으로서의 모기를 지방관료 또는 토착세력에 의한 횡포로 볼 때, 시끄러운 물소리 역시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그 무엇일 것이기에 강감찬에 의해 퇴치된다.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에서 퇴치되는 대상으로 모기와 함께 개구리가 자주 등장한다. 개구리는 신화에서는 왕권을 상징하지만 설화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개구리는 수륙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존재로 간자(諫子)이며 물속에서 숨어 지내는 첩자와 같은 존재로서 흉물스런 모습을 띠어 병란을 상징하기도 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 영묘사(靈廟寺) 옥문지(玉門池) 개구리의 경우 성난 모습을 보고 적군을 퇴치한 예도 있다. 강감찬 설화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는 부정적 의미로 상징화하여 퇴치되는데, 울음소리가 단순히 사람들의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퇴치대상이 된 것은 다시 말해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응징일 수 있다.³⁰⁾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물소리 역시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목민관의 성정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여론 역시 모기로 상징되는 토착세력들의 횡포다. 잘못된 여론에 의한 지방관리들의 어리석은 판단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폐해다. 구례지역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역사를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강감찬 설화를 통해 피지배층들은 지방 토착세력의 횡포와 전횡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현명한 목민관의 출현에 대한 염원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구례지역 설화에서 강감찬이 퇴치한 것은 모기와 시끄러운 물소리만이 아니다. 설화 속 강감찬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락칼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는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

강감찬이란 사람이 선생이 있었는데. 그 강감찬이란 사람이 하늘님도 자기 멋대

30) 장정룡(2003), 앞의 논문, 162쪽.

로 히고 모든 걸 다 현디. 어 그때 세상에는 어디 가다가 질 가상에다(길 가에다) 소변만 봐도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때리고 그래 부렸대. 근디 강감찬이란 사람이 히다 그걸 본께 너무다가 하늘에서 너무 심히게 해서, 한번은 강감찬이가 어졌는 고는 하늘에서 벼락 내려온 거를 벼락칼을 뺏아 부렸어. 벼락칼을 뺏아 부러갖고 착 분질러갔고, 칼은 자기가 갖고 칼자루 속에 든 놈만 쫓어. 칼자루 속에 든 놈을 쫓게 그놈을 갖고 올라가갔고, 다시 칼을 맨들어 갖고, 지금 사용을 험선(하면서) 어찌다가 어느 경우에 벼락을 때리지. 그런 벼락은 별로 없다 그거여,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³¹⁾

이야기 속에서 벼락칼은 본래 사람들이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 하늘에서 징벌의 의미로 내리쳤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징치가 과해져서 사람들이 길가에 소변만 봐도 벼락이 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자, 보다 못한 강감찬이 벼락칼을 징치한다. 여기서 벼락칼이 처음에는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는 사소한 실수에도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력적 존재로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면, 벼락칼 역시 앞서의 모기나 시끄러운 물소리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무엇일 것이며 특히 목숨을 앗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절대권력에 의한 피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는 악행을 일삼는 벼락칼과 같은 절대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강감찬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강감찬은 벼락칼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부러뜨린 후 절반만 하늘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사람은 언제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치와

31) 「강감찬과 번개」(조사지역: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냉천마을, 조사일시: 2009. 01. 29, 제보자: 김광수(남, 80)),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129_SJH_KKS_0001&dbkind=2&highlight=강감찬과_번개&navi=검색;강감찬과_번개\(제목\)](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129_SJH_KKS_0001&dbkind=2&highlight=강감찬과_번개&navi=검색;강감찬과_번개(제목)))

교화는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죄에 대한 응당의 처벌은 받되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화 향유층의 법과 권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투영인 것이다.

구례지역 설화 속에서 강감찬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퇴치하고, 평안한 잠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물소리를 잠재우며, 목숨을 위협하는 벼락칼을 부러뜨리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이야기를 통해 강감찬과 같은 애민사상을 지닌 지방관의 출현을 소망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고대하였던 민중의 소박한 의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허구의 세계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이야기와 같은 상상적 세계 속에서나 겨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출현을 소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영웅적 인물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영웅적 인물담은 현실이 암담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전승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민중은 잠시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전설의 주인공은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결국에는 패배하고 만다. 하지만 강감찬의 경우 역사적 인물로서 전설의 주인공이지만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낸다. 전설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서 타당하기 때문에 수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타당하기 때문에 수긍될 수 있다.³²⁾ 전설적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곧 전설의 전승의미다. 구례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에는 결국 지배층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적 인물의 출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설화 전승집단의 의지는 해당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조동일(1979), 앞의 책, 96쪽.

IV. 맺음말

현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강감찬 설화 중 전남의 구례지역에서 조사 수집된 자료는 모두 10편이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불과 2편만이 조사된 것과 비교할 때 특이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으로는 먼저, 현재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에서는 강감찬의 일화가 수록된 문헌기록과 전국 전승의 구비설화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강감찬의 출생담과 호랑이와 같은 이물퇴치 등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대신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물소리 잠재우기’ 등과 같은 특정 화소에 의한 이야기의 전승이 활발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포설화인 강감찬 설화가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될 때 해당 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전승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주요 화소인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지역의 토착마을인 ‘잔수마을’과 결합되어 구례라는 특정 지역에서 ‘강감찬과 잔수’ 설화라는 유형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설화와 토착적 증거물과의 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설화의 전승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역을 연고로 한 인물설화와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구례지역에는 ‘강감찬과 잔수’ 설화와 유사한 ‘원효대사와 잔수’ 설화가 함께 전승되고 있다. 인물전설의 경우 해당 지역과의 역사적 관련성이 있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의 전승은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역사적으로 구례

지역의 사성암과 관련이 깊은 원효대사 설화의 전승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감찬은 지역의 '잔수' 마을이라는 증거물과 결부되어 전승되는 외에는 원효대사와는 달리 구례지역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 따라서 '잔수' 마을이 사라지거나 마을명이 바뀔 경우 그 전승력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기에, 원효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례지역에서의 강감찬 설화의 전승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원효대사 설화와의 동시 전승은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전승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례지역의 강감찬 설화가 지닌 전승의미는 구례지역에서의 주요 화소인 '모기 퇴치'와 '물소리 잠재우기' 그리고 '벼락갈 부러뜨리기'라는 세 화소의 의미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모기와 시끄러운 물소리, 벼락같은 모두 당대 피지배층에게 횡포를 가하는 지방토착세력 내지는 지방관리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강감찬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의 출현을 소망하는 전승집단의 의지가 강감찬 설화를 지금까지 전승시켜온 의미라고 보았다.

역동적인 전승력을 가진 전설은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재창조된다.³³⁾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광포설화를 지역설화로 재창조하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설화 전승집단의 가치관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강감찬과 잔수'라는 나름의 고유한 유형의 이야기를 창출하여 역동적인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3) 표인주(2000), 『남도설화문화연구』, 민속원, 83쪽.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1971), 『역주 고려사』 열전 권94, 태학사.
- 김중서 외(1452), 『국역 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 편(1976),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성현(1525),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편(1985),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최자·유재영 역(1981), 『보한집』, 원광대출판부.
- 구례군지편찬위원회 편(2005), 『구례군지』 상·중·하, 구례군지편찬위원회.
- 전라남도 구례군(1981), 『내고장 전통가꾸기』, 구례군.
- 조희웅·조홍욱·노영근(2010),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도서출판 박이정.
- 『한국구비문학대계』(1980~2017),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gubi.aks.ac.kr/web/default.asp>)

2. 단행본 및 학술논문

- 강진옥(1990),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프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대 한국문학연구소, 173~203쪽.
- 권은정(2001), 「강감찬 전설의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02), 「강감찬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2015), 「강원 지역 역사인물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순남(1997), 「강원도 지역의 인물전설 연구」, 전북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병국(1997), 「명장과 이인으로 추앙받는 삶 : 강감찬 설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인문사회과학논문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3~47쪽.
- 이경엽 외(2007), 『구례 잔수농악』, 구례잔수농악보존회, 민속원.
- 이경우(1983), 「인물설화의 의미와 변이 연구」, 『서원대학 논문집』 12, 서원대학교,

9~24쪽.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출생담의 양상과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0, 실천민속학회, 163~192쪽.

(UCI : <http://uci.or.kr/G704-002060.2012.20..001>)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성장담 연구」, 『한국언어문화』 4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29~255쪽.(UCI : <http://uci.or.kr/G704-001057.2012..48.010>)

이동철(2013), 「강감찬 이물신랑 퇴치설화의 특징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5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359~379쪽.

(UCI : <http://uci.or.kr/G704-001057.2013..52.008>)

장덕순 외(1989), 『구비문학개론』, 일조각.

장장식(1990), 「강감찬 전설 연구」, 『석천정우상박사 화갑논문집』, 교학사, 580~582쪽.

장정룡(2003), 「강원지역 강감찬 설화 고찰」, 『강원민속학』 권17, 강원민속학회, 145~164쪽.

조동일(197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최 웅(2009), 「강감찬 설화의 의미 분석」, 『인문과학연구』 권2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9~187쪽.

(UCI : <http://uci.or.kr/G704-SER000001626.2009..23.007>)

표인주(2000), 『남도설화문학연구』, 민속원.

| 국문초록 |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특징과 전승의미

본고는 전남의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수록 자료를 기준으로, 구례지역을 제외한 전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자료가 불과 2편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특징적 현상이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즉 전국 전승의 설화에서 주로 보이는 ‘호랑이와 여우 등의 이물퇴치’ 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 ‘물소리 잠재우기’와 같은 특정 화소에 의한 설화의 전승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강감찬 설화가 지역의 토착 증거물인 ‘잔수마을’과 결합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강감찬 설화는 구례지역에서 토착의 증거물과 결합되어 ‘강감찬과 잔수’라는 새로운 유형의 설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전승력을 확보하여 전승되고 있다.

다음으로, 구례지역에는 ‘강감찬과 잔수’ 설화와 유사한 내용의 ‘원효대사와 잔수’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 두 설화는 구례의 잔수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동시에 구전되면서 서로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물전설은 인연이 있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될 때 더욱 활발히 전승될 수 있다. 따라서 구례지역과 관련이 깊은 원효대사의 설화에 상대적으로 역사적 관련성이 약한 강감찬 설화가 함께 전승되는 현상은 해당 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가 지닌 전승의미는 이 지역 중심 화소인 ‘모기 퇴치’와 ‘물소리 잠재우기’ 그리고 ‘벼락갈 부러뜨리기’라는 세 화소의 의미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모기와 시끄러운 물소리, 벼락갈은 모두 당대 피지배층에게 횡포를 가하는 지방토착세력이나 지방관리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설화 속에서 이들을 퇴치하는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적 고난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의 출현을 소망하는 당대 전승집단의 의식이 설화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전국 전승의 광포설화를 지역의 고유한 설화로 재창조하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감찬 설화는 설화 전승집단의 가치관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강감찬과 잔수’라는 나름의 고유한 유형의 이야기를 창출하여 역동적인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제어 : 강감찬 설화, 구례, 증거물, 잔수마을, 모기 퇴치, 물소리 잠재우기, 벼락갈 부러뜨리기

빈곤의 경험과 공간의 장소화

— 광주(光州) 학동(鶴洞) 사람들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

Experience of Poverty and Place of Space

한 정 훈*

Han, Jeong-Hoon

목 차

-
- | | |
|-------------------------------|-------------------------|
| I. 서론 | Ⅲ. 도시 이주의 실패와 빈곤 공간의 정착 |
| Ⅱ. 도시의 부유(浮游)한 주체들과
감시된 빈곤 | Ⅳ. 되돌아온 빈곤의 공간 |
| | Ⅴ. 결론 |
-

|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 of poverty through the discourse of oral life stories of the poor. Hakdo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Joseon was a collective residence area of the poor with the “Hakgangjeong Rehabilitation District” during the Imperial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After the liberation, Hakdong was expanded due to the continued inflow of returned war refugees from overseas countries, and migrants from rural areas. Poverty and the poor have the characteristics of image based on other’s recognition. So the space of poverty is given meaning by the group of hegemonic of one age. The poor are also read by distorted and refracted outward gaze,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subje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esidents of the poverty space respond to the other’s views, and how they construct placeness at various levels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The placeness shown by the residents of Hakdong shows the possibility of describing the history of the new space.

Key words : Poverty, Oral Life Story, Space, Place, Gwangju, Hakdong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I. 서론

신라의 3대 왕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재위 24-57)은 굽주림과 추위에 죽어가는 한 노파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백성의 빈곤한 삶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왕은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신라로 온다.¹⁾ 이 기사는 한국의 고대 국가가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선 빈곤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사는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지목하고 있다. 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왕은 백성들의 빈곤이 자신의 잘못에 있다고 했다. 당연히 그 해결에 대한 책임도 왕과 국가에게 있다. 빈곤을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는 빈곤을 해결함으로써 부강해졌고, 왕은 통치 윤리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에 불리었던 도술가(兜率歌)가 이를 대변한다. 『삼국사기』의 짧은 기록이 보여주는 고대 국가의 빈곤에 대한 대략적 이해는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빈곤은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 결핍에 처해지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빈민이라 한다. 빈곤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다.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충족과 결핍의 인식 속에서 빚어낸 것이 빈곤이었다. 그러나 빈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서양의 중세 사회에서 빈곤은 연민과 자선의 대상이었다. 빈민 구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선을 행하는 자의 구원을 보증하는 종교 행위였다. 근대의 빈곤은 노동윤리와 연결되어 인식됐다. 노동은 인간 행복의 필연 조건으로서 선(善)을,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악(惡)을 표상했다.²⁾ 이에 빈곤은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 유리이사금 5년.

에게 주어진 일종의 벌이었고, 빈민은 사회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악한 존재였다. 빈곤은 인류의 시간만큼 다양한 의미와 인식을 내재하고 있다.

오산스키(M. Orshanski)는 빈곤과 빈민 규정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가치판단이 작용하는 가능성의 행위라 했다.³⁾ 빈곤은 관념적 개념 정의만 가능할 뿐 구체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빈곤은 이미지의 특성을 지닌다. 이미지는 참된 것/거짓된 것으로 구별될 수 없다. 그것은 사물이 새로운 인식 가능성의 현재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미지는 우리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형되면서 존재한다.⁴⁾ 빈곤은 이러한 이미지로서 인류의 시간과 함께 잔존했다. 이미지로서 빈곤은 어떠한 가치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없다. 하지만 빈곤은 시간과 공간에 격절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 시대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헤게모니를 지닌 집단은 사회의 결핍소를 수렴하여 빈곤을 구성했고, 구성된 빈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치로 독해되었다. 빈곤은 이미지로서 인간의 삶 속에 있었고, 타자적 시선으로 의미화되어서 역사 속에 자리 잡았다.

빈곤은 중심과 주변, 안과 밖, 유와 무라는 인식 지형에서 항상 후자에 위치된다. 빈곤은 중심(中心), 안(內), 유(有)라는 인식 지형의 내부를 전제하지 않고서 존재할 수 없다. 서양의 중세 시대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성(城)과 교회 주변에 빈곤의 공간은 형성되었다. 가진 자들이 행하는 부조에 기대어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빈민이었다. 동양의 전근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근대 사회는 농촌과 도시,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공간적 경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도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 빈민촌, 판자촌, 달동네 등의 조어(造語)들이 근대 사회의 빈곤 공간을 표지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옮김(2010), 『새로운 빈곤』, 천지인, 13~14쪽.

3) 문진영(2015),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30쪽.

4) 김홍중(2016),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60~62쪽.

빈곤은 공간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면서 현실에서 구체화된다.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상호배타적 특성을 지니면서 제각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된다.⁵⁾ 특히 공간 구획은 근현대에 더욱 강화되었다. 근현대의 도시는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다. 도시 사람들의 관계맺음은 일시성과 익명성, 유동성을 토대로 한다. 한 개인이 인간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를 초과했다. 이질성과 익명성의 도시 공간에서 나와 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경계의 표지로 활용되는 것이 공간의 구획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느 곳에 거주하는가? 그가 어느 곳에서 일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한 개인에 대한 개괄적 이해의 단서를 찾게 되었다. 구별의 표지로서 공간의 기능은 근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빈곤은 일의적 개념으로 독해될 수 없는, 한 시대의 결절을 내재한 사회적 구성물이다. 더불어 빈곤의 공간은 그 시대가 지닌 다양한 모순이 만들어낸 ‘생산된 공간’이다. 빈곤과 빈곤의 공간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대상으로서 빈민을 설정할 뿐, 빈곤의 인식 주체로서 빈민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⁶⁾ 즉 빈곤을 어떻게 경험하고, 빈곤을 어떻게 상속했으며, 빈곤 공간의 주체가 어떤 계기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빈민의 경험 서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빈곤 공간을 전유한 사람들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빈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과거의 체험이 현재의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빈곤의 공간이 어떤 장소성⁷⁾을 취득하는지, 빈곤 공간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 다층적 장소성을

5) 박윤환(2013), 「빈곤층 거주지의 공간적 집중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한국 도시행정학회, 490쪽.

6) 노병일(1994), 「빈곤의 개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사회과학논문집』 13(2),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9쪽.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⁸⁾

II. 도시의 부유(浮游)한 주체들과 감시된 빈곤

학동(鶴洞)은 갱생지구, 전재민촌 등으로 불린 광주(光州)의 대표적인 빈민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농촌을 떠난 많은 조선인들은 광주에 정착하면서 빈민이 되었다. 일제는 도시정화 등을 목적으로 이들을 도시 주변부로 밀어냈다. 일제와 빈민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오랜 합의 끝에 ‘학강정 갱생지구’가 만들어졌다. 일본인들은 학강정 갱생지구가 광주부(光州府)의 수치라면서 설치를 반대했다.⁹⁾ 그러나 일제는 도시 공간의 빈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그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7) 공간(Space)과 장소(Place)는 다른 층위의 의미를 지닌다. 공간은 비균질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장소는 체험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공간이 장소로 전환되는 주요한 매개는 인간의 경험이다.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 공간을 장소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장소의 개념은 차이성을 전제한다. 하이데거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 시킨다”고 주장했다. 장소성(Placeness)은 장소가 인지되는 특성들이다. 그래서 장소성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담론과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고안물이다. 장소성은 장소가 지닌 인간의 경험과 장소의 역사를 다층적으로 독해할 수 있게 우리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공간, 장소, 장소성의 개념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에드워드 켈프, 심승희 옮김(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5쪽; 문재원(2010), 「문화전략으로서 장소와 장소성」,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49쪽)

8) 일제는 1936년 도시 빈민의 집단 거주 지역인 ‘학강정(鶴岡町) 갱생지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光州)에 설치한다. 그리고 ‘학강정 갱생지구’는 해방 후에 ‘학동(鶴洞)’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서 광주의 대표적인 빈민 공간이 되었다. 본 연구는 학동에 거주하는 남성화자 4명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화자들의 기본 정보는 인용된 텍스트의 주석에 기재하였다. 구술생애담 화자 외에 1명의 남성 제보자의 경험담을 분석 과정에서 인용했다. 이에 구술생애담 화자는 ‘화자로 표기하였고, 경험담 화자는 ‘제보자’로 구별하여 표기했다.

9) 「세민구역 문제로 광주부회 대파란」,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3일.

학강정 갱생지구는 해방 후에 학동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해방과 전쟁의 혼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동의 빈민은 계속 늘어만 갔다. 하지만 빈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1950~60년대 빈곤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빈민들의 생활은 더욱 참혹했다. 1960년대 초반 광주 시내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다 학동 근교로 이주한 한 화자는 학동 사람들이 작은 움막에서 생활했고, 식사 시간에는 골목길로 나와서 죽을 끓여 먹는 모습이 일상이었다고 회고했다.¹⁰⁾ 빈민들은 가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광주 시내에서 쫓겨 갔던 시장이 금동시장여. 그른 거기는 늦게까지 장사를 한다, 그 말이여. 그럼 탄 것 둘라 먹을 것이 없어, 쌀깨에다가 쌀가게에 가서, 쌀 한주먹 얼릉 집어갖고 내뽀 것이 제일로 쉬웠어. 제일로 쉬워. 그러면 인자 두서 냇이 다니다가, 인자 배고픈게 할 수 없제. 쌀 조금씩 기냥 집어갖고 와서 맨살로 먹고. 그러면 끄나가 넘어가.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큰 놈이 있어. 지금도 있더만, 그 하수도가. 그때는 대학병원이 운영이 그때게 잘 안 되고 할 때라, 물이 적게 나왔어. 궁게 한쪽은 바싹 몰라갖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거처를 또 자고 떠돌이 생활을 했제.¹¹⁾

위의 화자는 1950년대 학동으로 이주한다. 아버지가 장사를 하면서 나름 여유있게 가정을 이끌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에 행방불명이 된다. 아버지는 가정 경제를 올곧이 책임지는 존재였다. 이런 아버지의 행방불명은 가

10) “그 남루한 사람들이 모도 그냥, 거기서 불 같은 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살드라고. 여름이면 보면은, 당최 불 수가 없어. 너무도 집도 그렇게 적고. 기냥 움막 같은 속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으시면서, 길거리 거기서 모도 밥을 먹고. 앉아서 그렇게 죽을 끓여 묵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더니.”(화자 : 강○○(남, 1940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5일)

11) 화자 : 홍○○(남, 1940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9일.

족의 삶을 바꿔놓았다. 어머니는 궁여지책으로 친정이 있는 학동으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거리로 나아가서 장사를 시작한다. 화자는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은 많은 남성들을 전장과 그 주변 공간으로 끌고 갔다. 남성들은 전쟁의 자장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겪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적 결과들은 살아남은 가족들이 떠안아야 했다. 여성들은 경제력을 상실한 남성들의 자리를 대신한다. 1958년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있는 여성은 9.6%만이 경제활동을 했고, 전쟁 기간 동안 남편을 잃은 미망인은 조사 대상자 80명 가운데 88.8%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떡장사·야채장사·옷장사·화장품장사 등 영세한 상업에 종사했다.¹²⁾ 화자의 어머니도 당장 가족 생계를 위해서 거리로 나가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는 여성이 장사를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이 부재한 가정은 바로 빈곤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화자의 누이는 운이 좋게 광주에서 가장 큰 산업시설인 전남방직에 취직했다. 전남방직은 일제강점기 종연방직(鐘淵紡織)에 의해서 설립된 공장였고, 한국전쟁 중에 크게 파괴되었다. 하지만 방직공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장 먼저 복구되었다. 방직업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도시 사람들을 노동자로 수용할 수 있었다. 당시 방직공장은 안정적으로 현금과 물품을 임금으로 지급했기에, 농촌과 도시의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다. 그런데 방직공장은 유희인력이 많은 상황에서 미혼의 어린 여성들만 선별하여 취직시켰다. 이렇게 선별된 여성들은 당시로써 선택받은 노동자들이었다. 화자의 누이는 방직공장에서 받은 임금으로 가족 생계를 보조했다. 반면 나이 어린 화자와 남동생은 경제활동을 할 수

12) 김숙자(1958), 『서울시 부녀직업조사』, 국련한국경제조정관실, 4-8쪽.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린 화자에게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남성들은 산업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많은 남성들이 잉여 인간이 되어서 도시 공간을 배회했고, 심지어 여성들이 벌어진 돈에 기대어 생활해야 했다. 여성의 활동과 남성의 위축은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한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¹³⁾ 빈민 남성들의 사정은 더했다. 낮은 교육 수준과 변변한 기술 하나 없는 빈민 남성들은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도시를 떠돌면서 일용 잡부 생활을 했다. 학동의 많은 남성들은 이른 새벽에 무등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남성들이 많았다. 화자는 외조부를 따라서 무등산에서 나무를 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나무하는 것이 힘들어 가출한다. 화자는 또래의 친구들과 광주를 배회하면서 도둑질로 끼니를 해결했고, 병원의 하수구에서 잠을 잤다. 길거리가 비좁고 냄새나는 학동의 집보다 오히려 편했다. 어린 동생은 시골의 조부(祖父)에게 보내졌다. 하지만 동생은 곧바로 병에 걸려 죽고 만다. 가족들은 어린 동생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화자의 유년시절은 어머니의 장사, 누이의 공장 생활, 길거리의 배회, 동생의 죽음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빈곤'의 기호로 수렴된다.

그 전에 바로 와서 본게 요령고 없었어, 없었고. 저 건너편 집에 여기 와서 요만한 간판이 쌍과부집이라고 써졌더라고. 뭘 이름이 하필이면 쌍과부냐?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 옛날에. 없었던 것이 이렇고 생겼제. 원래 없었어. 이러저리 생긴 것이 한 15년, 한 20년 가차이. (원래 쌍과부집이라고 딱 생겨가지고?) 하나, 그때 본게 쌍과부집이라고 찍만하니 뭐 가정집 같은 데가 붙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그러면서 차츰 차츰 새끼를 쳐갖고 그렇게 생기더니만은 이렇게 많이 생겨 부텨어. 그래갖고 그 집을 내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안 와부러. 안 와부러.¹⁴⁾

13) 마해송(1956), 「한국 여성의 비극」, 『여원』 7월호, 여원문화사, 154쪽.

14) 화자 : 강○○(남, 1940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5일.

광주는 1965년부터 74년까지 연평균 6.1%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970년대 후반에도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유지했다.¹⁵⁾ 하지만 광주는 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주거 공간 및 산업 시설이 미비했다. 대부분의 농촌 이주민들은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한다. 빈민들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거주지가 싼 광주 주변부 공간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다. 학동과 같은 공간은 빈민들의 유입으로 확장된다. 또한 이른 시기 도시로 이주했던 사람 중에 정착에 실패한 사람들도 주변부 공간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면서 빈곤의 공간에 걸착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흥업소였다.

위의 화자는 광주 도심과 가까우면서 조용한 주거 공간을 찾다가 마침 학동 주변에 좋은 집이 있어서 이주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술집이 집 주변으로 늘어나는 것을 목격한다. 처음에는 한 집 정도였던 술집이 시간이 흐르면서 군집을 형성했다. 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화자의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후 많은 여성들이 가족 생계를 위해서 거리로 나아가 장사를 했다. 이 여성 중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예도 있지만, 실패한 여성들도 많았다. 그리고 실패한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일이 술장사와 매춘이었다. 화자가 언급한 “쌍과부집”의 간판명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술과 매춘이 행해지는 공간은 ‘경계의 공간’이다. 매춘은 사적 영역에서 행해져야 하는 성행위가 공적 영역에서 자본을 매개로 거래되는 것이다. 매춘 여성들은 사회에서 비윤리적 인간상을 표상하며, 공적 공간에는 나타나면 안 되었다. 그래서 매춘 여성들은 해가 진 어두운 밤 시간에 활동해야 했고, 사람들이 정주하는 공간이 아닌 유동하는 공간에 있어야 했다. 매춘 공간은 그 어떤 곳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애매성’을 내재한 경계의 지대가 되었다.¹⁶⁾ 광주

15) 광주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1995), 『광주시사』 3권, 광주광역시, 864-866쪽.

16) 이현재(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33, 한국사회

의 대표적인 유흥가는 4곳이다.¹⁷⁾ 이들 공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미군이 주둔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도 수용되지 못한 여성들은 더 외진 공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이 바로 학동의 유흥가였다.

여성이 유흥업으로 빠지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특히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 정착에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매춘 여성의 공급지로 농촌이 지목되기도 했다.¹⁸⁾ 매춘 여성은 뒷골목의 깡패와 동일한 존재로 취급되었고, 나아가 사회악으로 지목되어 도시 공간에서 사라져야 하는 사람들로 지시되었다. 매춘과 유흥가 형성은 빈곤 공간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도시 공간에서 주변화된 여성들이 정상적인 노동 현장과 주거 공간에 정착하지 못했고, 이들이 결국 살기 위해서 떠밀려 간 곳이 빈곤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결국 교환재로 선택한 것이 육체였다. 빈곤의 공간은 주변화된 다양한 주체들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빈곤의 공간은 다양한 경로 생산된 사회적 존재들로 인해서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 아닌 다중적 문제를 내재한 사회적 공간이 되었다. 빈곤 공간의 확대는 중심부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독해되었다. 중심 공간의 사람들은 다양한 장치를 동원해서 빈곤의 공간을 억압해야 했다.

정보과 형사가 여기서 거주를 했었다고. 정보과 형사가 팔거리 판자촌 하나 집을 얻어갔고 거주를 했다고. 왜그냐면, 범죄자들도 많았어요. 범죄자들이. 조직폭력배라던가 범죄자들이, 옛날에는 전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았어요. 왜그냐하면 선후배로

이론학회, 121쪽.

17) 서정우(2011), 「광주 대인동 집창촌의 매춘 지리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 한국도시지리학회, 179쪽.

18) 「깡패를 徵用하고 娼女를 귀향시켜라」, 『동아일보』, 1960년 1월 5일.

이어지거든 그게. 그게 갑자기 조직폭력배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있다, 글
 른 그 나이 먹은 계속, 후배들이 거기로 가고 또 가고 그래요. 보문. 동네 사는 후배
 들이 가고 그렇게.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봐도 생각해도. . . . 아 정보
 수집할라고. (이 마을을?) 그 만큼 우범자가 많고. (그것을 직접 보셨어요?) 아, 다
 알죠, 여기는. 주민들도 다 알죠. 거주를 했다니까, 상주를 했어요. 상주를.¹⁹⁾

역사가 루이 슈발리에(Louis Chevalier)는 19세기 초 파리에는 이른바 ‘위험
 한’ 사람과 ‘노동하는’ 계급이라는 두 범주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었다고 지적
 했다. 게다가 산업시대의 유럽 사회는 복지 제도가 오히려 노동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기생과 범죄의 생활로 몰고 갔다고 했다.²⁰⁾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빈곤과 범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의 자본주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신화 구조를 만들
 어냈다.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1단계),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몫을
 정확하게 소득으로 분배받고(2단계), 이 소득을 가지고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으며(3단계), 이러한 생산-분배-소비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효용이 극대화된다(4단계). 이 과정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공정한 심판자에 의해서 관장되기 때문에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도 없으며, 누구나 열심히 하면 경제는 번영하고 부당한 불평등이
 나 극심한 가난은 존재하지 않는다.²¹⁾ 하지만 빈민은 이러한 체제에서 이탈한
 존재들이다. 빈곤은 자본주의 체제 모순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 노동하지 않은
 개인들의 이탈과 나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빈곤은 안정적 체제를 부정하
 는 표상이었고, 빈민은 자본주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근현대 도
 시의 빈곤 공간은 단순히 물질적 빈곤만이 아닌 사회적 부도덕성, 비윤리성을

19) 화자 : 조○○(남, 1963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22일.

20)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이성재 옮김(2010), 『빈곤의 역사』, 길, 293~294쪽.

21) 문진영, 앞의 논문, 204쪽.

내재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되었다. 이들은 정상(?)의 사람들에게 일탈과 불안,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일탈과 불안, 공포는 관리되어야 했다. ‘학강정 갱생지구’는 일제강점기 다른 빈민 마을과 달리 애초에 빈민들의 생활갱생을 도모하는 ‘특정지도구역’²²⁾으로 설정되었다. 때문에 이 지구가 보여주는 ‘팔(8)거리’라는 독특한 공간 구조 또한 갱생지구의 거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여 통제와 감시 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²³⁾ 일제는 빈민의 계도와 계몽이 목적이라 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있었다. 근대의 권력 모델은 억압적 권력 기술로부터 무언가 만들고 관찰하는 권력, 모든 것을 아는 권력, 그리고 스스로의 효과에서부터 자신의 힘을 증식시키는 그런 권력으로 넘어갔다.²⁴⁾ 특히 예측이 불가능한 대상은 근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를 주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근대 권력은 빈민들을 봐야만 했고, 이들을 내밀하게 통제해야 했다. 푸코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보는 자만이 근대적 진리를 소유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자는 인식의 대상만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런 인식론적 관계로 인해서 ‘보여지는 자’는 ‘보는 자’에게 사회정치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이다.²⁵⁾ 학동과 그 주변에 정착한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여야 했다.

빈곤의 공간은 재생산되고 증식되었다. 빈민의 자식들은 빈곤을 증여받았

22) ‘학강정 갱생지구’에는 1937년부터 방면위원을 두고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면서기를 주재시켜 조사 및 지도의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지도방침은 직업, 생활지도, 가족상황 등을 조사하고, 노동력을 감안하여 호주회, 부인회, 근로조, 저축조합 등으로 조직하였으며, 정례집회를 시행했다.(광주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1993), 『광주시사』 2권, 광주시, 284쪽.)

23) 정경운(2013), 「일제강점기 광주읍 “공민”연구」, 『호남문화연구』 53, 호남학연구원, 164쪽.

24)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2001), 『비정상인들』, 동문선, 67쪽.

25) 한희진(2012), 「미셸 푸코의 파놉티시즘에서 인식, 권력, 윤리의 관계」, 『의철학연구』 12, 한국의철학회, 85쪽.

고, 농촌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도시 공간에서 정착에 실패한 사람들은 빈곤의 공간으로 가야했다. 무등산에 의지해 나무로 생계를 유지하던 남성들은 산림법 등이 강화되면서 경제활동을 박탈당했다. 가부장적 지위를 상실한 남성들은 술과 도박으로 자신의 결핍을 대신했다. 젊은 사람들은 빈곤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수혜할 수 없었고, 정상의 노동공간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리고 이들의 일탈은 불량배나 조직폭력배 등 조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²⁶⁾ 불안과 불안정의 윤리 그 자체가 실패한 개인들을 낳으며, 이는 또한 배제된 사람들과 관련되는 사회적 해체를 야기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기존의 당국이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비행자 혹은 일탈자로 낙인찍히면서 문제투성이의 병리적 개인들로 처리된다.²⁷⁾ 비록 이러한 모습이 학동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 모습은 아니었지만, 외부 사람들은 이 공간을 독해할 때 일부 일탈자의 행위를 하나의 독해 코드로 이용했다.

특히 권력은 빈민의 부정성 담론을 유포했다. 1971년 국회 입법조사관은 광주(廣州)대단지 사건 보고서에서 빈민을 한 곳에 결집시켜 놓으면 반란 세력을 구축하기에 용이하고 폭동을 흥기하기 쉽다고 하면서 철거민 이주 정책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주장했다. 또한 종교 단체들은 빈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라 역설하면서 빈민의 집단 거주에 대한 공포감을 내비치기도 했다.²⁸⁾ 국가권력은 빈민들을 내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빈민들 또한 국가권력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동 사람들은 경찰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26) “과거에 서민촌, 갯생부락, 깡패소굴 이렇게 불렸제. 그래서 과거에는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지. 여가 개팽이파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원동 지나갈라치른 다들 벌벌 기어 다녔다.”(박우주(2009), 「거주민의 삶을 통해 본 학팔거리 장소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쪽.)

27) 마이크 새비지 외, 김왕배 외 옮김(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93쪽.

28) 김원(2011),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 현실문화, 370~371쪽.

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의 감시가 학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와 범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학동 사람들은 일탈자들을 자신들과 다른 범주의 존재로 경계 짓는다. 일탈자들은 학동에서도 특별한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자신들은 국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윤리적 존재로 범주화 시켰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의 시선은 일부의 일탈자가 아닌 빈곤의 공간을 향해 있었다. 사회의 규범이란 타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이 지속적으로 의식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이고, 개인의 윤리란 타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재화한 결과이다.²⁹⁾ 화자의 구술은 국가권력의 감시를 내재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 공간에 대한 타자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연표된 사건이 1977년 학동 근교인 무등산에서 발생한다. 박홍숙이라는 젊은 청년이 자신의 집을 철거하는 공무원 4명을 살해한다. 당시 언론은 박홍숙을 ‘무등산 타잔’으로 명명하며, 각종 보도를 생산해 냈다. 언론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정한 직업도 지니지 않은 채”,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소룡처럼 되겠다고 단봉을 익히며 칼 던지기를 연마했고, 낙법, 줄타기도 연습”(이상, 『전남일보』, 1977년 4월 23일), “거의 나는 듯한 산타기의 명수”, “평소에 뒤틀린 영웅심리 잠재해 있었을 것”(『동아일보』, 1977년 4월 23일) 등 부정적으로 박홍숙을 이미지화했다. 박홍숙은 언론에 의해서 이해와 순화가 불가능한 범죄자, ‘괴물’로 표상되었다.³⁰⁾ 그러나 그는 1970년대 평범한 도시 빈민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71년 전남 영광에서 도시(광주)로 이주한다.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모든 가족이 돈을 벌었지만, 광주에 집 한 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박홍숙은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으로 무등산을 선택한다. 박홍숙의 가족은 빈민 거주지에도

29) 한희진(2012), 앞의 논문, 90쪽.

30) 이영진(2014), 「범죄의 재구성」, 『비교문화연구』 20(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6~7쪽.

정착할 수 없는 극빈층이었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국 체전 준비와 자연보호를 명분으로 무등산에 거주하는 빈민 거주지를 철거한다. 이 과정에서 박홍숙의 집이 철거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사회적 배제를 겪는 이들은 빈곤과 다양한 차별로 인해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며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차단당한다. 이들은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가치,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³¹⁾ 철거는 박홍숙에게 사회적 배제의 공식적 선언이었다. 박홍숙은 자신의 집이 철거되면서 주체의 인정이 박탈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감정이 격화되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들은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서 그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특히 ‘타잔’의 수사는 비정상성 인식의 결정(結晶)을 보여준다. ‘타잔’은 이성적인 근대 세계와 대립하는 자연성과 야수성을 상징한다. 타잔은 항상 반라로 정글을 누비면서, 동물과 소통하는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언어도 사용한다. 타잔의 특이성은 소설과 영화에서 영웅성의 표지로 활용되지만, 현실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배태한다. 이러한 타잔은 빈민과 연동한다. 합리적 이성을 지닌 도시 사람들과 국가 권력은 빈민을 타잔과 비슷한 유형으로 인식해 왔다. 또한 언론은 박홍숙의 개인 행위로 판명하기 전까지 철거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준동하여 공무원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빈민들이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잠재적 인식이 작은 촉매만 있으면 바로 언표화 되어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은 언론보도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박홍숙 사건이 지닌 본질을 알고 있었다. 당시 학동에 거주했던 한 화자는 “대부분 다 없이

31) 김윤태 외(2015), 「빈곤의 다차원성」, 『비판사회정책』 4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69~171쪽.

살고, 힘들게 사는데, 좀 힘없는 사람들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권력이 지나치게 무자비하고, 인정, 인정 없이 그냥 무자비하니 해버리고”라 이야기하면서 국가 권력에 억압당한 빈민의 한 사람으로 박홍숙을 회고했다. 또한 당시 지역 인사들은 박홍숙 사건이 한국 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서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이라 하면서, 박홍숙 구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³²⁾ 하지만 박홍숙은 1980년 12월 24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홍숙의 삶은 당시 도시 빈민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수사는 도시 빈민에 대한 주류 사회의 잠재된 인식을, 그리고 박홍숙의 사형 집행은 국가권력이 빈민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Ⅲ. 도시 이주의 실패와 빈곤 공간의 정착

한 화자는 환갑 무렵에 학동에 정착한다. 화자의 유년 시절 고향은 아버지의 부재, 가난과 이주, 이산의 기억으로 직조된 장소였다. 가족은 생계를 위해서 흩어져 살아야 했고, 어머니는 자식 걱정에서 항상 눈물을 흘려야 했다. 화자는 남의 집 머슴으로 일을 했다. 시간이 흘러 상일꾼이 된 그는 나름 배짱을 보이면서 품삯도 흥정하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함께 살 계획도 마련한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화자는 주인이 품삯으로 약속한 농토를 받지 못하고, 급기야 피난을 떠나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32) “광주 지역 유력 인사 63명은 구명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진해 왔던 고도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무주택 문제가 빚어낸 사건이자, 대책 없이 진행된 행정상의 횡포가 부른 참극이었다”고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박홍숙 구명 이유를 제시했다.”(김원(2011), 앞의 책, 347~348쪽.)

화자는 어머니와 동생을 남겨두고 군대에 간다. 가족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오직 화자에게 있었다. 그러나 화자의 입대는 이런 가능성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화자의 입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이동을 추동했다. 농사를 토대로 정주적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했다. 비록 이러한 접촉이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자는 오랜 시간 군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떠났다. 그는 광주와 서울, 그리고 전선(戰線)을 오가면서 새로운 세계와 삶을 알게 되었다. 화자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이전의 고향과 이후의 고향은 전혀 다른 인식선상에 놓여 있었다. 결혼을 한 화자는 고향에서 농사 짓는 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홀로 서울로 간다.

53년에 입대를 했는데, 57년 몇 월, 6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 갖고 집에 온게 농사도 얼마 없고. . . . 그래서 에 돈 벌러 가야 쓰것다고, 인제 제대해 갖고 서울로 와서 한 2년 동안은, 껌장사도 하고. (무슨 장사?) 아이스끼끼, 그때 아이스끼끼 들쳐메고 땡기고 폴 때에, 그것도 하고. 또 화장품 장사. 화장품 장사를 이렇게 하구 짜갖고, 그때 들쳐메고 땡김시로 집집이를 막 돌렸어요. . . .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 따라 땡길게라우?” 그래요. “그 땡하신 분이요?” 그렇게. 거 상, 옛날에는 그 큰 상, 교자상 하고, 인자 둘이 겸상해서 먹는 소반상하고 모도 그것을 한 거여. . . . 물건은 우리가 대줄 것인게, 우리하고 같이 땡기고. 큰 상, 그때는, 그때 돈으로 삼, 삼만 원인가 주라고 했어. 큰 교자상 한, 그리고 소반, 짝한 것은 그때 이천 원인가, 열만가. 그런 식으로, 그러디, 큰 상 하나에는 우리가 폴 때는 사만 오천 원까지 받는다, 그것이여.³³⁾

33) 화자 : 손00(남, 1928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8일.

도시는 불안하고 일시적이라 해도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다. 도시는 농촌과 달리 한가한 시기가 없다. 게다가 도시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새로운 인구에 의해 도시는 동력을 얻었다.³⁴⁾ 서울은 한국 전쟁 후에 다른 지역과 달리 전후 복구 과정에서 차별적인 혜택을 누렸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고, 재건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다.³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울로 이주한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전쟁 과정에서 서울을 떠난 피난민과 월남민의 유입으로 서울 인구가 소폭 증가한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다. 서울 인구는 1955년 156만 명이었으나, 1960년에 244만 명에 이르게 된다.³⁶⁾ 하지만 서울은 이주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산업시설은 전쟁 과정에서 파괴되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서울 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공업화에 선행하는 전형적인 과잉도시화 양상 중 하나였다.³⁷⁾

재건 과정에서 잠시 호황을 누렸던 벽돌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일용 잡부가 이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중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장사를 했다. 화자는 빚을 내어서 아이스크림과 화장품 장사를 했다. 하지만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무턱대고 장사하는 것은 화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용이한 장사를 찾다가 값싼 비누를 들고 서울 근교의 시골을 돌기 시작했다. 화자는 서울의 중심 공간에서 멀어지면서, 그의 기대와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34)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이성재 옮김(2010), 앞의 책, 142~143쪽.

35) 윤정란(2007),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여성과 역사』 7, 한국여성사학회, 99쪽.

36)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1996), 『서울육백년사』 제6권, 서울특별시, 578쪽.

37) 송은영(2008),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25쪽.

느끼게 된다. 서울은 당시 이주민들에게 상상적으로 구성된 욕망의 공간일 뿐이었다. 그리고 욕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³⁸⁾ 화자가 장사에 실패하고, 서울에서 점점 이탈되는 것은 그의 욕망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다행히 실패만 하던 화자는 소반 장사꾼들을 만나 재기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귀향하게 된다.

화자의 귀향은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가 반영된 결과였다. 가족이 다른 어떤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되며, 개인은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 내의 관계가 여타의 사회관계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사회가 가족주의의 논리에 기초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⁹⁾ 한국의 가족주의는 유교문화의 교조적 이식과 세속적 확대에 기인한다. 한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일본과 달리 폐쇄적인 종법질서와 장자우선의 엄격한 부계혈통주의를 고집하고 있다.⁴⁰⁾ 특히 이러한 의식은 혼돈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징병과 징용, 한국전쟁 등은 역사의 격랑 속에서 개인 주체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개인 주체의 소멸에 대한 불안은 생물학적 종적 연결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이런 경험의 양상 속에서 강화되었고, 특히 장자는 가족에게 특별했다.

장자 중심의 종법적 가족 질서는 화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세대에서도 의

38) “1965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생활난 때문에 도시로 이동한 상경민들이 도시에서의 생활이 ‘농촌에서보다 못하다’가 42%, ‘농촌과 마찬가지로’가 39.8%로 응답하고 있다. 즉 80% 가량이 상경 후에도 도시 생활에 실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서울 생활은 시골에서의 가난을 연장하여 다른 형식으로 체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오유석(1998), 「서울의 과잉도시화 과정」,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276쪽 참조)

39)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27쪽.

40) 김동춘(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경제와 사회』 제55집, 비판사회학회, 102-103쪽.

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부친이 부재하고, 어린 동생과 여자들만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결핍이었다. 화자의 어머니는 가정 경제가 힘들어도 부권을 대신할 장자가 가족과 함께 있기를 바랐다. 화자는 어머니와 아내의 강권에 결국 귀향할 수밖에 없었다. 1950~60년대 도시 이주를 선택한 남성 중에 유독 장자가 아닌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적당한 토지를 소유한 집안은 상속의 우선권을 장자에게 부여한다. 차남 이하 남성들은 여분의 토지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결혼 후에 분가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과 함께 출가해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할만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어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한국 사회의 출세 관습을 고려하면 대략적 추론이 가능하다. 화자는 귀향 후에 농사에 전념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들의 뒷바라지도 책임진다.

화자는 고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만 곧이어 위기를 맞는다. 정부는 1950년대 후반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물자를 받게 되고, 과도한 농업조세와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의 삶은 균열되기 시작한다.⁴¹⁾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농촌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지만, 이미 산업근대화 목표 아래 농업은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정부는 공업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땀질식 수습으로 무마하려 했다. 화자는 정부가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연대보증을 해서 다량의 비료를 구입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비료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연대보증으로 마을 전체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러한 상황은 농촌 지역에서 자주 발견된다.⁴²⁾ 화자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 화

41) 한도현(1998), 「1950년대 후반 농촌사회와 농촌의 피폐화」, 『한국 현대사의 재인식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0~94쪽 참조.

42) 한 제보자는 전라북도 순창의 한 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자는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가정 경제도 건실하게 살피서 마을에서 부자 소리까지 듣는다. 그 외중에 화자에게 고민 하나가 생기는데, 바로 자식이었다. 이전 시기에 농촌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자식만큼은 성공하길 바랐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자식들을 도시로 이주시켰다. 화자는 마을 사람들의 자식들이 도시의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하지만 화자의 자식들은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도시 학교의 입학마저 실패한다. 이에 화자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도시로 이주한다.

큰아들 친구들이, 애기들이 좋은 데로 막 간디. 나는 동네에서 다 못 갈쳐도, 나는 그때는 부자라. 관심 갖고 했ندی. 시험에 떨어져 갖고, 이렇게 실패가 되고 그렇게 좋은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내가 인자 여기서 밍해. 인자 거, 자연적으로 자식들 자랑하고 어짜고 하면은 나는 순 수그러지고, 오기로 못 살것어. 그 옥주가 많애. 어디 가면 밥 못 먹고 사냐? 그라고는 옥, 그 크나큰 살림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 . . 시혼일곱 살에 끼를 벗어져 나왔ندی. 어디로 갔냐? 인자 늙은게. 그때만 해도 인자 육십이 돌아온게, 인자 늙어서 일을 못한다 그것이어. 그래 갖고 인자 저기, 시청 앞에 매일 여인숙이라고, 여인숙을 사 갔어. 앉아서 돈 받은다고. 인자 그런 식으로나 된다고. 그래갖고 역전이 가참고 그렇게. 워매 잡동사니, 잡, 불량배가 달라들고. 그 시골서, 그런 꼴 안 보다가, 아 좀 못 쓸 것들만 상대하고 그렇게 못 살것어. 그래갖고 여기 여 여 여, 거기서 풀아서, 여기 여기 여기 여 방림파출소 여기 방앗간을 사왔어.⁴³⁾

직접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보낸 편지에 답신은 오지 않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그는 마을 친구와 함께 광주로 야반도주를 했다. “내가 그때 여, 부락일 봤어요. 글다가. 내가 박대통령한테 편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답장도 안 와요. 그렇게 친구하고 나하고 광주로 나와 부렸어.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좀, 우리 청년들을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내가 편지까지 했어요, 진짜.”(제보자 : 정○○(남, 1947년생), 구술일시 : 2016년 9월 1일)

43) 화자 : 손○○(남, 1928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8일.

화자는 1980년대 중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광주로 왔다. 그는 광주 도심에서 여인숙을 운영한다. 도시는 본래 이방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공간이다. 다양한 이질적 문화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의 문화이고, 이것이 도시의 장소성을 형성한다.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이주민 정착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도시는 이해와 적응 이전에 사람들에게 불안운을 준다. 이 불안은 한 개체의 것이 아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을 지니고 살아간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이주한 도시는 희망과 기대, 불안과 두려움이 혼효된 집단 감정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근현대의 도시 문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도시에 처음 온 사람들이 느낀 체험이었다.⁴⁴⁾ 이주민은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불안을 잠재우고 '도시 사람'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낯선 풍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돌기 시작했다.

농토는 농민들에게 단순한 재산으로서 가치와 전혀 다른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유용한 행위의 가능성이자 이해관계의 중심이며, 또한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삶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화폐 자본으로 환산하여 소유할 경우 즉시 상실되는 성격의 것이다.⁴⁵⁾ 농촌에서 토지와 집은 마을 공동체에 편입하는 매개였다. 집과 토지는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면서, 내적 구성원이 되는 장치이다. 집은 시간적 이음새가 되어 전 세대와 현 세대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며, 토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유대를 형성하게 한다. 집과 토지는

44) “여 순창인디. 순창에서 내가 광주를 나왔습니다. 이, 어디 일자리를 볼까 하고 역전에 그때 가니까. 역전에. 저기 저, 신역. 그래서 계란 있지, 계란 찢 거? 한 줄을 먹었어요. 열 개를. 열 개를 먹었는데. 아이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고, 계란 깨네. 아. 웃긴 놈, 거 건달들이제. 나 그때는 촌에서 삼, 그때 돈으로 얼마드라. 얼마를 쇠벤또. 여 광주, 여 도시에 나가면 쓰리꾼들이 많아갔고, 다 끌러분드라. 히고 그랬어. 고놈에다 철사를 빵빵 묶어갔고. 아니 그 쇠벤또 있잖아요. 쇠, 쇠벤또 있었어. 여 도시락, 거기다가 철사를 딱 감아갔고, 거기에다 돈을 넣어갔고.”(제보자 : 정○○(남, 1947년생), 구술일시 : 2016년 9월 1일)

45) 게오르그 짐멜, 김택영 외 옮김(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21쪽.

시간성과 공간성의 이음을 매개하면서 사람 사이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가 된다. 집과 토지를 처분한 화자의 행위는 단순한 화폐 자본으로 전환과 소유가 아니었다. 이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주름을 삭제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기획하는 의지였다. 분리 불안의 감정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혼효된 감정이 화자의 도시 생활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 인자 혼이 나가부렸어. 인자 핫병이 들어가지고, 큰 재산 다 날려버리고. 아침에 자고 나면, 코에서 피가 툭툭 터지고, 아침마다. 인자 핫병이 들어부겨여, 인자 그렇게. 인자 그렇게 장사고 뭉시고 인자 필요없고. 저것을 가지고 돈 몇만 원 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자. 그 재산 다 넘어가불고 그렇게는 인자, 그 죽을 연구만 한겨여, 죽을 연구. . . . 나도 인자 우선 살랑게 한냥이라도 빼갖고 어디로 도망해야 쓰것다 하고 하는데. 그 옆에 할머니가 슈퍼를 해. “할머니, 내가 소개를 해주면 톱툰히 많이 줄 것인게. 나 쪼간히 받을란게, 요 요놈 소개 잠 해주시오. 당신은 발이 넓은 게 그냥 알아보시오.” 그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인자 그런디. . . . 그 가게 문 앞에다 추력을 딱 대놔두고 언능 타라고. 뭐 이불, 요 우선 밥통, 우선 필요한 것만 몇 개 없어 가져고. 그래갖고 대충 그 짐차에다 실어가지고는, 거치도 없이. 어디로 갈 데 올 데도 없어. 그 싣고는 어디로 갈 것이여. 우선, 저 학동, 동생이 학동시장에 있는 데서 살아. 궁계 동생 있는 데로 가져고 고리 했어. 학동시장 있는 데로.⁴⁶⁾

도시 사람들의 관계맺음은 화폐 자본의 획득과 유용성에 있었다. 화폐 자본은 이주민인 화자에게 도시 정착을 위해서, 나아가 도시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화자는 화폐 자본 증식을 위해서 여인숙과 장사를 했다. 심지어 농촌의 토지와 집을 매매한 여유 자본을 가지고 도시 변두리에 집을 사서 세도 놓았다. 초기 화자의 정착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듯했다. 그

46) 화자 : 손○○(남, 1928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8일.

러나 도시의 화폐는 물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구입하는 도구를 떠나, 하나의 독립된 상품이 되었다. 다수의 현대인들은 모든 행복과 삶에 대한 확실한 만족을 일정 양의 돈을 소유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생각했다.⁴⁷⁾ 도시 사람들은 화폐 자본의 증식을 목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런 관계맺음은 왜곡과 굴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화폐 자본 증식을 위해서 온갖 기만과 속임수를 동원한다. 사실 이러한 기만과 속임수는 익명성을 전제하는 도시 공간에서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관계맺음의 방식일 뿐이다. 기만과 속임수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도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패배한 사람은 도시를 떠나야 했다. 화자는 결국 도시 공간이 요구하는 관계맺음에서 패배한다.

화자는 이후 심각한 상실감을 겪게 된다. 화자는 상실감으로 죽음까지 생각한다. 그렇다고 화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고향에서 느낀 패배감을 상쇄하고자 도시 이주를 선택했고, 귀향은 인생의 완전한 패배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화자는 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당한 기만과 속임수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화자가 느낀 상실감은 어떠한 윤리적 해명과 설득으로도 해소될 수 없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손실을 보상받아야 했다. 화자는 이웃을 이용해서 사람을 소개 받고, 기만과 속임수로 가게를 처분한다. 그리고 바로 학동으로 도망간다.

여기서 학동의 장소적 의미는 특별하다. 학동은 팔거리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골목길과 비슷한 작은 집들이 몰려 있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학동에 들어오면 위치감각을 상실했다. 학동 사람들도 시내의 범죄자들이 경찰을 피해서 도망 오는 곳이 학동이었고, 경찰도 여기에 들어온 범죄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한다.⁴⁸⁾ 근대의 빈민 공간은 타자적 시선 아래에서 각각의 개체성이

47) 게오르그 짐멜, 앞의 책, 24쪽.

48) “광주서에서 나온 형사들이 나온 말이, 학동서 사고가 나면 골치 아프다 이거여. 이 잡으

부정되는 장소였다. 어느 누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빈민 공간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추방되어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곳일 뿐이다. 이러한 타자적 시선에 포획된 학동의 장소성은 어느 순간 그 공간을 ‘전유하는 주체들’을 ‘점유의 사람들로 바꿔놓았다. 부정적 익명성이 적층되고 이해의 왜곡이 발생한 곳이 빈곤의 공간이었고,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 학동팔거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죄 담론’이었다.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법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공간이 학동이었다. 익명적 관계맺음에 대한 상처를 익명성의 관계맺음으로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는 도시 사람들의 부정적 일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렇게 도시를 노정하고 학동과 접촉한다.

여그서는 없는 사람만 모타 있는 데라, 맨 벌어먹는 사람이라. 어디 가문 도로 공사한 디로 따라 가자고 그래. 그래 따라 가. . . . 나는 이 동네 안 왔으면 죽어. 내가 학2동서 살아본게, 일 년이라도 천 원짜리 벌어도 없어. . . . 그런데, 벌어먹는 사람이 없은게, 누가 뭐 단돈 천원벌이 하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동네에 가본게, 이 사람도 가자고 하고, 저 사람도 가자고 한게. 내가 인자, 죽기 아니면 살기. 나 어려서 고생했지만은, 중년에는 동네 백호 된 곳에서 최고 왕놀이 했어 내가. . . . 그렇게 좋은 부락에서 살다가, 거기서 내가 일등 부호라고, 면에서도 나를 아조 상을 주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뭐 그렇게 올리고 살았어. 그랬는디, 인자 애기들 학, 교육 관계로 해서 떠분 것이제.⁴⁹⁾

도시가 화자를 학동으로 떠밀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 듯하다. 화자는 중간 계층의 삶을 살다가 빈곤에 빠진 사람으로서 수치 빈민⁵⁰⁾에 해당한다.

리 오면은 이놈의 것이, 팔거리에서 튀어 불면은 팔거리가 네 개가 있거든. 팔거리가 네 개 못 잡어. 거 하여튼 팔거리에서 놓쳤다 하면은 못 잡어. 그런 사건들이 모다 있었지.”
(화자 : 홍○○(남, 1940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9일)

49) 화자 : 손○○(남, 1928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18일.

수치 빈민은 다른 빈민에 비해 상실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동은 큰 상처를 겪고 온 화자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동네 사람들은 가난해도 서로 도와가며 살았다. 학동은 도시가 파괴한 전통적 공동체 생활양식이 잔존한 장소였다. 사람들은 건설노동, 주부 취업 알선, 노점과 행상 등 거의 모든 취업에서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⁵¹⁾ 이들의 연결적 자본⁵²⁾은 화자의 상실을 보상해 주고, 나아가 화자가 다시 현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 화자와 사람들의 접촉은 빈곤의 기호로 관념화된 이미지적 공간을 체험의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그런데 학동의 공간을 회고하는 화자의 언표 속에는 노스텔지어의 감성이 배어있다. 경험은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반성적 태도이다. 노스텔지어는 근대 혹은 탈근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두루 체험되는 감정으로, 존재론적 뿌리뽑힘 혹은 삶의 근본 토대 상실과 연관되어 있다. 미래 지평의 불투명성 앞에서 흔들리는 행위자들은, 노스텔지어를 매개로 새롭게 열린 과거의 몽상세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자원을 길어온다. 노스텔지어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과거를 애뜻하게 회고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현재가 위기에 빠졌고, 그 위기가 그들의 미래를 증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⁵³⁾ 화자가 도시를 부유하고 정착했던,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주었던 학동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 일부 주민들은 환경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이 공간

50)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이성재 옮김(2010) 앞의 책, 57~58쪽.

51) 김원(2011), 앞의 책, 351쪽.

52) “연결적(bridging) 자본은 다양한 집단 간의 연결을 강화해 줄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접촉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접하게 함으로써 큰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결국 한 지역에서 특정 조직내 참여의 정도는 한 개인의 복지와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이원호(2006),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빈곤현상의 공간적 패턴」, 『국토지리학회지』 40(3), 국토지리학회, 370~371쪽)

53) 김홍중(2016), 앞의 책, 135~136쪽.

에서 배제되었다. 새 아파트는 기존의 동네와 경계짓기를 통해서 공간 분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화자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학동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도 같은 장소성을 지닌 곳이 되었다.

많은 주민들이 가난했지만 서로의 이해가 충만했던 곳이 학동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회귀의 부정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포획했던 다양한 타자적 시선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롭게 재편된 공간에 편입되길 바란다. 그들은 거주공간이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한 자본의 수혜가 다시 자신들에게 주어지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자본주의적 욕망이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⁵⁴⁾ 현재의 상황을 체감한 화자에게, 혹은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학동은 노스텔지아의 감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IV. 되돌아온 빈곤의 공간

집단보다 개인, 계급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는 주체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담론이 근대 신화의 일부를 구성했다. 이 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서사로 인식되었고, 한편으로 기만의 담론으로 비판되었다. 코코란(M. Cocoran)은 세대 간의 빈곤 이행을 연구하면서, 부모 세대의 빈곤이 자녀 세대의 빈곤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주장했다. 부모 빈곤은 가족의 다양한 배경 원인(부모 학력, 직업, 가구유형)과 근린 불이익, 노동시장 조건, 복지 수급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고도 여전히 자녀의 다양한 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54) 송은영(2008), 앞의 논문, 155쪽.

부모 빈곤의 영향은 다른 변수들의 효과보다 보통 크거나 최소한 작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의 대물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⁵⁵⁾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모 세대의 빈곤에서 형성된 한계 조건들이 자녀 세대에 부과되어 세대 간의 빈곤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⁵⁶⁾ 하지만 굳이 연구 결과를 근거하지 않더라도, 세대 간의 빈곤 이행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소유한 자본의 차이는 자유로운 경쟁을 표방하는 자본주의 근대 사회에서 부와 빈곤의 차별적 세습 강화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빈곤만큼은 세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녀들 또한 부모 세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서 노력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동일한 기표의 '빈곤'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런데 빈곤의 기표를 구성하는 의미소들은 세대 간에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 유치원에, 아마 외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시설 같아요. 아침에 전부 사람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옥수수죽을, 그때 생각에는 옥수수죽 같아요. 옥수수죽을 좀 써주고, 벽에는 모자이크가,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논 그림이. . . . 네 살, 다섯 살 때. 그 옥수수죽을 쓰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 . . 인자 그때, 우리가 못 살았다는 것은 언제 알았냐면, 그 고등학교 사춘기 때 알죠. 보통 보면. 그때는 좀 이렇게 다른 데 하고 비교도 되고, 아 우리가 어렵게 사는 동네였구나. . . . 아, 나 가난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안 느꼈는데요. 인자 다른 사람들 하고 봤을 때, 다 이렇게 산줄 알았는데, 나같이 산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뭐 사춘기 때는 다 알잖아요. 당연히 알잖아요. 친구 집도 가보고, 티브이도 보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새로운 것도 보잖아요.⁵⁷⁾

55) 김위정 외(2007), 「세대 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한국사회학회, 6쪽.

56) 김익기 외(1987), 「도시빈민의 내부분화와 빈곤의 재생산 과정」, 『한국사회학』 21, 한국사회학회, 96쪽.

화자는 학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모는 1950년대 말 광주로 이주했고, 1960년에 학동에 정착한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정기적으로 학동을 방문하여 동네 아이들에게 옥수수죽을 끓여준 일을 유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구술했다. 화자는 4~5살 때의 일이지만, 그 옥수수죽이 너무 맛있어서 현재까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1950~60년대 빈곤은 가난과 배고픔이었다. 사람들은 심각한 물질적 결핍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빈곤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당시의 가난에는 희망도 함께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가난과 배고픔은 곧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화자가 유년시절 경험했던 외국인 선교사의 옥수수죽은 그 시대의 가난과 배고픔을 대신하는 상징적 음식물이었다.

화자가 빈곤을 처음 느낀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유년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협소할 뿐 아니라, 비교 가능한 체험의 장이 넓지 않다. 그래서 체험이 의미화된 경험으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세계와 접촉의 빈도가 많아지고, 경험의 폭이 확장되면서 주체는 스스로의 모습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이 시기가 사춘기이고, 화자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화자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빈곤을 느끼게 된다. 화자는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물질이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는 유년시절을 추체험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빈곤의 경험이었음을 알게 된다.

절대적 빈곤 문제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하지만 광주는 이 시기에 개발소외를 겪으면서 산업시설을 충분히 확장하지 못했다. 산업단지가 광주 주변 지역에 마련되지만, 들어선 공장들은 규모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의 활발한 취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빈곤층 남성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웠다. 학동 사람들의 노동시장

배제는 그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50~70년대 부모 세대들이 정기적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했다. 특히 노동력을 상실한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의 노동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배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다. 그나마 나은 선택은 일정량의 자본을 축적한 뒤에 자영업에 하는 정도였다. 학동 사람들의 자영업은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부분 영세했다. 그래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선택한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 전략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빈민들은 소득 격차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배제 등 다양한 소외를 겪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빈곤문제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되었다.⁵⁸⁾ 화자가 느낀 빈곤감은 상대적 빈곤에 기인했다.

그러더니 동생들이 대학교를 다 전대를 나왔어요. 동생 서이가.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인데. 좀 뒷바라지를 했죠. 조금, 많이는 못해줬어요. 애들 필요한 것 뭐 사주고, 용돈이라던가 조금 허고, 뒷바라지를 해서 다 전대를 나오고. 동생들이 그렇게 잘 돼서. 지금도 보면은 조금 잘 하더라고요. 막둥이가, 인자 바로 밑에가 여동생인데. 여동생 둘이는 실은 집에서 전문대를 보내갖고, 간호학과를 보내서 빨리 취직을 시킬라 그랬는데.⁵⁹⁾

1960년에 상영된 영화 <박서방>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박서방은 남산 해방촌에 살면서 동네 구공탄 아궁이를 수리해 주면서 산다. 박

58) 박천익(2002),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정책」, 『공공경제』 7(2), 한국 재정학회, 75쪽.

59) 화자 : 조○○(남, 1963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22일.

서방은 가난하지만 행복했다. 장남은 바르게 성장해서 제약회사 부장이 되었고, 막내딸은 외국 항공사에 취직해 나름 앞가림을 하고 산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운 박서방을 부러워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영화는 전근대적 사고를 지니며 빈곤하게 사는 박서방과 근대적 삶을 사는 자녀들을 겹쳐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구성한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부모 세대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지시하며, 자녀 세대는 미래의 삶을 예고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녀 세대가 보여주는 근대적 삶이 현실의 일상이 될 것이란 집단의 기대 지향이 영화 속에는 내재해 있다.⁶⁰⁾ 그런데 박서방은 막내딸의 의혼(議婚)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남자 집안은 중학교만 졸업한 박서방의 딸과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다. 박서방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지닌 전근대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자식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울분을 토하며 강조한다. 영화는 이 장면에서 계몽적인 메시지를 하나 첨가한다. 바로 ‘교육’이다.

학력(學歷)은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학력은 학교 체제의 산물로서 개인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능력주의적 의미를 내포하므로 합리성을 확보하게 된다.⁶¹⁾ 그런데 학력은 개인의 능력만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근대 사회의 학력은 과거와 다른 특권층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적 지위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인에게 부여한다. 어느 순간 학력은 사회적 이해 관계를 교양시키는 특권적인 지위 집단에 편입하기 위한 문화적 자격증이 되었다.⁶²⁾ 196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서 교육과 학력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다. 특히 빈민과 사회 주변부 사람들은 교육을 현재의 결핍을 극복하고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는 가장 강

60) 김재희(2004), 「1950년대 말-6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도시성과 근대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10(1), 대중서사학회, 62쪽 참조.

61) 남인숙(2011), 「학력사회와 학교교육의 모순」, 『사회이론』 40, 한국사회이론학회, 105쪽.

62) 강창동(2010), 「學力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1), 한국교육사회학회, 16-17쪽.

력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화자도 교육과 학력을 통해서 현재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실패하고 만다. 화자가 대학 입학을 시도한 1980년대 초반은 대학 교육의 대중화가 막 시작된 시기였다. 1970년 18~21세 대학 취학 연령 인구 중 대학생 비율이 5.3%였던 것이, 1980년 11.1%, 1985년에는 22.4%까지 급등한다. 한국 경제의 고성장, 산업 분화, 산업시설의 고기술화에 따라 산업 현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이 필요했다. 또한 대학 졸업장은 안정된 직장과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⁶³⁾ 화자도 이러한 기대 속에서 대학 진학에 도전했지만 좌절하고 만다. 다음 기회는 화자에게 없었다. 부모는 한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현재 지출과 자녀들의 미래 투자 사이에 할당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가정은 현재의 생계 비용에 많은 지출이 있기에 자녀에 대한 기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⁶⁴⁾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개인에게 돌아가는 기회는 한정적이었다. 화자는 제대한 후에 대학 진학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지대를 탐색하게 되었고, 그가 선택한 것이 취업이었다. 화자는 다행히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가정 경제를 보조하면서 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다. 화자는 부모 세대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나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게 된다.

저는 운이 좀 좋았거든요, 관운이 좋아가지고. 또 면사무소, 군청. 뭐 좀 진급이 좀 빨랐어요. 진급이 좀 빠르고. . . . 군청에서 또 도청으로도 올라가고. 그렇게 너무 잘 풀렸는데. 인자 호사다마라고. 그 뭐 뭐 저, 보증. 광주 오다가 보니까, 나 도청 공무원인지 어떻게 알았는가. 그동안 연락이 없던, 그 뭐, 뭐 선배들이고 어디고, 어떻게 알고 다 찾아왔더라니까요. 아니 뭐 밥,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하다가, 물어보면 나중에 보험 하나 넣어주라던가, 그것은 괜찮은데. 뭐

63) 김태호(2012), 「한국 사회의 학력과 계급 재생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908~909쪽.

64) 김위정 외(2007), 앞의 논문, 8쪽.

보증을 서주라던가, 인자 그런 경우가, 그때는 공무원 보증이 일순위니까. . . . 친구 조금, 사업하는 것을 여럿이 썼는데. 그 IMF 때에 하필이면 부도가 나버렸어요. 사업을. 친구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조금 사업을 한 것이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IMF 때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 구조조정 있었잖아요.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버터갓고 될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인자 얼렁, 조금 자포자기도 있었고. 퇴직을 했죠. 2000년도에 퇴직을 했죠. 뭐, 뭐 나와 보니까, 사회가 만만치가 않아요.⁶⁵⁾

공무원이 된 화자는 비록 급여가 많지 않았지만, 안정된 삶을 기획할 수 있었다. 그는 동료들보다 승진도 빨라서 일찍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다. 그러나 화자의 삶은 IMF 사태로 위기를 맞게 된다. 그간 몇몇 지인들은 공무원인 화자에게 금융대출에 보증을 부탁했다. 그런데 화자는 보증이 문제가 되어서 큰 부채를 지게 된다. 결국 그는 직장을 떠나야 했다.

한국은 1997년 IMF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는다. 이전까지 세계화는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IMF 사태는 세계화라는 한국 경제의 변수가 상수로 작동하는 변곡점이 되었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절실했고, 외국 자본은 한국 경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외국 자본은 우선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생존 전략으로 금융, 기업 및 공공부문의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⁶⁶⁾ 화자는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어서 직장을 떠나야 했고, 한순간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1998~1999년 사이 인구의 6.2%가 빈곤층으로 편입된다. 그 중 가구구성의 변화(가구주 또는 가구원수의 변동)로 인한 것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65) 화자 : 조○○(남, 1963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22일.

66) 박천익(2002), 앞의 논문, 76쪽.

97.6%는 소득변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중 근로소득 감소가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⁶⁷⁾ 이는 가정의 주요 수입원인 가구원의 실업이 새로운 빈곤층 형성의 중요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업은 가족에게 빈곤만을 주지 않았다. 임금이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중심적인 자원이 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가족 소득의 중단을 의미하며, 나아가 가족의 존립에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⁶⁸⁾ 실업은 빈곤과 함께 가족 해체를 촉진했다. 화자는 실업과 파산 위기에서 하나의 대책을 세운다. 그는 그나마 있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와 전략적 이혼을 한다. 전략적 이혼은 도산이나 보증 등의 이유로 전 가족이 집을 잃거나 재산을 보존할 수 없을 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하는 법률적 이혼이었다.⁶⁹⁾ 하지만 전략적 이혼이 문서상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가족으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고, 이런 난맥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실제적인 이혼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자 또한 전략적 이혼을 선택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이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 해체의 아픔을 맛보게 된다.

IMF 사태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 놓았다. 이전의 한국은 2~3%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완전고용 상태였다.⁷⁰⁾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했고, 노동자 고용 방식 또한 크게 변하게 된다. 비정규 근로자는 1997년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2000년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52.4%(고용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임시·일용 근로자)를 차지하게 된다. 임금이 있어도 차이를 보이는데,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 근로자의 임금의 56.6%(1999년 기

67) 김환준(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사회복지연구』 42(2),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69쪽.

68) 이미숙(1998), 「실업과 가족해체」, 『보건과 사회과학』 3, 한국보건사회학회, 83쪽.

69) 이미숙(1998), 같은 논문, 94쪽.

70) 채구목(2002),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학』 36(5), 한국사회학회, 156쪽.

준) 수준에 머물렀다.⁷¹⁾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는 고용 불안을 증가시키고 근로 조건을 악화시켰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남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일을 찾아서 광주를 떠난다. 그는 인천의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화자는 공장 생활을 그만두고 2년 가까이 도시를 떠돌면서 하루벌이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는 타지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학동으로 돌아와야 했다.

IMF 사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유형의 불안과 공포를 한국 사회에 만들어냈다. 한 사회와 개인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자본의 힘에 무력하게 피폐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 순간에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했다. 사람들은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IMF 사태가 우리 사회의 체제적 모순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실업과 빈곤, 가족해체가 개인의 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자책했다. 자괴감, 우울감, 무력감 등 병적 징후들이 우리 사회에 전염병처럼 번져 나갔다.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은 IMF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항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켰다.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고착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곤층이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가진자들은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여 소유 자본을 증식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경제 상태는 사회 구성원들을 빈익빈 부익부의 틀로 고착시켜 빈곤을 구조화시켰다.⁷²⁾

지도 여기를 못 벗어난 게 조금 의아해요. 운명인갑다, 그래요. 지금은 못 벗어난 것이 어머니 때문에 못 벗어나죠. 왜냐하면, 곧 80, 지금 칠십 셋, 칠십팔세시죠. 궁게 지금 혼자 하신다고 해도 좀 불안한 점이 내가 있어요. . . . 뭐 하루에

71) 채구목(2002), 앞의 논문, 158쪽.

72) 박천익(2002), 앞의 논문, 83쪽.

몇만 원도 못 벌거예요. 못 번 날은, 2~3만 원도 못 번 날이 있을 거예요. 뭐 진짜 1~2만 원 벌 때도 있고, 뭐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해야제 인자 할 수 있으면, 저녁이라도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뭐 하면은 한 5만 원이라도 버니까. 벌 때도 있고 하나까. 그렇게 버터 나가는 것이죠.⁷³⁾

과거 한국사회는 그나마 계층의 상승 이동이 활발했다. 화자도 교육과 취업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빈곤의 공간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IMF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빈곤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했다. 화자는 과거와 같이 스스로 노력하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의 한국사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심화되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은 확대되었고, 반면에 안정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사람들은 '2차 노동시장'으로 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차단당한다.⁷⁴⁾ 화자 또한 '1차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뒤에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간 예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1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화자는 강화된 차단의 경계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돌아온 빈곤 공간에 정착하게 된다. 빈곤의 공간 확장은 화자에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V. 결 론

이상으로 광주 학동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빈곤의

73) 화자 : 조○○(남, 1963년생), 구술일시 : 2016년 7월 22일.

74) 송호근(2002), 「빈곤 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한국사회학회, 28쪽.

경험을 살펴보았다. 빈곤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다. 빈곤은 시대와 공간의 결절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의미로 독해됐다. 그래서 빈곤은 타자적 인식을 전제하는 이미지의 특성을 지닌다. 빈곤은 현실에서 공간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중심을 벗어난 주변, 안쪽에서 밀려난 바깥쪽, 가진 자들의 가장자리가 빈곤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러한 배치 구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상만 달리할 뿐 계속 유지되었다. 특히 근현대의 도시 공간은 빈곤의 공간 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강화했다. 학동은 근대 도시 광주가 그 모습을 갖추기면서 만들어낸 빈곤의 공간이었고, 오랜 시간을 노정하면서 변전된 빈곤의 의미를 적층한 사회적 공간이었다. 하지만 깊은 시간의 주름을 지닌 이 공간은 아이러니 하게도 스스로의 이야기를 가져본 적이 없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학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빈곤의 공간, 빈민들은 시대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포착되고 이야기 되어지는 대상이었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다고 해도 언표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공간의 역사는 전유 주체들의 이야기여야 한다. 전유 주체들의 이야기가 담론화 될 때 공간의 역사는 왜곡과 굴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장소는 공간을 전유한 주체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장소성은 공간이 장소로 전환되는 것을 매개한다. 그래서 장소와 장소성은 공간의 주체들만큼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학동도 빈곤의 공간으로서 각 시대와 접촉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빈곤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타자적 시선의 반영일 뿐이었다. 학동 사람들의 구술생애담은 이러한 타자적 시선들에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나아가 삶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화 하면서 나름의 장소성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장소는 한 개인의 주체 형성에 중요한 토대이다. 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체는 없으며, 당연히 주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존재할 수 없다. 세계와의 대응을 통한 주체의 장소성은 공간의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

작점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화자들의 구술생애담은 빈곤의 공간 학동이 지닌 다양한 장소성 중 일부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빈곤의 공간을 전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담론화 했다는 것은 타자적 시선에서 벗어나 공간의 역사를 스스로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학동이 지닌 공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현대 도시 광주가 지닌 공간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살펴보게끔 우리를 유도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외 옮김(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 광주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1993), 『광주시사』 2권,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1995), 『광주시사』 3권, 광주광역시.
- 김숙자(1958), 『서울시 부녀직업조사』, 국련한국경제조정관실.
- 김원(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
- 김홍중(2016),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 마이크 새비지 외, 김왕배 외 옮김(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2001), 『비정상인들』, 동문선.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2010),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이성재 옮김(2010), 『빈곤의 역사』, 길.
-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1996), 『서울육백년사』 제6권, 서울특별시.
- 에드워드 렐프, 심승희 옮김(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역사문제연구소(1998),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옮김(2010) 『새로운 빈곤』, 천지인.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한홍수 외(1998), 『한국 현대사의 재인식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논문

- 강창동(2010), 「學力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1), 한국교육사회학회, 1~24쪽.(UCI : G704-001276.2010.20.1.007)
- 김동춘(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경제와 사회』 55, 비판사회학회, 93~118쪽.
- 김위정 외(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한국사회학회, 1~36쪽.(UCI : G704-000205.2007.41.6.003)

- 김윤탈 외(2015), 「빈곤의 다차원성」, 『비판사회정책』 제48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46~186쪽.(UCI : G704-SER000010228,2015..48,002)
- 김익기 외(1987), 「도시빈민의 내부분화와 빈곤의 재생산 과정」, 『한국사회학』 21, 한국사회학회, 77~96쪽.
- 김재희(2004), 「1950년대말~6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도시성과 근대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10(1), 대중서사학회, 47~73쪽.
- 김태호(2012), 「한국 사회의 학력과 계급 재생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907~925쪽.
- 김환준(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사회복지연구』 42(2),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65~388쪽.(UCI : G704-000143,2011.42.4.009)
- 남인숙(2011), 「학력사회와 한국교육의 모순」, 『사회이론』 40, 한국사회이론학회, 101~127쪽.(UCI : G704-001341,2011..40,003)
- 노병일(1994), 「빈곤의 개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사회과학논문집』 13(2),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5~140쪽.
- 문진영(2015), 「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236쪽.(UCI : G704-SER000010228,2015..46,002)
- 박우주(2009), 「거주민의 삶을 통해 본 학팔거리 장소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환(2013), 「빈곤층 거주지의 공간적 집중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한국도시행정학회, 489~510쪽.(UCI : G704-001469,2013,26.4.003)
- 박천익(2002),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구조와 빈곤정책」, 『공공경제』 7(2), 한국재정학회, 71~103쪽.(UCI : G704-000484,2002.7.2.008)
- 서정우(2011), 「광주 대인동 집창촌의 매춘 지리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 한국도시지리학회, 177~190쪽.(UCI : G704-001360,2011,14.3.003)
- 송은영(2008),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년~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6쪽.

-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한국사회학회, 23~50쪽.(UCI : G704-000205.2002.36.1.004)
- 윤정란(2007),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여성과 역사』 7, 한국여성사학회, 87~122쪽.(UCI : G704-002014.2007..7.006)
- 이미숙(1998), 「실업과 가족해체」, 『보건과 사회과학』 3, 한국보건사회학회, 83~102쪽.
- 이영진(2014), 「범죄의 재구성」, 『비교문화연구』 20(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5~41쪽.(UCI : G704-000963.2014.20.1.002)
- 이현재(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33, 한국사회이론학회, 111~133쪽.(UCI : G704-001341.2008..33.006)
- 정경운(2013), 「일제강점기 광주읍 “궁민”연구」, 『호남문화연구』 53, 호남학연구원, 137~170쪽.(UCI : G704-001854.2013..53.005)
- 채구묵(2002),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학』 36(5). 한국사회학회, 143~169쪽.(UCI : G704-000205.2002.36.5.006)
- 한희진(2012), 「미셸 푸코의 파놉티시즘에서 인식, 권력, 윤리의 관계」, 『의철학연구』 12, 한국의철학회, 75~104쪽.(UCI : G704-SER000010480.2012.13..004)

3. 기타자료

- 「세민구역 문제로 광주부회 대파란」,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3일.
- 「깡패를 徵用하고 娼女를 귀향시켜라」, 『동아일보』, 1960년 1월 5일.
- 『여원』
- 『삼국사기』

| 국문초록 |

빈곤의 경험과 공간의 장소화

— 광주(光州) 학동(鶴洞) 사람들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

본 연구는 빈민들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 빈곤의 경험을 살펴본다. 광주광역시 학동은 일제강점기 ‘학강정 갱생지구’로 빈민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다. 학동은 해방 후에 해외에서 돌아온 전재민, 농촌 이주민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어서 확장되었다. 빈곤과 빈민은 타자적 인식을 기초한 이미지의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빈곤의 공간은 한 시대의 헤게모니를 지닌 집단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다. 빈민들 또한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과 굴절된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독해된다. 본 연구는 빈곤 공간의 주민들이 타자적 시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층위의 장소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학동 주민들이 보여준 장소성은 새로운 공간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빈곤, 구술생애담, 공간, 장소, 광주, 학동

광주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화*

Daein-dong in Gwangju : Formation and Transition of a Red Light District

추 주 희**
Choo, Joo-Hee

목 차

- | | |
|-------------------------|--------------------|
| I. 여는 글 | IV. 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의 삶 |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 V. 맺음말 |
| III.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화 | |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formation and transition of the Daein-dong's red light district, which is known as the oldest place in Gwangju. From the mid-1980s to the present, it was recognized as a typical sex shop space called 'window brothel.' However, the stigma of 'window brothel' or 'red light district' is overlooking the whole history of 'historical site of prostitution' in urban development history. The Daein-dong site is not the product of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since the 1960s. This space is closely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17S1A5B5A01025400)

이 연구는 2017년 광주광역시비영리단체 공익사업으로 진행된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언니네의 “성매매집결지문제, 다양한 시선에서 길을 찾다”의 조사를 기반으로 2017년도 전남대여성연구소·(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주관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으며, 이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전북대학교

related to the growth and enlargement of red light district in Gwangju in the early modern history. It is also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urban boundaries due to urbanization and population-growth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Regime.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geographical boundaries of the space where the prostitution center is located, focusing on formation and transition the Daein-dong's red light district. In addition, by analyzing women's spatial experience in the place of prostitution, it examines the position of prostitutes in urban space.

Key words : Red light district, Daein-dong in Gwangju,
Prostitution Space, Urban History

I. 여는 글

성매매집결지¹⁾는 성매매여성의 감금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공간이자 도시 내에서 성별화된 구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도시에서 전업형(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성매매집결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집결지의 성매매 문제 혹은 공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법에 의해 결국 폐쇄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성매매집결지가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만의 공간이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공간은 업주, 건물주, 토지주, 성판매여성, 지역주민, 지자체,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집결지라는 공간은 여성들에 의해 자연적이고 우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또 자연적으로 사라질 공간도 아니다.

성매매집결지는 근대화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경제적 수입의 원천이 되는 생활터전이었으며, 정보 수집의 장소이며 사회적 관계형성의 주된 장소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는 그 특성상 사회적 시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혹은 ‘성을 구매하는 자’의 시각에 의해서 규정되었다.²⁾ 따라서 성매매는 초역사적

1) 성매매집결지는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사창가’, ‘윤락가’, ‘집창촌’으로 불렸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인용된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를 차용하여 ‘사창가’, ‘집창촌’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론적으로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집결지는 다음과 같은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둘째 음주가무 등이 제공되지만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셋째 과거부터 지역사회에서 ‘사창가’, ‘창녀촌’, ‘홍등가’ 등으로 인지되는 지역, 마지막으로 그 이외에 현재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업소의 밀집지역으로 인지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여성인권지원센터 종이학(2006),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창가’, ‘집창촌’은 참고문헌이나 인용된 문헌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며, 공식적으로는 ‘성매매집결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인 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지만, 성구매자의 입장에서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 광주 대인동과 같은 도심내의 성매매집결지는 곧 사라지거나 없어질 공간처럼 인식된다. 오랫동안 도시 한가운데 있어왔고 현존하지만, 성매매집결지는 왜 이제 곧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 되는가? 성매매라는 여성 억압의 초역사성은 사회적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도시의 성장 속에서 성매매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설령 성매매는 초역사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역사적 시간을 관통했던 공간이 균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고려되거나 매우 '자연화된' 것으로 운색되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간과되었다.

'대인동집결지'는 매우 근대화된 산업 공간이며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과 밖,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공고하게 만든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들이 만든 경계라기보다는 성산업 생태계와 도시 공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대인동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유리방을 중심의 성매매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성매매집결지'라는 또 다른 전형적인 상(image)이 되었다. 그러나 '유리방'이라는 혹은 '홍등가'라는 이름붙이기의 과정은 도시공간의 변화과정에서 변화된 '성매매집결지'의 모습을 간과하는 것이다. 대인동집결지의 형성과정은 성매매집결지의 공간이 근대초기와 근대화과정에서 달라져왔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대인동 집결지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집결지'라는 매우 근대적이면서, 변종의 혹은 신종의 성산업체계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 형태임을 강조할 뿐이다. 대인동 성매매집결지가 실제로 사라지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다 오히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와 성매매 업소의 특성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2) 이주열(2008), 「집창촌 여성들의 이촌 의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23호, 87쪽.

인식이라 볼 수 있다.

광주의 성매매집결지는 대인동, 양동/월산동, 계림동, 송정동으로 총 4곳이지만, 대인동은 광주에서도 다른 성매매집결지에 비해 역사가 깊고, 그 역사를 함께 해온 주민들이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성거래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성매매공간과 달리 전업형이면서도, ‘유리방’과 거리 성매매의 일종인 ‘휘파리’가 혼합되어 성행중인 공간이기도 하다.³⁾ 그러나 성매매 영업형태의 변화와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역시 쇠퇴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과 개발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성매매 여성은 익숙한 장소를 떠나가도록 강제된다. 이제 성매매여성들의 현재를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고, 특정한 국면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우리는 현재 쇠퇴하고 있다고 믿는 혹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반대로 왜 아직까지도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도 성매매의 유형변화와 도시변화가 계속해서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성매매집결지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해온 여성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듣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자 실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에서 ‘비가시화’ 될 것을 요구 받은 여성들의 공간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집결지 장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서정우(2011), 「광주 대인동 “집창촌”의 “매춘”지리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4권 3호, 179쪽.

4) 원미혜(2014),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Trans-Humanities』, 제7권 2호, 235쪽.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서우석·안준희·맹기돈·윤나래·김수진(2016)의 연구는 도시 성매매 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그간의 선행연구를 사회사적인 접근으로서 성매매집결지 연구와 사회지리학적인 관점에 근거한 지역 사례별 성매매집결지의 분화 및 재구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두 유형의 연구 모두 도시 성매매 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사회사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의 구성/재구성 과정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성매매집결지 공간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탐색하면서 공간의 형성과정을 시계열적으로 탐색했다. 주로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 사례조사를 통해 문헌 고증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국가 정책 변화와 도시성장 과정이 미친 영향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변화의 궤적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⁵⁾ 대표적으로 오유석(2009)의 청량리 588에 관한 연구, 김희식(2012)의 인천 깃동과 옐로하우스에 관한 연구, 김희식·손일란(2014)의 대전의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의 현재 모습을 중심으로 성매매공간의 재구성을 보여준 대표적 연구로는 서정우(2011)와 서우석 외(2016)의 것이 있다. 서정우(2011)는 2010년의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낮과 밤을 관찰함으로써 도시 내의 성매매 공간의 특성과 성거레가 이뤄지는 과정의 지도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공간을 가시화해냈다. 서우석 외(2016)는 청량리 588 성매매집결지의 형성, 유지, 변화에 대해 사회사적 접근을 하면서도 동시에 공간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성매매여성과 지역민)의 사회적 실천의 의미도 분석하고 있다.

5) 서우석·안준희·맹기돈·윤나래·김수진(2016),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서울도시연구』, 제17권 3호, 118쪽.

한국 도시의 성매매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성매매 집결지내 여성들을 경험을 함께 다룬 여성주의적 연구가 있다. 신진영(2016)은 대구 자갈마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결지의 형성과 변화의 역사를 추적하면서도, 이 공간을 채우는 장소성을 성매매여성의 경험을 통해 재해석하고 있다. 이주열(2008)은 집창촌 여성들의 이촌 의향에 관해 분석하면서 누적된 집창촌 생활경험을 내면화하는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이 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성매매집결지라는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형성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의 특성과 그 공간 내의 여성 문화를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강경숙(2009)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지형을 살피면서 개발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삶과 경험을 가시화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는 성산업의 형태, 지역, 관행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도시에서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정은 국가 정책과 제도, 각 지역의 도시개발의 과정 속에서 구조적 동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사회적 맥락에서 지역 주민과 성매매여성, 도시와 성매매여성과의 관계, 성산업 생태계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집결지’의 형성과정과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다른 지역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집결지 공간 폐쇄와 기능 전환의 측면에서 성매매집결지의 도시재생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도시재생의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2015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에 시달하면서 더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또는 법적 변화뿐만 아니라 도시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서울 청량리 588 집창촌이 폐쇄되고 아파트 혹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 설 예정이며, 충남 아산의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은 사회적 기

업과 청년거리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성매매집결지의 공간이 도시 재생 또는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 쇠퇴에 대한 개입, 교통과 지가에 의한 시장경제의 논리 등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던 곳에서는 정책보고서가 일부 발간되기도 하였다.⁶⁾ 또한 정석재(2016)는 전주시 선미촌과 부산 완월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특징을 도출하고, 재생원인과 주체, 재생계획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성매매집결지의 도시재생이 성매매로 인한 지역 문제 해결과 성매매 지역이라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흐름에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⁷⁾

각 선행연구들의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도시 성매매 공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역사적 측면의 보완과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역사적 측면에서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지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서정우(2011)는 대인동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정을 주요 건물이나 시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광주지역의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하다. 유일하게 홍성철(2007)이 『유곽의 역사』에서 광주의 대인동은 일본 강점기 때 유곽에서 출발한 황금동과 달리 1940년대 초부터 대인동이 '집결지'로 발전했다는 언급만이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검토 없이 수용되고 있다. 여기서 홍성철은 당시 광주부(光州府)가 1941년 대인동에 부청사와 공회당 예정 부지를 지정하였으며, 사유지를 매수하였는데 1942년 기존 청사를 증축하는 수준에 그쳐 예정부지가 현재의 '집창촌'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왜 그 예정부지가 '집결지'로 변했으며,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유곽은 왜 사라졌는지 등

6) 박상필·임호·김형균·오재환·정경숙·정일지(2014),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방안』, 부산발전연구원을 참조하라.

7) 정석재(2016), 「집창촌 도시재생 유형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쪽.

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대인동성매매집결지의 탄생과 변화는 한 세기 동안의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나타났으며, 국가의 묵인과 관리의 체제 속에서 유지·강화되었음은 익숙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역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이해는 주류 여성주의 담론과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계획이라는 도시·개발담론에서 쉽게 사라져왔다.

이에 이 연구는 성매매집결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걸쳐 유지, 지속, 변형된 이 공간의 역사적 사실 자료가 더 풍부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면서, 광주지역 대인동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가려진 여성역사의 한 부분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인동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시기별 변화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자체, 경찰, 보건위생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사료와 (사)광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언니네(이하, 언니네)의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자료에 기반해 대인동집결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7년 광주광역시비영리단체 공익사업으로 진행된 (언니네의 “성매매집결지문제, 다양한 시선에서 길을 찾다”의 성매매여성 심층면접 조사를 활용하였다.⁸⁾ 성매매여성의 심

8) 2017년 언니네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광주 지역 시민 활동가와 함께 대인동 집결지를 걷고, 성매매와 공간에 대한 토론과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는 광주 지역의 성매매 여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인동 성매매집결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공무원, 성매매집결지를 조사하고 성매매피해 여성을 지원할 조례를 추진 중이었던 시의원들을 면접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집결지 인근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대인동에서 일했던 성매매여성들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의 특성상 여성들의 이동이 잦으며, 여성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물리적경제적 문제를 갖게 된다. 이에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심층면접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아닌 당시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언니네의 상담원이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층면접은 2017년 6월~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당시 상담소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진행하였다. 집결지에서의 생활 경험, 성매매유입의 경로, 탈성매매한 이후의 생활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진행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절차, 위험요소, 기밀 유지, 녹취 및 필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동의서 활용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표 1> 대인동집결지 경험 여성의 기본사항

순서	나이	성매매 경험형태	성매매 경험지역	면담 시 상황
A	40	유홍주점, 안마, 집결지, 클럽(외국인)	서울 미아리, 춘천, 동두천 대인동	현재 심터 거주하면서 자활지원센터에 나가고 있음. 건강상태 나쁨.
B	40	다방, 집결지, 오피스텔	전북, 광주 대인동, 부산 완월동	2015년 탈업 이후 최근까지 파산 진행하던 중 파산면책 됨.
C	40	집결지, 여관바리	평택, 파주 용주골, 광주 대인동	면접자는 최근 사건이 진행되면서 불안한 심리와 안정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음.
D	34	다방, 집결지	전남, 전북 일대 다방, 평택, 전주, 광주 대인동	2015년 탈업 상담 이후 여러번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 다이어트 약과 수면제를 많이 복용함.

연구참여자는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경험을 한 30~40대 여성들로,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집결지를 이동하며 생활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성매매 경험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 혹은 직전부터 성매매 업소 또는 집결지에 있었으며, 현재는 탈성매매를 한 상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폭력 피해, 경제적 착취와 부채, 약물중독 등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Ⅲ.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화

1. 유곽과 공창제시기: 1907년~1945년

1908년부터 황금동 학생회관 자리에 있던 기다무라(北村樓, 북촌루)와 서문 통에 이시무라(西村樓, 서촌루)라는 일류 요리점을 시작으로 1911년 5월 불로동(구 적십자병원)에 문을 연 ‘하루노야(춘내가)’라는 일본식 요정이 생겨났다. 1920년대에 일본식 요정이 9곳 정도 있었으며, 이후 하루노야가 시가지 외곽에서 안쪽 구시청 사거리(현 동구 남동)로 옮겼다.⁹⁾ 각 요리집에서는 기생들을 교육시켰으며, 기생 외 창기들은 서문 밖(부도정)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이 구역은 1916년 총감부령 제 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에 의해 ‘대좌부 영업지역’ 즉, ‘유곽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

대좌부 영업지역의 성매매업소는 고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지만, 성매매여성에게는 ‘감옥’과 같은 공간이었다. 당시 공창뿐 아니라 예기, 작부, 여급 등 성매매가 금지됐던 접객여성을 대상으로 거주제한과 성병검사가 실시되었다. 여성들이 대좌부영업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 20조에 의거해 ‘부모간호 및 치료요양을 위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었다.’¹⁰⁾ 1908년 발표된 「기생 단속령」과 「창기단속령」에 의해 기생은 ‘기예를 위업’으로 하고 창기는 ‘매음을 위업’으로 하는 것으로 예·창기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기생의 밀매음은 원천적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되었다. 1917년 광주면에서 작성한 『광

9) 이 일대는 1910년대 초기에 일제 군인들의 위안소인 가시다시키(유자)가 5개소 있었으며, 일본군인 외에도 학생, 일반인들도 유곽을 찾았다(『광주시보』, 1987.09.01일자). 일제강점기 고급 요정으로 황금동에 세워진 춘목암은 건평만 221평에 달했다고 한다. 이 요정 건물은 해방 후 미군 장교 회관으로 이용되다가, 1949년 6월 미국문화원이 된 후 1990년 5월 22일 헐렸다. 그 자리에는 지금 주차 빌딩이 세워졌다(김정동(2012), 『호남도시상권의 형성』, 대원사).

10) 박정애(2009),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흥업 억제정책과 조선 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7권, 192쪽.

주지방사정』에 따르면, 부도정을 유곽지역으로 한정하고, ‘예기(藝妓)’를 양육하는 요리점을 갑종이라고 하고, 서문 밖의 일체의 ‘작부’를 양육하는 요리점을 을종(乙種)이라고 칭하였다. 그날 ‘음식점’에서는 ‘일반여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과 상관없이 유곽에 가면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었고, 유곽 주변에도 꾸준히 밀매음이 존재했다. 기루(妓樓)로 송옥루, 복조루, 학집, 일본정, 신옥루, 고복루, 광주관 등이 있었으며, 이곳에는 22명의 창기가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일본인 고객을 상대했다. 조선인 기루(妓樓)로 서봉루, 서흥관이 있었지만 조선인 창기는 6~7명에 불과했다.¹¹⁾ 조선인 창기는 적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곽을 찾았다. 1908년 총장로 3가에는 2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노노매 여관이 등장했고¹²⁾, 이후 관청과 각종 상점들이 들어섰다.

1922년 광주역의 개통 이후 광주면 내 재조선 일본인 거주 인구도 증가하였다. 광주면 내 재조선 일본인 거주 인구는 1917년 2,569명(전체인구 1만 860명)에 불과했지만 1925년에는 4,178명(인구 2만 3,197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¹³⁾ 이 무렵 불노동 유곽에 기생공급을 위한 일본식 권번(券番)¹⁴⁾이 북문밖

11) 기타무라 유이치로(北村友一郎, 1917), 「광주지방사정(光州地方事情)」,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04) 편, 『일제강점기 光州文獻集』, 70쪽.

12) 김경수(2005), 『광주땅이야기』. 향지사, 289쪽.

13) 윤현석(2015), 「식민지 조선의 지방단체 광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3쪽; 김광우(2015), 「식민지 조선의 지방단체 광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2쪽.

14) 일본에서 기생, 창녀를 유숙시키면서 주문에 응해 출장, 매음을 하게 하는 오끼야(置獄)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으며, 화대 계산까지 맡게 된 관청을 겐방(原般)이라 했는데, ‘권번’은 겐방의 한국식 표기이다(임종국(1984), 『밤의 일제 침략사』, 한빛문화사, 20쪽, 정경운(2016) 재인용). 1916년 3월에 조선총독부는 경무총감부령 제1호 <숙옥영업취체규칙>, 제2호 <요리음식점영업취체규칙>, 제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제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발표한다. 이 법령을 통해 일제는 예기·창기·작부의 구분과 숙박소·요리점·음식점·대좌부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다. 이에 따르면, 예기(기생)는 요리점에서 접대를 하면서 기예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곳에서 숙박하거나 매음을 할 수 없는 한편, 창기들은 가무음곡이 금지되고 매춘 영업만을 허용하는 자로 규정된다.

에 생겼다. 광주권번의 존재는 유곽을 찾는 수요의 증가를 보여주며, 예창기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증명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매매관련 업자들 역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16년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에 의해 기생들도 창기와 같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생을 사실상 매음부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25년~1932년까지 수제와 기근이 심하였으며, 경제공황의 여파 속에서 기생들의 생존과 권번의 운영이 어려움이 극화되었다. 1932년에 광주권번에 속한 기생들 대부분이 퇴거하고 사실상 20여명 정도만 남게 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실제로 별이가 낮았던 기생들은 불법 행위였지만 밀매음을 지속하였고, 단속에 의해 이런 밀매음이 종종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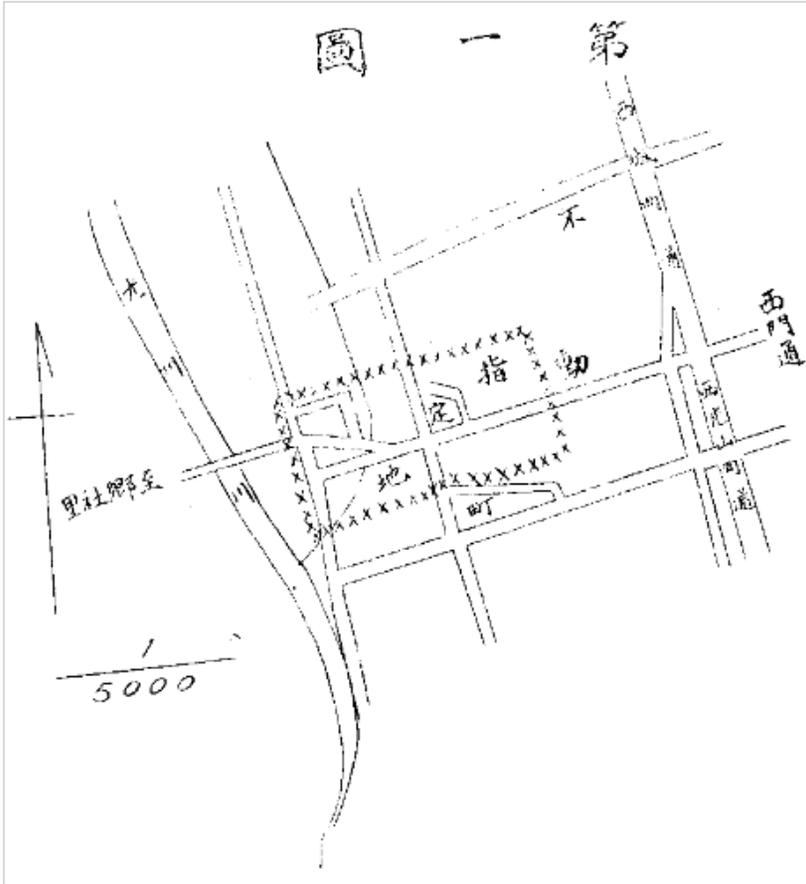
당시의 유곽은 도청, 경찰청, 광산군청 등 관청을 중심으로 1km동심원 내에 위치했었다(〈그림 1〉 참조). 도시 내에 유곽이 위치해 있었지만, 유곽들은 시가지 말단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광주천 건너편에는 일부 초막과 공원 부근 밭이 있는 등 사람들의 시선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지역이었다.¹⁷⁾ 그러나 1921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대광주건설계획〉의 기초에 근거해 1926년부터 3년 동안 광주천 도심구간의 하상을 굴착하고, 제방을 쌓아 광주천을 직강화하는 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 직강화 사업이외에도 면사무소 신축이전, 하수도 설치, 하천개수, 시장 정비 등이 이뤄지고, 금교 부근에서부터 양동시장까지의

창기·작부와의 구분을 통해 기생은 기예를 담당하는 집단으로 규정되긴 하지만, 창기들과 똑같이 보건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이 역설적인 위치가 일제강점기 기생의 자리였다. (정경운(2016), 「근대기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연구」, 『국학연구론총』 18권, 48쪽. 이하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으로 표기) 일제강점기에 광주지역에 존재했던 '광주권번' 운영방식의 변화과정은 정경운(2016),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을 참조하라.

15) 「지방잡신」, 『동아일보』, 1932.2.12일자.

16)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1992), 『광주시사』, 광주직할시, 280쪽; 정경운(2016),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50~53쪽.

17) 김종근(2017), 「일제강점 초기 유곽공간의 법적 구성 및 입지 특성」,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2호, 205쪽.



<그림 1> '대좌부영업 지정지역' 고시에 따른 광주 유곽

주: 위치는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부동정(전라남도 경무부 고시 제 18호 1916. 6.20.) 광주천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리는 금교, 금교는 일제초기 부동교라 불리다 1932년 부동교가 생기면서 금교로 이름을 바꿈. 현)우체국에서 금교로 가는 길목은 1980년대까지 '황금동 콜박스'로 불리는 불건전 향락업소가 즐비했다.

출처: 『조선총독부 관보』, 1916.08.22일자.

광주천의 폭을 좁혀 직선화하는 등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광주천이 직선화되고 일부 매립된 곳이 택지와 생활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이전에 있었던 시장을 정비하고, 새로 구획된, 시장, 상가, 운동장 등 시설용지 및 일반 대지를 분양하려했던 광주 최초의 (신)시가가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¹⁸⁾.

전남광주의 유곽은 시가증앙에 잇서 도 소재지로서나 우(又)는 오전명의 학교생도를 포용한 교육지로보아 풍기(風紀)상 조치 못함으로 당지(當地)유식간(有識間)에서는 일즉부터 이전(移轉)운동을 개시하였으나 종종(種種)의 실정에 관계가 되어 금일까지 실행치못하였던바 근래도당국(近來道黨)측에서는 이전속행(移轉速行)의 논의가 일어나 민간유력자(民間有力者)간과 양해(諒解)가 되었습므로 이전문제는 불원한 장래에 실현되리라더라.



자료: 동아일보(1926.10.15. 사회면). “광주유곽 불원(不遠)에 이전(移轉)?”
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검색: 2017년 9월 7일)

<사진 1> 광주 유곽 이전 요구 기사

그러나 이러한 시가지 개발은 광주천 일대에 주거용 움막을 치고 생활하던 도시빈민철거와 더불어 광주 유곽 이전을 더 본격화하였다. 유곽이전에 대한 광주민의 요구가 그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1920년대 이후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도시팽창과정에서 유곽 이전 자체가 불가피 했던 것이 주효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유곽이 사회문제화되고 전국적으로 공창폐지운동이 일어나면서, 유

18)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1995), 『광주시사』, 광주직할시, 246쪽; 정정운(2016), 「일제강점기 식민도시화 정책과 오일장 변화과정」, 『국학연구론총』, 제17권, 161쪽.

곽이전이 도시계획 내에서 구체화되었다. 유곽이전에 대한 요구는 도시가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초기 유곽지대의 입지가 '보이는 공간'으로 등장했을 때의 대응이기도 하다. 유곽이라는 비도덕적인 공간은 도심(시가지) 내의 교육적 공간과 대비되며 성도덕과 사회질서를 위해서 규제되어야 하는 공간임이 강조되었다. 동시에 유곽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서 도시의 끝자락 혹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지속되는 공간으로 요청되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은 교통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광주역은 전통적으로 화물보다는 여객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30년 광주와 여수간 철도가 놓이면서 화물량이 증가하였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여객중심이라는 광주역의 기본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광주~여수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주는 전남지역에서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¹⁹⁾ 당시 광주역을 건설하는 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역이 개설된 광주에 거주한 일본인이 약 2배 증가하였다. 1922년 광주역이 생긴 이후, '북문 밖'의 기생권번이 설립되고²⁰⁾, 광주역을 중심으로 철도개설을 위해 모여든 노동자들과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여관과 식당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났다. 도심 내의 유곽은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철도개설이 완료된 뒤에는 철도회사 직원들과 주변에 모여든 조선인들이 광주역 인근의 '북동 지역'의 주요 고객이 되었을 것이다.²¹⁾ 결국 광주역 근처에서 사창과 밀매음이 계속 이어졌으며, 이후 운

19)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2015), 『구성로 철도가 빚어낸 삶의 풍경』, 광주시립민속박물관, 67쪽.

20) 광주지역에서 '권번' 용어는 1920년대 중반과 1922년 중반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쓰인 '광주권번'은 남문 외에 있던 예기조합(이후 '광산 권번')과 이후 1925년에 설립된 북문 외 기생조합을 가르치는 '광주권번'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광주에 권번이 2개나 생겼다는 것은 그 만큼의 수요가 지역사회에서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정경운(2016),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53쪽.

21) 1922년 9월 기준, 광주역의 승차인원 7,519명, 하차인원 5,784명 발송화물 496톤, 도착화물 1,005톤에 이르렀다(「광주역객월업적」, 『동아일보』, 1922.09.09, 4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일대의 여관업과 함께 ‘사창’은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이 현재의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지역과 일치하기 보다는 ‘북문밖’으로 통칭되는 ‘역전통²²⁾’ 전반에 퍼져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역 일대가 도시화되면서 역전이라는 ‘공창’이 들어섰으며, 한때 120명의 인신매매여성들이 영업을 하는 적선(赤線)지대로 불리기도 하였다.²³⁾ ‘역전 공창’은 해방 이후에도 이 지역 일대를 ‘북동 골목’ 또는 ‘북동 공창’, ‘북동 쉬파리골목’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동’이라는 명칭은 옛 광주 읍성의 북문 바깥쪽을 지칭하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광주읍성의 북문은 현재 충장로 파출소 부근이나, 북문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광주일고 부근에 공북루(拱北樓)가 있었으며, 지금의 금남로 5가와 대인동의 일부 지역²⁴⁾을 ‘봉밖, 북문밖, 북문외’라고 불렀으며, 이후 이 지역일대를 북동이라고 칭하였다.²⁵⁾ 북동일대는 공창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북동공창’으로 불리면서, 유곽 이후 성매매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인동성매매집결지가 탄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주요한 계기는 부청사 및 공회당 신축이었다. 1935년 광주읍에서 광주부로 승

22) 통은 중심가나 통로를 뜻하는 일본말 ‘도오리(とおり[通り])’에서 온 말로, 옛 광주역 일대를 ‘역전통’이라고 불렀다.

23) 광주직할시동구 편(1994), 『동구통계연보』, 광주직할시동구, 415쪽.

24) 현 광주일고 학생탑 사거리 부근에 공북루가 있었으며, 누문(樓門) 앞 현 광주일고 북동쪽으로 향하여 현 광남로를 끼고 있던 마을이 ‘역촌’이었다고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누문 바로 옆 충장로변에 보통원(普通院)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광역시(1996), 『지도로 본 광주도시계획사』, 8쪽; 북문거리는 북문을 기준으로 다시 ‘북문안거리’와 북문바깥거리로 나뉘었다. 북문안거리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성내면에 속했고, 북문바깥거리는 공수방면과 기레방면에 속했다.(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2014), 『충장로의 역사와 삶』,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6쪽; 북문 바깥거리에는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동네도 많았다. 지금의 충장로 연변에 있던 마을로는 시리(市里), 중촌(中村)리, 보통(普通)리, 누문(樓門)리, 상촌리가 있었다. 보통리는 금남로 5가를 넘어 대인동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이 마을의 한자 표기는 마을 안에 있던 보통원(普通院)이란 주막에서 비롯됐다.(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2014), 같은 책, 35쪽)

25) 조강봉(2002), 『광주지역 지명의 유래 연구(2)』, 『우리말글』, 24호, 우리말글학회, 54쪽.

격 이후, 1939년 10월 조선총독부 고시 제 910호 광주시가지계획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결정되었으며, 당시 도시계획은 부청사 및 공회당의 신축을 염두에 두고 시가지 계획이 입안되었다. 부로의 승격은 세대 및 인구 증가와 함께 상공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시 행정체계에서 중요하였다. 계획에는 대인동 지역의 철도역(광주역)을 중흥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1941년 대인동의 ‘부청사 및 공회당예정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매수하고 그 중앙부에 위치한 도유지 293평을 북동의 부유지 500평과 교환처분하기로 하였으나, 1942년 일제 강점기의 도시계획은 전쟁 말기(1940~44년)에 점차 축소되었고, 신축하려던 청사도 개보수에 머물렀다. 시가지계획 관련 사업 대다수가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시가지 계획에서 가장 중요했던 계획도로 건설 이외에 변화 동향은 찾아 볼 수 없다.²⁶⁾ 도시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금남로 일대의 토지이용의 형태가 변하게 되었다. 광주역과 전남도청 간 도로개설과 더불어 광주의 도시화와 인구증가(1912년 5,432명에서 1930년 32,547명, 1944년에 82,431명)로 금남로 지역의 논밭이 점차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1939년경에는 대지로 전환되었다. 변환된 대지에는 새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도로도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놓이게 되었다.²⁷⁾ 따라서 홍성철(2007)이 고찰한 것처럼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된 ‘부청사’를 신축하려고 했던 공간이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로 변화한 것이기보다는 ‘시가지계획’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시 광주역 일대 퍼져 있던 성매매의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26) 광주광역시(2011), 『광주도시계획사』.

27) 조정규(2002),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편(2017), 『금남로, 중앙로의 역사와 삶』, 광주시립민속박물관, 85~118쪽.

2. 공창제 폐지와 '사창굴'의 형성: 1945년~1961년

광주부는 1937년 이 지역(부도정 유곽) 이전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식민지 통치가 끝나면서 도시계획은 중단되었다. 1945년 미군이 광주에 진주하였으며, 1949년 광주시로 개칭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1945년 83,000명이던 인구가 광복 직후 해외동포 귀환 등으로 인구가 최초 10만 명을 넘었다. 해방 이후 시외버스회사들이 설립되었는데, 『전남도정 40년사』에 따르면, 광주여객이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금남로 5가 183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버스운수업체들이 설립되었는데, 1947년 대인동 180번지(현 김승완 외과의원 자리)에 호남여객, 1948년 전남여객, 1954년 대인동 301번지 남일여객, 1956년 금남로 5가 178번지 남도여객이 운수업을 시작했다.²⁸⁾

광주여객정류장을 중심으로 '아가씨 집'이 생기더니 점차 사창가가 자리를 잡아갔다. 사창가의 위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금남로 5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곳을 '복동'이라 불렀다. 그래서 복동하면 광주 사창가를 떠올리는 지명이 됐다. 사창가 골목은 매우 좁고 길어서 지나가려면 수많은 매춘부의 후욕을 뿌리쳐야만 했다.²⁹⁾

28) 『전남도정 40년』과 일반인들이 증언하는 위치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광주상공회의소 1975년에 낸 <광주상공연감>에 수록된 버스회사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광성여객(대인동 312-19), 광신여객(대인동 31), 광일여객(대인동 31), 광우교통(대인동 5-3), 광주고속(금남로 5가 183), 수원여객(금남로 5가, 183), 광전교통(금남로 5가 166), 동방여객(금남로 5가 166), 중앙여객(대인동 324-5), 한일여객(충장로 5가 59-1)이다. 버스회사의 주소지는 정류장의 위치는 의미하지 않으며,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조사된 것이기에 그 이전 이후의 버스회사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 2015), 『구성로 철도가 빛어낸 삶의 풍경』, 광주시립민속박물관, 57쪽). 다만 당시 광주 구역을 중심으로 대인동과 금남로 5가 주변의 골목에 '쉬파리골목'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시외버스터미널 위치 변화와 주변 도시환경의 변화로 보다 더 확장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29) 『구성로 철도가 빛어낸 삶의 풍경』(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5)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구술 채록 가운데, 김두원 신경외과 원장의 면담내용이다. 김두원 원장은 1947년 금남로 5가

광주여객이 있었던 금남로 5가를 중심으로 터미널 근처의 선술집과 사창가가 발달했었으며, 공창이나 사창이라는 명칭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쉬파리골목이라 불렀다. 광주여객은 상무대의 영향으로 광주에서 비교적 빨리 운송업계에서 자리 잡았으며, 이후 금성여객을 흡수하면서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의 일부를 매입하고 회사가 확장되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과거 북동골목과 쉬파리골목 인근 성매매집결지의 상권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복 이후 1947년 남한지역에는 공창제폐지령이 내려졌지만 큰 실효성은 없었다. 폐창으로 여성들은 성매매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광주부 내에서 유사-接客업으로 직업을 바꾸었을 뿐이다. 남한지역의 공창제 폐지와 공창을 집단 수용하면서 옛 유곽은 공창에서 사창으로 바뀌었으며, 전쟁 시기에 미군들을 상대로 한 기지촌 영업을 시작해 황금동의 '콜박스'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였다.³⁰⁾

1947년 10월 후생국 후생과내에 부녀계가 설치되었는데, 부녀계의 초창기 사업은 공창폐지에 따른 선도책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1947년 10월 기준 전라남도의 공창수는 19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947년 10월 13일 공창폐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48년 2월 14일 공창폐지법이 실시되면서 당시 도내의 보건위생계에서 포주좌담회, 공창폐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시 부녀계에서 공창폐지대책위와의 협력을 통해 1948년 2월 '윤락여성' 96명을 광주부내 전남방직공장에 집단수용시키기도 했다.³¹⁾ 1947년 10월 전국 공창수는 2,214명이며, 광주는 58명이었으며, 공창 대부분 부동정의 유곽의 여성들로 알려져 있다.³²⁾

101번지에 신경외과를 개원하였으며, 당시 병원 건너편에는 광주여객버스정류장이 있었다(129쪽).

30) 홍성철(2008),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72~273쪽.

31) 보건사회부 편(1987), 『부녀행정40년사』, 보건사회부, 514~515쪽.

32) 보건사회부 편(1987), 같은 책, 59쪽; 광주광역시 편(2000), 『광주여성발전사』, 광주광역시

그러나 집단수용된 여성들의 탈출과 사창굴로의 재유입은 당시 부녀계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광주에서 이뤄진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자 실시한 여성 구제정책도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 오히려 일제의 도시계획의 잔재와 도시화, 교통의 영향으로 대인동에서 광주대교에 이르는 이른바 역전통(오늘날의 구성로)이라는 거리를 만들어냈으며, 그 거리에는 수많은 시외버스정류장, 농약상, 약종상, 약국, 여관 등 광주역을 정점으로 하여 이 거리에 밀집해 있었다.

금남로 5가 1번지와 현재의 대인동 일대가 성매매집결지로서 언급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의 신문기사(사진 2)이다. 기사에는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광주에서 성매매가 일시적으로 사라졌으나, 시내 주변에 남아있던 “밀음굴” 1956년 이후 다시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언론에서 지목하는 광주에서 ‘가장 집단적인 소굴’ 또는 ‘밀음굴’로 지칭되는 지역은 금남로 5가의 하숙옥으로 성매매업소라기 보다는 여인숙이나 하숙집이었다. 이 공간은 성매매 중 ‘여관발이’ 형태가 성업을 이뤘다.³³⁾

‘광주의 밤거리’에 대한 1958년 동아일보 기사 역시 당시 광주역(대인동과 금남로 5가 사이) 일대³⁴⁾의 밤문화와 성매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광주역 일대를 보고 “풍기문란의 고장”이란 인상을 받았다는 아래의 기사는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 사창굴이 증가하게 된 배경들을 서술한다.

시, 262쪽.

- 33) 1957년 밤 11시 반경 대인동하숙옥과 충장로 5가 인근의 하숙고용인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충장로5가 노상에서 호객행위 중 발생한 사고였다(『경향신문』, 1957. 07.17). 또한 1959년에는 금남로5가 1번지의 하숙집 주인이 젊은 여성에게 강제로 ‘매음’ 행위를 강요하다 뜻대로 되지 않아 여성을 감금하고 강제식모살이를 시킨 보도가 있다(『동아일보』, 1959.11.11).
- 34) 1946년 대인동은 일제강점기때 대정(大正)정에서 비롯됐고, 명치정(明治町) 5정목(丁目)을 금남로 5가(정충신 장군의 군호)로 각각 바뀌었다. 당시 대인동과 금남로 5가 동을 합해 행정구역상 1957년 대금동으로 칭하였다.



자료: 경향신문, (1956년 6월8일자) 사회 3면 “매춘부 다시 준동, 강력단속이 시급”
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검색: 2017년 9월 7일)

<사진 2> 금남로 5가 매춘부 단속 요구 신문기사

어느 역 앞치고 여관안내소녀이 없는 곳은 없지만, 광주는 유난히도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도시와 다른 것은 “색시 있는 하숙을 가자”는 안내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 광주는 상무대가 설치되는 바람에 군인도시로서 근자에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단적인 예가 2년 전 만해도 시내에 극장은 두 군데 뿐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8개 극장(준공을 목전에 둔 1개 극장 포함)으로 급작스레 수요가 늘었다(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요). 그리고 밤마다 관객은 극장에 들 끊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군인들로 극장마다 초만원의 혼잡을 이룬다. ... 이러한 변화의 뒤에 역시 어딘가 불건전한 병폐가 깃들어 있을 것 만 같다. 광주엔 공식으로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여관과 하숙이 88개소(대부분 하숙)이지만, 간판 없는 비공식 하숙집은 300집도 넘는다고 한다. 간판이 있든 없든 이들 하숙집의 거의 전부가 역전 계림동과 북동 일대에 밀집하여 있는 데 이 모든 하숙집에선 한마디만 떨어지면 3분 내에 얼마든지 여자가 온다고 한다. 이들 하숙은 전부가 사창굴이라고 한 것이다. 유달리 사창이 많은 것은 막대한 수요의 군인 주둔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 인육시장에 들 끊고 있는 윤락의 여자가 천명이상의 많은 수요에 오르고 있다는 점만은 아니다 ... (중략) 광주시에서는 다방 레지 44명을 비롯해, 카바레에 종사하는 댄서 28명, 각종 요식업에 종사하는

집대부 250명, 총검진자 85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10월) 말까지 일제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질, 매독 등 각종 성병에 감염되어 있는 자가응진자의 70%(505명)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강조는 필자).³⁵⁾(동아일보, 1958년 11월 24일 기획/연재)

‘사창굴’ 즉 성매매 공간의 급격한 증가는 무엇보다 상무대 군인에 따른 수요적 측면이 주요했다. 상무대는 1952년 1월 육군 교육시설로 육군의 장교, 부사관, 병사 교육을 담당하며, 광주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보병, 공병, 통신, 포병학교 등 육군교육시설을 하나로 묶어 ‘상무대’라 부르기 시작한다. 1952년 5월에 기갑학교, 1957년 7월 항공학교, 1958년 9월 화학학교가 창설되면서 군사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며, 광주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장병들과 주말마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오는 장병들로 광주지역경제가 움직였다.³⁶⁾ “상무대의 군인들은 광주의 주요 소비자이자 고객이었다. 월간 3억이란 돈이 상무대로 쏟아져 소비도시인 광주시가 유지되었다.”³⁷⁾

위 기사의 필자는 상무대의 매춘 수요 뿐 아니라 실제로 도시가 팽창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매춘 여성도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전쟁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농촌에서 가난을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도시이주 등 인구 유입으로 나타난 주택과 식량부족 등으로 빈곤계층이 빠르게 증가하였다.³⁸⁾ 오랜 식민정체

35) 1955년 이전까지 광주에는 광주극장과 동방극장 단 두 개의 상설 극장만 존재하였는데, 50년대 중반 이후 새로이 6개의 극장이 나타나게 된다. 신영극장(이후 대한극장)은 1954년, 남도극장 1956년, 태평극장 1957년, 천일극장, 계림극장, 중앙극장 1958년에 개관하였다.(위경혜(2005), 『광주의 극장문화사』, 다지리, 42쪽.)

36) 박선홍(2012), 『광주1백년-1』, 심미안, 82쪽.

37) 당시의 기사는 군사쿠테타 이후 전국 촌락과 도시에서 질서가 바로 잡히고, 재건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속에 짧게 등장한 광주는 상무대의 군인들 덕분에 소비도시가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군인들의 탈선과 행패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공연한 불평은 않고..」, 『경향신문』, 1961.07.27, 1면 정치).

38) 한신애(2001), 「광주지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일제강점기부터 고도성장기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61쪽.

과 수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생활고에 시달린 농촌여성의 도시 이주 역시 성매매 여성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1960년 사이 금남로 5가와 대인동 일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집 단적인 성매매집결지로 성장하였다.

3. 특정지역 선포와 관리: 1962년~1979년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민주당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패와 구약의 일소 전략을 구사했다.³⁹⁾ 1961년 윤방법(법률 제 771호)이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기 어려웠으며 5개월 후 묵인해온 사창의 허용을 골자로 한 선도대책을 발표했다. 1962년 4월 9일 “전국 ‘윤락’여성보호특정지역설치안”을 마련하고, 2개월 후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특정지역’을 전국 104개소를 설치했다. 당시 전라남도에는 3곳이 포함되었으며 광주 대인동(1962.5.5), 여수 교동(1962.2.10), 목포 만호동(1962.5.30)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 특정지역 수용인원은 392명으로 집계되었다.⁴⁰⁾ 그 후 1965년 광산군 송정읍에 1개소를 증설하여 3개시와 1개 군에 1개씩 특정지역이 설치되었다. 당시 집계에 따르면 성매매여성은 약 900여명이었으나 1969년에는 706명으로 감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이후 특정지역 또는 집단 거주 지역에서 벗어나 주점가와 여인숙 등으로 확산되면서 1980년부터는 비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황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특정지역은 공창제도와 유사한 조치였다. 특정지역은 성매매 행위 일체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군사정권은 일본이 전후 공창제도를 폐지 이후 적선(赤線)지대 설정 정책을 차용했다. 당시 언론에는 특정지역 설정의 이유가 ‘윤락’여성의 근절이 어렵고 주택가까지 스며들어 음성화된다는 점

39) 신희식(2015),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3쪽.

40) 신희식(2015), 같은 논문, 124쪽.

에서 특정지역 설정을 통해 성매매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지역 설치와 함께 부녀보호지도서가 설립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일으켰다.⁴¹⁾

『광주 YWCA 70년사』에 따르면, 1962년에 전라남도에서 위탁한 윤락녀 구호사업을 YWCA 복지사업 위원회인 ‘계명여사’에 위탁하였으며, YWCA는 양림동 선교사촌의 빈 선교관(양림동 108번지)을 빌려 선도사업을 시작하였다. 1962년 첫 개소에 45명, 1963년 6월에는 183명이 수용되면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졌으나 1968년 이후 계명여사는 윤락여성 선도사업에서 빈민여성 기술교육사업으로 전환 운영하였다. 설립초기 무단탈출자가 43%였으며, 선도된 사람(결혼, 귀가, 취직)이 16%, 계속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41%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교육 이후 지역 내 관청에 취업한 여성들이 계명출신의 윤락녀라는 사실로 채용이 보류 되는 등 지역에서 ‘윤락녀’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점차 계명여사에 입소하는 윤락여성의 수가 감소하였고, 1967년 이후 전남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이촌향도한 미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계명여사는 당시 중요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출여성 보호기관으로 전환되었다.⁴²⁾

분명한 점은 도심에서 산재하고 있던 ‘사창굴’이 특정지역의 선포로 성매매 집결지 형태로 결집되었다는 점이다. 특정지역의 문제는 당시에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나, 성매매여성들을 위협하고 비정상적이며 이들을 일정지역에 집결시켜 집단화해 관리 계도해야 한다는 명분은 유지되었다. 특정지역 선포는 도시 속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제도적으로 공인되는 것이었다.

1968년에 광주역이 북구 중흥동으로 이전을 계획하면서, 기차역 부지에 동일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특정지역이 된 대인동 일대는 광주역의

41) 신희식(2015), 앞의 논문, 124~125쪽.

42) 광주YWCA70년사편집위원회(1992), 『광주YWCA70년사(1922-1992)』, 광주YWCA, 333~336쪽.

이전에도 불구하고 여관업과 성매매 공간으로서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당시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증가에 못 미치는 주택보급으로 여관과 같은 공간은 도시 빈민에게 또 다른 생활의 공간이 되었다. 여관과 여인숙은 오히려 대인동 일대에 더 확산되는데, 이는 공영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의 발달 때문이었다. 도심 내 협소한 도로와 시외버스정류장의 난립으로 금남로 일대는 교통 문제가 심각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모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1975년 도내 시외버스운수사업자협약에서 결의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연이은 가뭄으로 세수입이 감소했고, 1973년에 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감소했다. 그 결과 시외버스공영정류장은 순환도로 계획선 근처로 옮기려던 당초 도시계획과 달리 원도심의 끝자락인 대인동에 생기게 되었다.⁴³⁾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은 5,3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이 3,200평 규모였다. 이 건물 안에 광주고속을 비롯한 16개 시외버스회사 사무실이 있었으며, 대합실 규모는 8백 50평이었다. 광주 시내를 드나드는 1,434회선의 모든 시외버스들이 이용하였으며 하루 3만 2천명의 승객을 시외로 내보냈고, 약 32개 개찰구에서 6만여 명의 승객이 승하차했다.⁴⁴⁾

광주역은 이전했지만 여전히 교통의 중심지였던 대인동은 칠팔십년대에 성업을 이루었다(〈사진 3〉참조). 1970년대 초 금남로 5가는 버스정류장이 입지한 이후 여관 및 여인숙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1970년대 중반에 여관 및 여인숙은 29개로, 1980년대에 30개 등으로 증가했다.⁴⁵⁾ 1980년대 이전까지 대인동 일대의 성매매 공간은 현재의 성매매집결지 위치 아래쪽으로, 대인동과 북동

43) 대금동 183번지의 현 흥국생명자리에 있던 광주여객, 90번지에 있던 전남여객, 342번지인 소방서 터에 있던 중앙여객을 모아 대인동 7번지로 이전, 1976년 9월부터 사용개시하였다. 『광주동구백서』(1994), 415쪽.)

44) 「전국버스터미널 이래도 될까」, 『동아일보』, 1977.02.14, 6면 사회.

45) 조정규(2002), 앞의 논문, 166쪽.



주: 1970년대 중앙여객정류
장. 현재 광주동부소방서(당
시 광주소방서) 옆에 위치함
출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7)

주: 1970년대 전남여객정류
장. 지금 대인동 31번지 일
대에 있었음
출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7)

주: 1980년대 시외버스공용
터미널. 대인동에 1976년 9
월 16일 부터 시외버스가 합
동으로 사용하였으나, 1992
년 광천동으로 이전
출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7)

<사진 3> 1970-80년대 광주 대인동 및 금남로 일대 주요 여객정류장

일부를 의미했다. 이곳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던 위치를 둘러싸고 골목 곳곳에 있었다. 골목 간길에 여관골목이 번성하고, 여관 및 여인숙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졌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영역은 점차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공간을 벗어나 이행하고 있었다.

4. '황금동'의 쇠퇴와 대인동 집결지의 '변화' : 1980년~2004년

일본강점기 유곽에서부터 발달한 황금동⁴⁶⁾은 6.25 이후 '스탠드바'를 중심으

46) 황금동은 1952년 불로동, 황금동, 호남동 세 개동을 합하여 삼성(三成)동으로 칭하였다. 삼성동은 황금동 쿨박스를 중심으로 한 유흥주점 밀집지역으로, 한때 '황금동쿨박스'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후기 서문이 있었으며, 화원정(花園町)으로 불리기도 하였데, 호남동 일대의 기생이 많은 요정이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광주시보』, 1987.09.01, 4면). 광주시 동구통계연보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 지역 일대의 일반유흥음식점은 60~70여개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1990년대 중반에 단란주점이 30여개 생기면서 잠시 유흥음식점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로 이마저도 지

로 성장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유흥주점이 130여 개소, 여자종업원은 약 700여명 정도로 번창하기도 하였다.⁴⁷⁾ 이 시기 황금동은 불건전 향락업소 밀집지역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1973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이 꾸준히 진행된다.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이후 이 지역의 업소들은 유지되기 어려웠다. 당시 광주시 동구 황금동 80번지에 위치해 있던 광주미국문화원은 그 이후 일곱 차례나 불타거나 화염병 기습을 받는 등 폐쇄가 거론되었으며, 89년에 잠정 폐쇄된 이후 90년 5월에 철거되었다. 더불어 1980년대 중심업무지역이 확대되면서 양복점, 양장점, 전자대리점, 일반 대중음식점들이 들어섰다. 1985년 이후 충장로 일대가 재편되었는데, 전통적인 유흥가였던 충장로는 패션의 거리로, 술집골목으로 통했던 황금동은 양복점가로 바뀌었다. 황금동에 밀집해 있던 대포집들은 광주천변의 학동 등 외곽으로 이전했다. 1987년 황금동에는 약 21개소의 주점과 여종업원 40여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1990년대 초 심야 퇴폐업소단속으로 휴폐업이 증가했다.⁴⁸⁾ 이후 황금동은 현재의 충장로와 비슷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⁴⁹⁾

5·18 민주항쟁 이후 1980년대에는 광주 시내 일대에서 시위가 지속되었다. 주요 일간지와 신문에서 성매매나 ‘집창촌’에 관한 기사는 찾기 힘들었다. 198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일곱 차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47) 「洞어제와 오늘, 由來를 찾아서」, 『광주시보』, 1987.09.01, 4면.

48) 전남도경에서 1990년에 범인성도심환경정화계획(犯因性都心環境淨化計劃)을 실시하였다. 광주의 중심가인 충장로와 황금동 일대 청소년통금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당시 이 계획을 발표하자 이 일대 상인들이 “영업에 치명타를 준다”며 반대하였으며, 21개 조직폭력배가 반발하기도 하였다. 전남도경은 충장로 1~3가와 황금동 일대 0.82km²의 좁은 면적에 오락실, 술집, 카페, 디스코홀 등 환경업소가 3백 34곳이나 밀집돼 있는데가接客업소 주변에 기생하는 조직폭력배로 충장OB파 등 8백 89명이나 상주해 있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정건조(1990), 「광주 〈유흥가청소년통금〉 시민성원에 경찰희석」, 『경향신문』, 02.21, 13면 사회).

49) 강충식(1986), 「韓國新圖(1) 광주직할시편」, 『경향신문』, 11.03, 9면 사회.

의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다(<표 2>). 이 시기 실태조사는 특정지역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유흥접객업소, 간이주점, 주택가 등지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현황 파악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 시기 성매매는 기존의 ‘여관발이’와 같은 형태에서 유흥접객업이나 간이주점에서 행해지는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당시 실태조사의 주 대상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신안 등 6개소의 800여명 여성들이었다. 성매매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당시 전라남도에서는 ‘역

<표 2> 1980년대 전라남도 윤락여성 실태조사개요 및 현황

일시	조사명	조사대상 및 인원	조사자	조사내용
1980.05.16	비특정지역현황파악	5개소(800명)	시군 부녀담당	• 현황 및 실태조사
1980.07.07.~31	요보호여성실태조사	27개소(1,100명)	시군 부녀상담원	• 형태별 의식구조 및 생활수준
1980.12.02	윤락가실태파악	6개소(484명)	시군 사회과장	• 윤락여성들이 주택가로 확산되어 매음행위를 하는 실태조사
1981.08.05~08	집단지역실태조사	354명	시군	• 윤락우려여성, 유흥접객 업소종사자 실태조사
1983.08.29~31	윤락여성선도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	5개소(753명)	도	• 교육 및 검진실태, 가출 여성실태 및 인신매매 여부
1983.11.21~31	윤락여성실태파악	5개소(822명)	시군	• 윤락여성실태현황
1984.09.05	윤락여성실태조사	6개소(682명)	도	• 집단지역 내의 생활 근 거지, 연령별 학력별 지 출 및 수입, 채무액, 유 흥접객업소종사자 교육, 윤락가 현황

출처: 보건사회부(1987)

전 우범지역', '공단지역' 등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하고, 시군당 1개소씩 28개의 임시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했다.⁵⁰⁾ 그러나 당시 전라남도에서는 예방 및 선도사업 등 '갱생전환'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했고, '문제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기술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전라남도는 성매매여성들이 특정지역 이외의 공간인 유흥접객업소, 간이주점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점차 성매매가 직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선도가 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비 특정지역의 성매매 확산과 성매매를 직업화하는 여성의 증가는 특정지역에서의 성매매 성장과 또 다른 성매매 유형의 등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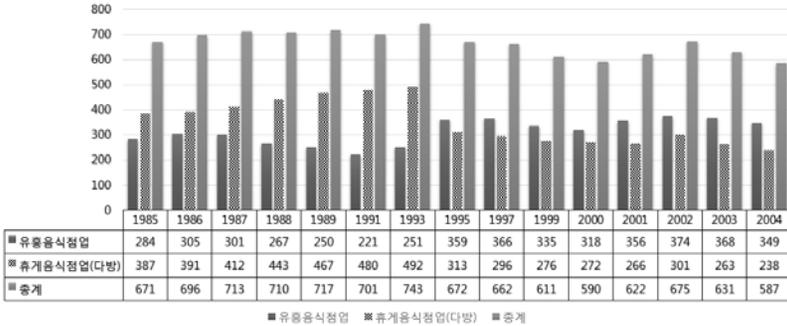
대인동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도 '유흥여성집중촌지구'라는 이름으로 특정지역이 유지되었다. 오히려 1980년대 기획단속(2번의 올림픽)이 사라지면서 성매매업계의 호황이 지속되었다. 성매매공간을 폐쇄하려는 움직임 대신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온존하는 정책이 펼쳐지면서 '집단수용형태의 강제유흥'(지금의 집결지)이 크게 증가하였다.⁵¹⁾

식품접객업소의 변화추이는 성매매 형태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간이주점의 양성화화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광주동구통계연보 1호(1991년)에 식품접객업소현황에는 1986년에 간이주점 278개소가 파악되어 있다.⁵²⁾ 양성화된 간이주점이 일반유흥음식점으로 통합되면서 1985년 이후부터 식품접객

50) 보건사회부(1987), 앞의 책, 516-517쪽.

51) 김희식(2015), 앞의 논문, 173쪽.

52) 보건사회부는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서 특정지역 내 허가 억제조치 및 건축법등으로 무허가로 영업해오고 있는 시설규모 10평 미만의 간이음식점 및 주점에 대해 신규영업허가가 이뤄졌다. 간이주점은 접객부를 두고 주류를 판매한다. 1980년 10월 6일 「무허가식품접객업소 양성화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15,000여개가 등록을 받아 양성화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간이주점의 허가와 등록조치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면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광주동구통계연보에는 1986년만 간이주점 278개소가 파악되어 있으며, 일반유흥음식점은 27개소에 불과하다. 1987년부터는 간이주점이 양성화되어 일반유흥음식점에 통합되어 파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 : 광주동구통계연보, 각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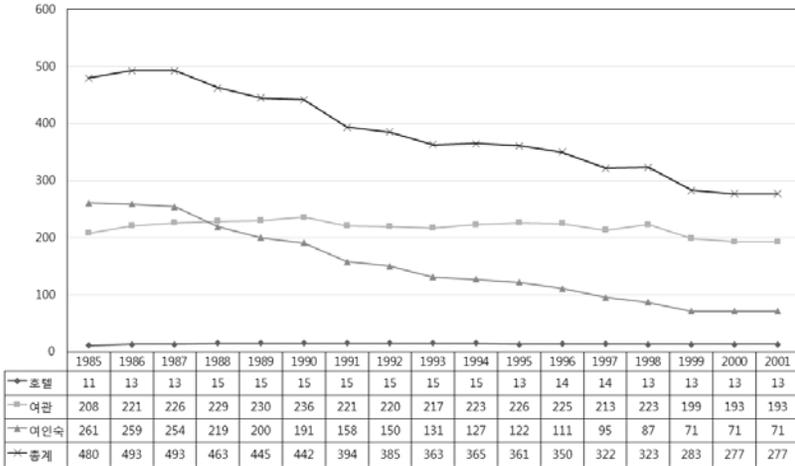
<그림 2> 광주시 동구 식품점객업소 연도별 추이(단위: 개소)

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를 중심으로 겸업형 성매매⁵³⁾가 성장하였다.

대인동도 유리방 형태로 개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휴게음식점업인 다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⁵⁴⁾ 겸업형 성매매는 기존의 전업형 성매매와 달리 다양한 업종을 통해 성장 발전한다. 따라서 광주동구의 숙박업 추이를 통해 대인동 일대의 성매매집결지 역시 1980년대 이전의 ‘여관밭’이라고 불리는 성매매형태가 점차 감소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유리방 및 겸업형 성매매로의 전환을 통해 대인동 일대의 여관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

53) 겸업형 성매매는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하거나 알선한다. 성매매는 업소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내의 밀실이나 업소 밖의 숙박업소와 연계하여 이뤄진다. 업소의 형태는 식품점객업소(다방, 카페, 레스토랑, 인삼 찻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방석집, 가요주점, 룸싸롱, 외국인 관광클럽), 공중위생업소(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마사지업소, 풍속영업관련업소(노래방, 무도학원 및 무도장)을 들 수 있다.

54) 동구통계연보(1992)에서 동구내 각 지역별 식품점객업소현황이 제시된 것은 1992년부터다. 당시 총 480개의 다방 가운데 대금동 89개소, 충금동(충장로, 금남로) 69개소, 대의동(궁동, 장동) 37개소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료: 광주동구통계연보, 각 연도별

<그림 3> 광주시 동구 숙박업 추이(단위: 개소)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광주시정백서」에 기재된 성매매집결지역은 두 곳이었다. 광주시는 동구 대인동 75번지 일대와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 일대를 ‘특정지역’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광주시는 당시 요보호자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으로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이 두 곳 방문을 통해 주기적인 검진, 저축권장, 전업제도, 고정상담 등 선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정지역에 있는 여성 현황도 파악하고 있었다. 현황 파악이 이뤄진 이 시기 동안 특정지역 내 성매매여성의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1996년 송정동 기지촌의 일시적 급증을 제외하고는 대략 70여명의 여성들이 집결지에 있었다.

55) 광주의 시정백서는 1989년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1989년과 1990년 백서는 ‘윤락여성’ 상담현황만 있으며, 성매매특정지역에 대한 현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1년부터 1998년 백서까지만 특정지역으로 대인동 75번지와 송정동 1003번지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

<표 3> 90년대 광주 특정지역(송정동, 대인동) 성매매여성 현황 추이

(단위: 명/개)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대인동 여성수	54명	45명	38명	30명	29명	27명	33명	33명 (13개)
송정동 여성수 (원동 7명)	49명	31명	30명	42명	35명	37명	77명	77명 (21개)
합 계	110명	76명	68명	72명	64명	64명	110명	1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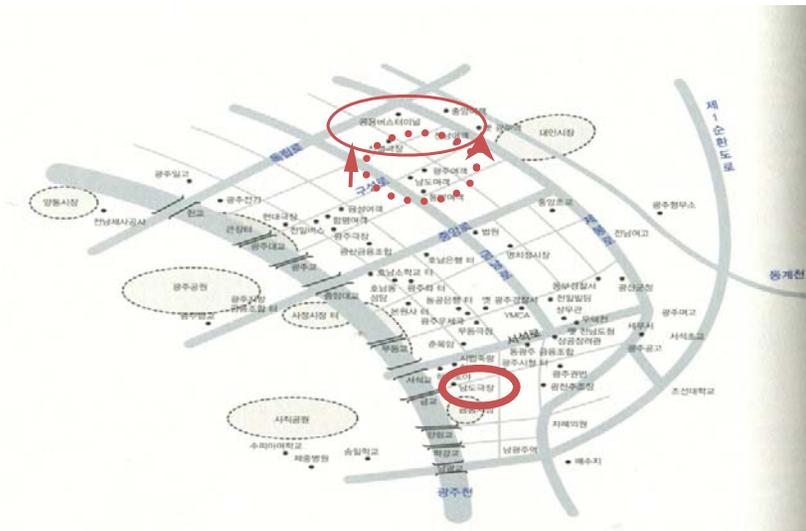
자료 : 광주 시정백서(각년도별)

1992년 이후 대인동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급감했다. 대인동이 199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누렸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자가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심의 교통혼잡과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 광천동으로 1992년 버스터미널이 이전하였으며, 1998년 백화점이 건립되면서 대인동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⁵⁶⁾ 또한 1997년에는 청소년 통금구역이 만들어지는데,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는 시행준칙을 마련했다. 당시 준칙 자체는 강제규정이 아니었지만, 위반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졌다. 1991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광주는 금동, 황금동, 충장로, 충금동, 학동, 대인동, 송정동 등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광주시정백서」에 기재된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여성인구의 감소 이유 중 하나는 1990년대 말까지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지역을 현재의 집결지 지역(롯데백화점 인근)이

56) 1997년 광주은행 본점이 현 위치(현 롯데백화점)로 이전하였고, 1990년대 초는 금남로 5가의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금남전자상가가 입지함으로써 금남로 일대가 컴퓨터 관련 업종으로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관련 업체가 84개로 급증하였고, 여관 및 여인숙은 14개로 감소하였다. (조정규(2002), 앞의 논문, 156쪽.)

아니라 광주 동부소방서 앞쪽의 구성로 골목을 중심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황조사가 1998년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기 전까지 전업형(전통형) 성매매가 성업을 이뤘던 ‘뒷골목 한옥촌’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호황기를 누린 대인동은 1990년대 도시팽창과 정부정책의 변화, 성매매형태의 변화로 전업형의 ‘집결지’ 규모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변화하고 있던 성매매영업의 형태 등으로 인해 과거 전통형(전업형)성매매 지역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그림 4>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위치변화

주: “광주의 옛터와 다리(교량) 위치도”로 70-80년대 공용버스터미널과 옛광주역 터가 표기되어 있으며, 그림 중앙 상단의 점선(금남로 5가 일대)에서 실선으로 집결지가 50년대 이후의 위치이며, 90년대부터 점차 점선 위쪽까지 확장 변경되었다. 아래 굵은 실선 표기 지역이 유곽의 위치임

자료: 광주시립민속박물관(2007)

따라서 1960년대 등장한 ‘특정지역’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 ‘여관발이’라는 전통적인 성매매형태와 공존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겸업형 성매매의 형태와 더불어 성매매집결지의 공간은 변형되고 있었다. 1990년 말 이후, 성매매 형태와 별개로 대인동의 입지 조건이 변화하면서 성매매집결지의 쇠퇴 증후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성매매 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현재의 대인동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2003년 성매매업소는 34개소이다. 한 업소당 최소 3~5명의 성매매여성이 있으며 최소 100여명의 여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것은 비등록업소와 비정기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최소 수치일 뿐이다.

5. 성매매집결지의 쇠퇴와 현재: 2005년부터 현재

대인동의 현재는 과거에 비해 등록된 업소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든 추세이지만, 유흥업소 및 비등록 형태의 휘파리 영업 또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일간베스트 저장소,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 사창가 유흥정보’ 혹은 ‘빡춘 공식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 집창촌이 지니던 은밀한 성격에 비해 오늘날 성매매 집결지는 온라인에 노출됨으로써 수요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성매매 정보가 구체화됨으로써 홍보효과를 얻기도 한다.⁵⁷⁾

대인동집결지는 대략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일 평균 9시간 영업을 하며,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 계절에는 조금 더 일찍 고객 행위가 이뤄진다. 휘파리의 경우 22시 이후 출현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그보다 일찍 나오기도 한다. 영업 및 고객행위시간은 백화점 폐점시간(저녁 8시 30분)과 겹치지 않지만, 백

57) 서우석 외(2016), 앞의 논문, 117~142쪽.

<표 4> 2010년대 성매매집결지 대인동 업소 및 성매매종사여성 수

(단위: 개소, 명)

구 분	범시행전 (당초)	'10.1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
업소수	34	28 (24)	39 (19)	35 (19)	36 (18)	36 (11)	29 (15)	24 (11)	17 (8)
여성수	-	94	118	115	94	94	74	80	60~70

주: 괄호는 휘파리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가리킨다. 대인동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업소와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로 나뉜다.

자료: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총회자료집(2016)

화점 내 영화관 폐점시간은 12시까지여서 백화점 주변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특별단속이 이뤄지기도 한다.⁵⁸⁾ 한달 평균 4일 정도 휴무하며 주로 20~40대 연령층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1인당 하루 평균 성구매자 수는 5명으로, 많을 때는 1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성구매자의 주 연령층 20~30대의 직장인이나 대학생 남성들이었으며, 성구매자는 내국인 이외에도 동남아인, 미국계인 등 외국인 등도 다수이다.

2014년 휘파리 영업을 하던 오래된 한옥들이 철거되었으며, 일부 건물 자리에는 주차장으로 바뀌었다.⁵⁹⁾ 2015년 이후 업소가 크게 줄었다. 2017년 4월 기준 대인동 집중 단속이후 유리방 형태의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고 불을 켜지 않은 채 휘파리 영업만을 하고 있다.⁶⁰⁾

최근 대인동 일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일부 업소는 원룸형 빌라로 재건축되었다. 현재는 금남로 5가 우의은행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34층 규모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인동

58) 「경찰, 대인동 사창가 특별단속 나선다」, 『광주매일신문』, 2017.03.21.

59)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2016),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총회자료집』(내부자료)

60)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2017), 『광주지역 성매매실태조사결과』(내부자료).

<표 5> 대인동 성매매집결지 영업 형태 및 특징

구분	업소위치	종사 여성 규모	여성 연령대	주거형태	업소특징	비고
유리방 유흥 주점	금남로 5가 안쪽	1개소 당 3~7인	20대~40대	업소 안 또는 개인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방 술 판매안함. 업소 앞에서 호객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조직 없음 업주 조직 없음 업주연대를 통해 집결지 신규 영업장을 통제 관리함 수익분배 5:5
비등록 무허가 업소	자동차보험 옆골목	1개소 당 5~20인 (추정)	20대 ~ 40대 중반	업소 주변숙소 또는 개인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주가 가게 주변에서 감시 (경찰단속 여부 등) 숙소비 50만원~70만원 현금, 카드깡을 이용하여 비용 계산 	
	롯데백화점 골목 안쪽, 반도상가 앞, 동부화재 뒷골목	1개소 당 5인 이상 (추정)	20대 ~ 40대 중반	업소주변 숙소 또는 개인 숙소 유리방 업소에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주택을 숙소와 영업장소로 하고 있으며 길에서 호객 후 모텔이나 숙소 손님방에서 성매매 호객 후 차량을 이용하여 모텔이나 원룸으로 이동 숙소비 50만원~70만원 현금, 카드깡 이용하여 비용계산 	

주: 등록 및 비등록 업소 일부는 현재 숙소비가 없음.
 자료: 언니네 내부자료(2017)

148-1번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각종 도심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원도심 활성화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도시재생선도 사업지역으로 3개의 거점시설(푸른마을공동체센터, 공동예술두레마당, 충장 미디어산업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인동 성매매집결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주테마 사업을 연결하는 보행축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의 과정은 성매매집결지를 다시금 자연스럽게 ‘사라질’ 공간으로 보이게 한다. 상업지구 안에 있는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집결지 ‘폐쇄’는 ‘쇠퇴’로 이해된다. 상업지구는 끊임없는 재개발과 공간의 변화를 겪는다. 상대적으로 상업공간의 변화는 집결지, 사창가, ‘집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을 통해 개발된다. 이 과정에는 도시재생의 담론이 들어오기도 하고 도시경쟁력 담론이 ‘집창촌’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간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⁶¹⁾

성매매집결지는 끊임없이 규제의 공간이었다. 법적 규제는 시대마다 허용과 배제 모두 수용하는 기이한 정책들이었다. 지자체와 정책은 인신매매의 위협에 놓인 성매매 여성의 보호를 추구하고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성매매가 도시 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것을 규제하고 음성화를 조장했다.⁶²⁾ 다른 한편 현재 검토 중인 집결지 폐쇄 방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의 음성화 또는 풍선 효과라는 이유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에서 성매매피해 여성은 가없고 불쌍한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성매매집결지의 공간은 (폐지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비가시화되어야만 하며, 도시에서 더 큰 상품성과 이윤획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

61) 서우석 외(2016), 앞의 논문, 122쪽.

62) 서우석 외(2016), 같은 논문, 123쪽.

되어야 한다고 인식된다. 이천년대 중반 이후 성매매는 법적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었지만, 성매매집결지는 법과 제도보다는 자본가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성매매여성’의 삶과 권리를 비가시화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암묵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역민과 도시 계획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다. 따라서 금융자본에 의한 편의시설 입주나 복지제도가 주도하는 지역재생은 성매매집결지 공간의 역사성과 그 공간을 구성하고 유지해왔던 여성들의 삶 경험과는 무관하다.

IV. 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의 삶 : 어디에나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존재

성매매 여성들은 그 어떤 공간에도 온전히 속해있지 않은 “다른” 혹은 “애매한” 존재들이다. 합법적이고 상업적인 클럽이나 집결지 골목은 이들에게 공적인 공간을 제공하지만, 이들은 화려한 광경에 감추어진 채로 있다. 반대로 이들은 불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남성들을 유혹하는 존재로, 구획의 규칙을 어지럽히고 공간의 순결성을 더럽힌다고 여겨진다. 성매매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도덕과 부도덕의 경계에서 주어진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화한다.⁶³⁾ 그동안 성매매집결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도시 내에서 “있어야 할 곳”으로 인정받고 분류되었으나 동시에 도시에서 분리되고 배제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인과 묵인의 과정은 직접적인 성매매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안에서 성매매여성의 위치성을 드러낸다.

63) 이현재(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봄/여름, 121쪽.

1. 경계 : 업소 ‘안’과 거리

대인동집결지의 여성들에게 안과 밖,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있다. 이는 여성들이 만든 경계라기보다는 성산업 생태계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경계는 도시의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불을 켜고, 손님을 끌기 위해 공적인 공간인 ‘거리’로 나올 때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

A: (대인동 휘파리 구역 근처) 파riba게트는 정말 가기 싫었어. **그 일하는 아가씨 인줄 알고 주인이 되게 무시를 했어...커피가 있는데도 안팔아...** 근데 삼촌을 보내면 삼촌한테는 팔아. 아무래도 길에서 일하는 여자라... 아 어떨 때는 카드 안된다고 하면서 안팔아. 삼촌이 커피를 사와. 삼촌 무슨 커피를 카드가 안된다고, 커피를 안팔아 (이렇게 말해). 우리는 추운데 그러면... 삼촌이 “뭐? 마실래” 그리고 삼촌이 그냥 가, 가서 아메리카노랑 사와 ... **우리는 일하는 여자란게 티가 나잖아** 겨울에 코트여도 짧은 반바지에 힐 아니면은 부츠신고 있는데. 화장하지 속안도 거의 가슴보일정도로 야하게 입지 코트만 하나 걸쳐 입었다 뿐이지 솔직히 여름에 반바지하고 비키니 입은거나 똑같애... 9시 이후 휘파리 지역(앞) 아니 여자들은 많이 안지나가. 있기는 있어 **간혹 간간히 하루에 한 2번 3번? 그 사람들은... 되게 빠른 걸음으로 (우리 옆을) 지나가지(강조는 인용자).**

그렇게 성매매여성과 대인동을 지나는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는 듯하지만, 서로 빠르게 스쳐지나가면서 서로를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 ‘거리’라는 경계에서 잠시 스칠 뿐, 직접 대면하는 순간 성매매여성들은 ‘거부’당한다.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직접 사 마실 수 없는 순간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을 공적 공간 내에서 ‘없는’ 혹은 배제된 존재임을 느낀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집결지의 거리는, 또는 호객행위를 위해 나선 도로는 이 여성들이 도시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도로는 여성들에게 공적 공간/전시 공간/구

경거리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바로 이 공간에서 그녀들은 군중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된 채 있다.

A: 사복, 사복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야 삼촌이 봤을 때는 너는 사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때는 살도 없고 머리도 길고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삼촌이 너무 좋아라 하는거야 너는 딱 사복 스타일이다. 근데 내가 싫다고 우겼지... 사복은 뭐 길거리에서 빼끼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거야 근데 이제 이 업소를 다니다 보니까 포항 이랑 마산은 반 빨이야 이모도 있지만 내가 빼끼를 해야 해 내가 그것을 해보다보니까 답이 안나와. 여기도 물론 나뉘먹기이지만.

대인동성매매집결지는 휘파리 영업 혹은 ‘사복’이라고 부르는 영업 형태가 성업중이다. ‘사복’은 말 그대로 여성들이 ‘개인 옷’을 입고 거리에서 직접 남성을 호객하여 성매매를 제공한다. 성매매업소(‘유리방’과 같이) 안에서 홀복을 입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매매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사복’ 형태를 매우 꺼려하기도 한다. 성매매업소 안에서 짙은 화장과 홀복으로 ‘실제의 자신’을 가릴 수 있었지만, ‘사복’형태는 개인의 모습을 ‘공적 공간’에 드러낸다는 부담이 있었다. 무엇보다 업소 ‘안’은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간의 ‘사적 공간’으로 여겨진다. 거리에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동시에 ‘거리에서 여성들이 직접 호객’하는 행위는 여성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기도 한다.

2. ‘방’: 내 방과 손님방

성매매여성들에게 집결지 안에 ‘집’이라는 공간은 없다. 여성의 공간은 업소 안의 작은 ‘방’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업소에서 내 방(본방)과 손님방을 구별하기도 하고, 업소에서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만들기도 했다. 물리

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내 방을 구분하는 방문, 벽, 방안의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경계를 통해 여성들은 성매매집결지 안에서도 지리적 경계를 만들어낸다. 성을 판매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질서와 경계는 여성들에게 ‘방’(자신만의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위와 사람들을 가려내는 효과가 있다.

A: 손님방 말고 본방에서 받은 적 있어. 그러면 본방에서 손님을 재울 경우에는 단골들, 정말 친한 사람이야. 내 물건 그대로 쓰지. 그 대신 빨리 벗겨서 빨리 세탁소 보내.

C: 그냥 (유리방) 거기에서 살기가 싫었던 거죠. 맨날 골목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쉬어도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 보고 싶었죠.

D: 대인동은 유리방에서 일했죠. 숙소생활. 음 손님 받는 방에서 자기가 청소하고 지내요. (같은 방이어도) 이불을 바꾸고 청소해야죠. 아침에 잠을 못자요 찹찹해서. 손님방에 이불은 따로, 내이불은 따로. 세탁은 세탁소에 맡겨요. 안에 세탁기가 있지만, 자기 것은 될 수 있으면 깔끔해야 되니까 세탁소에 맡기고 손님패드 같은 것은 세탁기에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집결지 및 성매매 업소 생활을 한 여성들은 성매매집결지가 아닌 공간에서 자기만의 방을 간절히 원했다. 성판매-휴식의 경계가 없고, 외출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삶에서 조금이라도 휴식과 안정을 찾고자 원했다. 하지만 숙소를 얻고 살림살이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은 ‘빚’과 쉽게 연결되기에, 성매매집결지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A: 차라리 집이라도 있으면 쉬는 날 며칠을 몰아서 이박삼일이든 삼박사일이든 집을 갔다 오면 맘 편하게 쉬고도 오는 건데 그런 게 안돼. 아무래도 집에

대한 그런 게 컸지. (면담자: 숙소 생활하다가 이제 집이 생겼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나는 창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일단 집에 햇빛이 잘 들어와야 해. 그래서 커튼을 나는 항상 하얀색 종류였거든. 그 주방커튼, 주방에도 이런 블라인드 달려 있는거 내가 다 떼어내버리고 나는 햇볕을 받는게 너무 좋았어. 창문 열어놓고 낮에 햇볕 받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좋구. 여수는 그런 것 없었지. 그리고 숙소다 보니까 낮에 막 시끄럽게 못하지, 못 돌아다니지 아무래도 시끄러워서 깨고(강조는 인용자).

B: 업소 안에서 살면 이제 눈치도 보이구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 갈려면 “너 어디 가니?” 이렇게 해요. 그럼 세탁소 가요. 슈퍼 가요. 이렇게 일일이 말을 해야 하나...**밖에 나가 있음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죠. 내 집도 있고 마음도 편 안하고, 내가 내 집에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또 아프면 전화 한 통 해서 그냥 저 아파서 출근 못하겠어요. 하면 되고. 근데 안에 있으면 막 깨우러 오고 아프다 그러면 막 약 먹어라 그러고. 약 먹고 좀이라도 괜찮아지면 한두 시간만 더 자고 나와라. 막...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뭐 두 시간만 더 자고 나와라 이런 말 안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괜찮을 것 같으면 한 세 시간만 있다 출근할게요. 하는데 거기서 나와라, 올라 와가지고 계속 방 두들기고 문 열으라고 그러고... 방값은 많이 들죠. 그니까 보증금이 없어서 밖에서 잘 못 사는 거예요 (강조는 인용자).

성매매여성들에게 집결지 내의 숙소가 길으로 보기에 온전하고 과거보다 나아졌을지라도 그 공간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없다. 성매매집결지 내의 사적 공간으로서 ‘집’이 성산업체계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쉼터 혹은 안식처’로서 기능할지라도, 성매매집결지라는 공간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여성들은 집결지 안의 질서를 내재화하고 길들여진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여성들은 성매매집결지 공간 ‘밖’의 집을 통해 사적인 영역을 분리시켜내고자 노력하였다. 숙소를 떠나 마련한 자기만의 ‘방’에 여성들은 ‘집’의 의미를 만들어냈다. 집이라는 공

간에서 소비되는 것들을 구매하기도 하고, ‘햇빛’이 가득 들어오게 창을 꾸미기도 했다. 집결지나 성산업 공간 내에서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가방 하나 정도의 짐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활을 해오던 여성들은 나중에 ‘자기만의 방’만이라도 갖기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공간을 위한 소비’로서 주거공간을 통해 일상을 만드는 경험의 추구였다.

3. 이동성과 ‘공간의 뒷’

성매매여성들의 이동성은 수많은 성산업의 공간들과 집결지들을 가로지르고 있다. 여성들의 이동은 ‘자발적 선택’보다는 오히려 이동당하는 ‘주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여성들은 이러한 이동 자체를 하나의 삶의 양식 혹은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과정에서 여성들은 이러한 ‘착취’나 ‘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동한다. 그녀들은 평택으로, 완월동으로, 전주로 이동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일상공간에서는 상당한 이동의 제약을 경험한다.

A: 근데 대인동하고 되게 먼데다가 (숙소를) 얻어줬어. 쌍촌동을 얻어주더라고... 나는 뭐 지리를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그것도 내 빛이었지 보증금도. 또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일할 때는) 남자 사장이 형부가 거기서(업소에서) 모니터 보고 그런 것 좀 하더라고요. CCTV. 밖에 서 있는데 걸어났어요.

숙소 공간을 얻고, 공적 장소인 ‘거리’로 나와 있지만 여성들은 끊임없이 업주나 소개업자들의 관리와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 놓여있다. Hanson and Pratt(1991)은 가부장적 젠더관계에 기초한 도시공간에서 여성들의 이동 제약성에 대해 “공간의 뒷에 갇힌 여성(spatial entrapment of women)”이라고 표현

한 바 있다.⁶⁴⁾ 성매매집결지에서 과거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감금과 억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간의 뒷’에 갇힌 여성들의 억압적 현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소개소나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집결지와 같은 성매매공간으로 수없이 이동했다. 빛을 줄이기 위해서 옮기기도 하고, 일이 힘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동료 성매매여성을 따라 옮기기도 했다. 성매매여성들은 특정한 사회집단(성매매여성, 삼촌, 소개업자 등)에 이끌려서 어지럽게 이동했다.

장소는 늘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⁶⁵⁾ 여성들이 집결지에 있지만 그 공간에서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집결지의 의미는 유동적이었다. 어떤 곳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강간의 공간(A)”되기도 하지만, 또 “주인한테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는 즐기는 공간(A)”이 되기도 한다. 성매매집결지라는 공간은 성매매여성들에게 ‘그 내부(성매매의 공간)’만큼이나 ‘그 외부(착취, 공모, 종속 관계, 의존 관계)’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공간과 장소의 상징적 의미나 공간과 장소가 유포하는 명백히 젠더화된 메시지에서부터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공연히 배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공간과 장소는 그 자체가 이미 젠더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가 구성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반영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체성과 공간 모두에 있어 여성이 경험하는 이동의 제약은 일부 문화적 맥락에서는 여성을 종속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공간상에서의 이동의 제약, 즉 의도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억류하기, 가두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제약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⁶⁶⁾

64) S. Hanson and G. Pratt(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pp.229!253.

65) Tim Cresswell, 심승희 옮김(2012), 『장소』, 시그마프레스, 313쪽.

66) Massey Doreen, 정현주 옮김(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18-319쪽.

V. 맺음말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연구는 도시 내에서 ‘비가시화’ 될 것을 요구받는 여성들의 역사연구이다. 성매매 특히 성매매집결지는 분명 196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규정했던 행정력과 경찰력, 더 나아가 국가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은 성매매집결지를 보다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인동 성매매집결지는 1960-70년대의 산업화시기의 산물만은 아니다. 이미 그 전에 구한말에서 20세기 초 광주 유곽의 성장, 일제강점기의 도시화와 인구증가는 성매매집결지라는 근대적 공간의 탄생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변화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도시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의미와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집결지는 도시에서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조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했으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와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끊임없이 분리되고 배제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도시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집결지 역시 점점 더 새로운 부동산 투자와 개발 속에서 더 번듯하고 교환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 집결지의 의미와 경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공간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삶의 공간과 성매매의 공간을 구분짓기도 하고, 자기만의 ‘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성매매의 특성상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이동성은 수많은 성산업의 공간들을 잇는, 집결지에서 집결지로의 이동이었다. 이러한 이동의 제약과 한계 속에서 집결지의 의미는 유동적이었

다. 이는 여성들에게 성매매 공간의 의미가 다차원적이며, 동시에 성매매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집결지라는 공간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매매집결지의 공간은 성매매의 형태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지, 축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집결지의 물질적 흔적, 즉 건물, 간판, 업소 등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지만 비물질적 흔적, 사진, 감정 등은 여전히 성매매 산업공간 안에 남아 있다.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장소는 다양한 흔적을 통해 점유되고 생산된다.⁶⁷⁾ 성매매집결지 공간 역시 사라지지 않은 우리의 기억과 여성들의 감정을 통해 장소를 변형시켜야 한다. 또한 동시에 어떠한 실태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상업지구와 대규모 주거 택지지구(상무지구, 첨단지구 등)에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성매매구역'과 연결된다. 물론 도시화와 공간상의 변화가 성매매 변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지가 상승, 노동자들 혹은 성구매자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이동 등이 현재 비밀스럽게 혹은 공공연하게 성장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 역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더 확장적이고 새로운 개념화와 연구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67) John Anderson, 이영민·이종희 옮김(2013), 『문화, 장소, 흔적』, 한울, 291쪽.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광주시정백서』.

『광주동구백서』.

『조선총독부관보』.

『전남도정 40년사』.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2017), 『광주지역 성매매실태조사결과』(내부자료).
_____ (2016),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총회자료집』
(내부자료).

_____ (2008), 『광주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비매품.

보건사회부(1987), 『부녀행정40년사』, 보건사회부.

2. 단행본

김경수(2005), 『광주땅이야기』. 향지사.

김정동(2012), 『호남도시상권의 형성』, 대원사.

광주YWCA70년사편집위원회(1992), 『광주YWCA70년사(1922-1992)』, 광주YWCA.

광주광역시 편(1996), 『지도로 본 광주도시계획사』, 광주광역시.

_____ (2000), 『광주여성발전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011), 『광주도시계획사』.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2007), 『사진으로 만나는 도시 광주의 어제와 오늘,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2014), 『충장로의 역사와 삶』, 광주시립민속박물관.

_____ (2015), 『구성로 철도가 빚어낸 삶의 풍경』, 광주시립민속박
물관.

_____ (2016), 『오디세이 광주 120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_____ (2017), 『금남로, 중앙로의 역사와 삶』,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1995), 『광주시사』, 광주직할시.
- 기타무라 유이치로(北村友一郎, 1917), 「광주지방사정(光州地方事情)」,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2004), 『일제강점기 光州文獻集』, 광주시립박물관.
- 박상필·임호·김형균·오재환·정경숙·정일지(2014),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박선홍(2012), 『광주1백년-1』, 심미안.
- 문재원(2017), 「혐오와 친화 사이에서, 도시와 마주친 여성들」, 『젠더와 로컬리티』, 장세룡 외, 소명출판.
- 여성인권지원센터 종이학(2006),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비매품).
- 위경혜(2005), 『광주의 극장문화사』, 다지리.
- 홍성철(2007), 『유곽의 역사』, 페이지로드.
- Doreen, Massey, 정현주 옮김(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Hanson, S. and Pratt G.(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pp. 229-253.
- Anderson, John, 이영민·이종희 옮김(2013), 『문화, 장소, 흔적』, 한울.
- McDowell, L, 여성과공간연구회 역(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지리학의 이해』, 한울.
- Rose, G, 정현주 역(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 Cresswell, Tim, 심승희 옮김(2012), 『장소』, 시그마프레스.

3. 학술논문

- 강경숙(2009), 「지역적 맥락에서 본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지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우(2015), 「식민지 조선의 지방단체 광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희(2006), 「인천 승의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근(2017), 「일제강점 초기 유곽공간의 법적 구성 및 입지 특성」,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2호, 195~213쪽. DOI : <http://doi.org/10.25202/JAKG.6.2.7>
- 김희식(2012), 「20세기 인천의 도시화와 매춘문제 고찰: 깍동과 엘로우하우스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85호, 267~300쪽.
(UCI : <http://uci.or.kr/G704-001396.2012..85.003>)
- 김희식·손일란(2014), 「대전 매춘공간의 형성과 변화」, 『역사와경계』, 93호, 201~234쪽.(UCI : <http://uci.or.kr/G704-001396.2014..93.005>)
- 박정애(2009), 「총동원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유흥업 억제정책과 조선 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7권, 191~228쪽.
(UCI : <http://uci.or.kr/G704-001592.2009..17.006>)
- 박정주(2009), 「거주민의 삶을 통해 본 학팔거리 장소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우석·안준희·맹기돈·윤나래·김수진(2016),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서울도시연구』, 제17권 3호, 117~142쪽.
(UCI : <http://uci.or.kr/G704-001108.2016.17.3.001>)
- 서정우(2011), 「광주 대인동 “집창촌”의 “매춘”지리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4권 3호, 177~190쪽.(UCI : <http://uci.or.kr/G704-001360.2011.14.3.003>)
- 신희식(2015),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진영(2016), 「성매매집결지의 장소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 자갈마당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석(2015), 「식민지 조선의 지방단체 광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열(2008), 「집창촌 여성들의 이촌 의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23호, 83~103쪽.
(UCI : <http://uci.or.kr/G704-001339.2008..23.001>)
- 이현재(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봄/여름, 111~131쪽.(UCI : <http://uci.or.kr/G704-001341.2008..33.006>)
- 오유석(2009), 「동대문 밖 유곽- 청량리 588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 36호, 101~135쪽.(UCI : <http://uci.or.kr/G704-001254,2009..36,002>)
- 원미혜(2014),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Trans-Humnaituies』,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제7권 2호, 233~271쪽.
(UCI : <http://uci.or.kr/G704-SER000001966,2014.7.2,006>)
- 정경운(2016), 「일제강점기 식민도시화 정책과 오일장 변화과정」, 『국학연구론총』, 제17권. 153~180쪽.(UCI : <http://uci.or.kr/G704-SER000003095,2016.17.17,016>)
- _____ (2016), 「근대기 광주권번 운영의 변화과정 연구」, 『국학연구론총』, 18권, 41~68쪽.(UCI : <http://uci.or.kr/G704-SER000003095,2016..18,004>)
- 정석재(2016), 「집창촌 도시재생 유형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강봉(2002), 「광주지역 지명의 유래 연구(2)」, 『우리말글』, 24호, 41~64쪽.
(UCI : <http://uci.or.kr/G704-001206,2002.24..002>)
- 조정규(2001), 「일제강점기 광주 금남로 지역의 토지용과 소유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1호, 1~20쪽.
- 조정규(2002),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신애(2001), 「광주지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일제강점기부터 고도성장기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영산(2015),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공간의 재현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신문 및 사진자료

『동아일보』

『경향신문』

『무등일보』

『광주시보』.

「경찰, 대인동 사창가 특별단속 나선다」, 『광주매일신문』, 2017.03.21.

| 국문초록 |

광주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의 형성과 변화

이 연구는 광주지역에서 ‘집창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인동 성매매집결지(이하, 대인동 집결지)의 형성과정과 변화를 살펴본다. 대인동 집결지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유리방 중심의 성매매 공간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유리방’ 혹은 ‘홍등가’라는 이름붙이기는 도시발전사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역사적 변천의 전모를 간과하는 것이다. 대인동 집결지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만의 산물이 아니다. 대인동 집결지는 구한말에서 20세기 초 광주 유곽의 성장 및 일제강점기의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의 경계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집결지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성매매집결지 공간의 의미와 지리적 경계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의 공간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도시공간 안에서 성매매여성의 위치성을 검토한다.

주제어 : 성매매집결지, 광주 대인동, 성매매공간, 도시사

미국 남장로교 목포, 순천지역 선교기지 (Mission Station) 조성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Mission Stat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in Mokpo and Suncheon

우승완** · 천득염***

Woo, Seung-Wan · Cheon, Deuk-Youm

목 차

- | | |
|-------------------------|-------------------------------|
| I. 미국 남장로교 선교기지의 의미 | IV. 목포와 순천 선교기지의
건축적 특징 비교 |
| II. 목포 선교기지 건축의 의미와 가치 | V. 결론 |
| III. 순천 선교기지 건축의 의미와 가치 | |
-

| Abstract |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s filled with political and cultural turmoil. The advances of the great world powers to Korea had a great effect on the secluded nation whose development was stagnating due to its lack of interaction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 works of the western Christian missionaries in Korea during this time were conspicuous in the areas of missions, education and the medical attention they provided to the Koreans.

Architectures related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 본고는 『전라남도 기독교 선교역사와 유산』(2018), 「전남 기독교 선교기지의 OUB, 진정성과 완전성 고찰」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순천시 도시재생센터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교신저자), dycheon@hanmail.net

show themselves in abundant quantity during the modern era of Korean architecture. Although their numbers we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at of the apartment style Japanese architectures such as the railroad company residence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missional architectures in Korea fostered many changes to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during its transition to modern architecture.

The missional architectures formed a part of standard as western architectures situated within Korean territory.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estern architectural practices and architectures on that of Korea by studying the mission stations whose architecture had a profound impact on Korean modern architecture.

Investigating how the Koreans embraced western architecture during the difficult times of the Korean Empire and how this foreign architecture was positioned in Korea will be an valuable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Korean modern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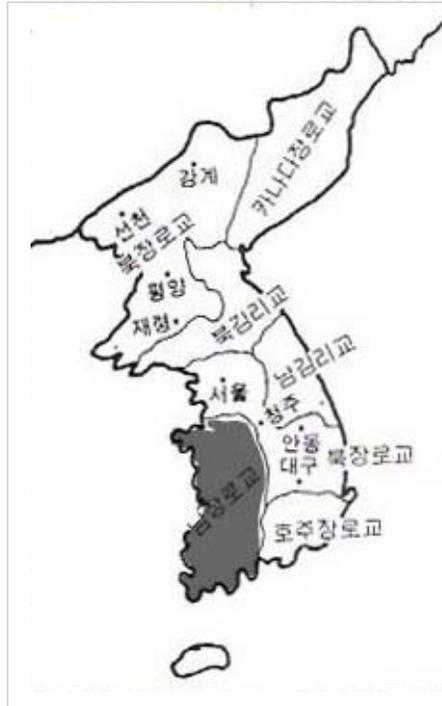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rchitectur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missional architectures.

Key words : Mokpo and Suncheon Mission Station,
Robert Manton Wilson, Martin Luther Swinehart,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Christian missionaries

I. 미국 남장로교 선교기지의 의미

한국의 역사에 있어 근대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처절한 격동의 시기였다. 열강들의 한국으로의 진출은 아직 개방되지 않아 다소 정체되어 있는 은둔국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럴 즈음 기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한 서양인 선교사들의 진출은 선교와 교육, 의료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게 되었다.

특히 근대기 한국 건축에 나타난 미국 장로교 선교관련 건축은 그 수와 양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수효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와 같이 공동주



<그림 1> 선교지분할도(출처 : 순천노회사)

택 성격의 일본식 건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 건축은 한국 전통건축이 근대 건축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유도해 한 축을 이루었다.

장로교 선교 건축 가운데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 건축은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전주와 군산, 전라남도는 목포, 광주, 순천 여수, 구례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교기지가 설립된 전주와 광주는 도청소재지¹⁾, 군산과 목포는 개항

지, 순천은 1905년 1등 군으로 분류되어 지방의 거점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중심성을 띤다 하겠다.

이번 연구 대상지는 전라남도의 목포, 순천, 여수, 구례로 이곳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 건축의 이입 과정은, 먼저 한국에 들어온 북장로교, 감리교, 영국 성공회 등 다른 교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교 초기에는 전통 한옥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개조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내 서양식 건축으로 자리 잡는다.

선교기지 유적은 선교 과정에서 구축된 각종 건조물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병원, 학교, 교회, 주택 그리고 수양관을 포함한 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 유적은 1892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전래된 근대 의료와 교육, 교회 등 서양 건축술 등의 전래 과정이 함축된 공간으로 지역민들의 생활문화양태 변화와 도시 근대화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순천 선교기지는 미국 남, 북장로회 선교기지 가운데 맨 나중에 설립된 곳으로,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된 한국 최초의 선교기지이다. 이곳은 선교정책과 필요에 따라 ‘선교기지 마을’, ‘질병 공동체 마을’, ‘수양관 마을’ 등의 다양한 서양식 마을을 조성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근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교기지의 건축과 건축활동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²⁾ 서양의 건축의식과 건축이 한국의 건축에 끼

1) 광주광역시에 있던 도청은 2005년 무안으로 이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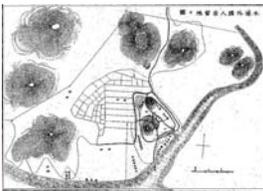
2) 목포, 순천 지역 선교기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남호현(2000), 「근대 순천지역 선교사마을의 배치와 공간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4),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도선봉(2002), 『韓國近代建築 形成過程에서 나타난 美國長老會 宣敎建築의 特性』,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승완(2009), 「순천의 근대기 도시화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승완, 남호현(2010), 「질병 공동체 '에양리 마을'의 형성과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2), 한국도시설계학회; 문화재청(2004), 『에양교회 및 에양병원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2004),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2006),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청(2007),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한국근대건축보존회(2009), 『지리산 선교사 유적 조사와 문화재적 가치 연구』, 사단법인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 보존

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말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서양건축을 수용하였고 한국에 서양건축이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근대건축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목포 선교기지 건축의 의미와 가치

1. 목포 선교기지의 연혁

목포 선교기지는 미국남장로교가 전라북도 전주, 군산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설립한 곳이다. 1896년 나주에 선교기지 설립 추진이 실패하면서 대안으로 1897년에 설립되었다. 목포는 각국 거류지로의 개항과 비옥한 평야를 가진 성곽도시 나주와 인접한 해상 교통로를 끼고 있고, 인구가 많은 도서지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선교 거점이었다.³⁾



1897년 목포 외국인 거류지 지도 (목포 거류지의 초기 공사 개요를 소개하고 있음)



1894-1896년 측량된 목포 지형도 (근대 지도에 나타난 목포 만호진 및 거류지 일원)



1930년 목포 하수공사 평면도에 나타난 선교기지 건축물(삼각형 도로망에 쌓인 부분이 선교기지)

<그림 2> 목포선교기지 관련 지도

3) 목포는 전남 내륙지역으로 접근도 용이하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로 ~중략~ 많은 섬에도 주민 수가 적지 않아 내륙지역과 도서지역까지 선교활동이 가능.(송현숙(2011), 「호남지방 미국남장로교의 확산, 1892-194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6쪽)



<그림 3> 목포선교기지도. 중앙부의 철도관사 좌측 부분이 목포 선교기지(1945년 미군지도)

선교기지 구축이 추진될 즈음 목포는 일본의 전관거류지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서 목포 거류지에 대한 일본의 접근은 집요했다.⁴⁾ 목포 거류지 경매물의 93% 이상을 일본인이 장악)했을 만큼 일본인 주도의 신도시에서부터 일본인에게서 밀려난 한국인 거주지역 인근에 집회 기능이 부가된 주택, 병원, 학교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

개항된 도시공간에서 선교기지의 위치는 동남쪽에 신시가지로 조성된 거류지와는 반대편인

북쪽 끝자락이었다. 하지만 지형이 병목처럼 좁고 목포로 진입하는 도로가 분기되는 곳으로⁶⁾ 목포 방문객은 선교기지 주변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위치이다.⁷⁾ 한국인 거주지역으로 접근하는 도로에는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가 양 옆에 위치하고 있고, 신시가지로 향하는 도로 양쪽에 선교사 주택과 프렌취병원⁸⁾

- 4) 일본은 목포 개항을 영토의 연장 성격인 특별거류지로 추진하였으나 조선은 각국거류지로 1897년 개항함.
- 5) 徳間一茅(2010),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쪽.
- 6) 1894~1906년에 측량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는 일본군 간첩대가 비밀제작한 지도로 조선후기에서 대한제국의 한반도를 나타내고 있음.(남영우(1997),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 제1권, 성지문화사.)
- 7) 목포 선교기지는 한국인 마을과 해상과 육상 교통로에 접근성이 우수한 구릉지에 미국식의 독립적인 선교마을로 구축됨.
- 8) 목포 선교병원의 명칭은 자료에 따라 부란취, 보인취, 프렌치 등으로 표기됨.

이 자리하고 있어서 육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고려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목포 선교기지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는 점이다. 1911년에 완공한 목포 양동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좌측 출입구 상부 아치에 대한제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상부 아치에 ‘대한융희4년(大韓隆熙四年)’

<사진 1> 목포양동교회 신축 당시 남자 출입문

을 태극문양과 함께 음각하여⁹⁾ 일본의 강제 점령에 대항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83년 정명여학교 보수과정에서 독립가, 3.1독립선언문, 2.8독립선언문, 조선독립 광주신문, 격문 ‘경고아이천만동포(警告我二千萬同胞)’ 등의 독립선언 관련 문서가 발견되어¹⁰⁾, 선교기지 교육기관이 지식과 독립심을 갖춘 여성을 양성하려 노력했고 민족운동과 기독교 계몽운동의 산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포는 청일전쟁 이후 강화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의 의지가 반영되어 1897년 각국 거류지로 개항한다. 일본은 그들이 의도한 전관 거류지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대신 거류지 토지 매입에 자국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이주정책을 펼친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으로 일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남장로회 목포 선교기지가 설립된다.

목포 선교기지는 구축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된 계획안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교기지의 위치나 각종 선교 시설의 배치에서 나름의 계획이 있었

9) 반대편 교회 우측 출입구 상부에는 ‘쥬강생일천구백십년’이라 음각됨.

10) 1983년 2월 보수 공사 중 발견되어 원본은 독립기념관에 보내고 사본을 전시 중.

음을 알 수 있다. 즉 선교기지의 부지 매입은 최소한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되지만, 선교부지는 목포를 진입하는 좁은 도로를 감싸면서 확보하고 선교시설 역시 통과도로로 분할된 부지에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다.

목포 선교기지의 교회는 10여 년 사이에 3회에 걸쳐 건축되고 있어서, 교인 증가에 따라 시설의 규모가 확장되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선교 초기에는 먼저 초가집을 한 채 구입하고 여기에 잇대어 작은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리고 1903년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와지붕 교회를 건축하고¹¹⁾, 1911년에는 석조건물인 지금의 양동교회가 완공되어¹²⁾ 교세에 따른 선교건축의 확장을 엿볼 수 있다.

2. 목포선교기지 건축의 의미와 가치



<사진 2> 1922년 목포 영흥학교(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남장로교 목포 선교기지는 남장로교가 다른 도시에 설립한 선교기지와 마찬가지로 교회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원형은 많이 훼손되었다. 선교기지 교회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기존의 전통 한옥에 교회의 기능을 부가시켜 이용하고¹³⁾, 1898년에 교회와 주택을 겸한 첫 선교 건축물을 완성한다.

-
- 11) 목포양동제일교회에서는 1902년 건축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목포양동교회 기록과는 차이가 있음.
 12) 건축공사는 1910년부터 시작됨.
 13)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 편(1999),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130쪽.

진료소는 1899년 다른 선교사 주택에 기능이 부가되는 것으로 계획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학교와 병원 등의 선교 건축이 독립된 서양식 조적식 건축물로 구축된다.

지금은 교육 선교의 산실인 정명중학교 부지에 편입된 선교사 주택 2개동과 1969년 건축된 석조 건물만 남아 목포 선교기지의 초기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

목포 선교기지는 조성 당시의 윤곽이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목포양동교회는 출입구와 창호 등 부분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는 잘 보존되고 있다. 100여 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근대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변화, 한국전쟁 등을 겪으

면서 지금까지 교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별도로 남아 있는 선교사 주택은 1990년 화재를 겪기도 했지만 2001년 전면적인 보수를 거쳐 100주년 기념관과 음악실로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선교사 주택은 도서관으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보수 과정에서 독립선언 관련 문서가 발견되었다.¹⁴⁾ 이는 2012년 정명여학교 출신 여학생 7명이 애국지사로 포상을 받



<사진 3> 정명여학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선교사 주택



<그림 4> 1930년 목포부 시구개정공사 평면도의 선교기지 건축 현황(국가기록원, 방사형 도로 중앙 정명여학교, 좌측 영흥학교, 우측 프렌취병원)

아 지역 독립운동사에서 선교 교육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목포 선교기지의 석조건물은 건축 당시 지역의 건축 여건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양동교회나 선교사 주택의 외벽 건축 자재는 주변지역에서 확보한 응회암 석재이고¹⁵⁾, 이들 석재를 이용하여 중국인 기술자의 참여로 건축된 것이다. 현재 100년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교사 주택의 경우 건축부지의 고저차를 지하층의 건축으로 극복하고 있다.

목포 선교기지는 신생 도시에 설립한 경우로 순천의 선교기지와 같이 한국 전통 건축의 권위적 위상 또는 종교적 상징성과 연계할 수 있는 대지 조건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즉 읍성의 가로와 축선, 관아 건축의 배치 양상과 달리 사회적 상황이나 기능에 순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존 성곽도시에 설립된 선교기지와 같이 주된 선교 대상지의 시가지가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Ⅲ. 순천 선교기지 건축의 의미와 가치

1. 순천 선교기지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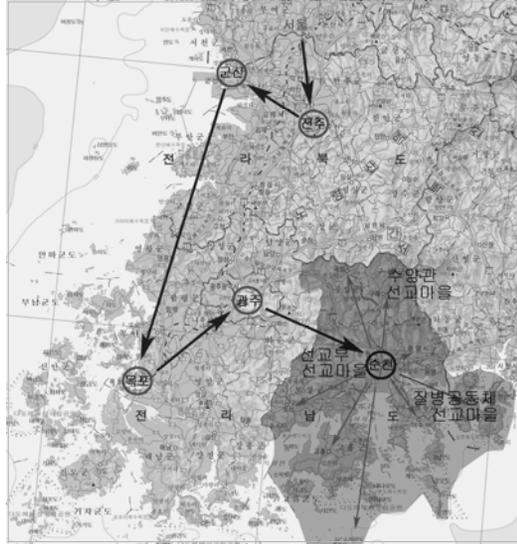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남장로교의 순천 선교기지는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된 한국 최초의 선교기지로 선교정책과 그 필요에 따라 ‘선교기지 마을’, ‘질병 공동체 마을’, ‘수양관 마을’ 등의 다양한 서양식 마을을 조성했다.

특히 선교기지 마을은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보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교기지 마을’은 조선시대의 전

14) 두 가지의 독립선언서와 독립가사, 결의문 그리고 당시의 일을 알리는 지하신문이 정명여중 교실 천정에서 발견(전남서부보훈지청, <http://blog.daum.net/mp-bohun/3653394>)

15) 주변 시가지의 축대나 석조 건축물에서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있음.

통도시인 순천읍성에 버금가는 규모로 조성되고, 1931년에는 동아일보에 도시의 대표 공간으로 소개되어 근대기 도시화 과정에서 선교마을이 미친 영향을 가늠하게 한다. '에양리 질병공동체 마을은 나환자 수용을 위해 구축된 자의성이 강한 선교시설로, 의료 선교사 윌슨(Robert Manton Wilson)의 건축적 경험과 체계적으로 양성된 기술 인력에



<그림 5> 미국 남장로회 선교기지(회색 부분은 순천선교기지 선교영역과 선교마을 위치)

의해 이뤄진 폐쇄 공동체였다. 질병공동체 마을은 광복 이후에도 순천결핵재활원과 로이스보양원으로 확산된다.

지리산 노고단(1,507m)과 왕시리봉(1,243m)¹⁶⁾의 '수양관 마을'은 풍토병과 전염병의 창궐, 선교 업무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질병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를 달리하면서 조성되었다. 노고단에 조성된 마을은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훼손되었으나, 이후 노고단 수양관 마을을 대신해 조성된 왕시리봉의 수양관 마을은 구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선교기지의 생활 변화와 건조물의 축조 기법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

16) 노고단에서 토지면으로 뺀어 내린 능선의 정점. 시리가 시루의 사투리이지만 지역에서 사용하는 호칭.

<표 1> 미국 남장로교 순천 선교기지의 마을들

구분		조성 시기	위치	비고
선교기지 마을		1912~1932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첫 건물 완공 1913년
수양관 마을	노고단	1922~1935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1948년 이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훼손
	왕시리봉	1960~1965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퀸셋 교회 완공 1962년
질병 공동체 마을		1926~1955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흥리	

가. 선교기지 마을

순천 선교기지 마을은 1904년 전킨 선교사의 발의로 선교기지 설치가 제안되고 1910년 선교회 4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작된다. 건축공사는 1912년부터 1916년까지 주택, 병원, 학교 등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구축한다. 병원 건축은 미국으로 되돌아간 의료선교사 알렉산더에 의해 당초 계획된 병원을 완공한 것과 별개로 당시 한국의 여러 선교병원 가운데 두 번째 규모로 건축한다.¹⁷⁾

<표 2> 선교사 선교마을 주택

		
프레스톤 주택(1913~현존)	코잇 주택(1913~현존)	크레인 주택(1913, 철거)

17) 의료선교사 알렉산더의 한자 표기를 따른 안력산병원은 1930년대 건축 규모, 의료 인력 등이 최고조에 달함.

	
로저스 주택(1913~현존)	엉거 주택(192?, 철거)

1930년 순천매산중학교 매산관이 규모를 키워 다시 건축되고 1932년 안력산 더(안력산)병원이 증축되면서 현재 선교기지 마을의 원형이 된다. 1945년 이후 선교기지 마을의 일부 건물이 미군의 주둔으로 훼손되기도 하지만, 강당, 기숙사 등이 선교 초기의 석조건물로 1950년대까지 교육시설이 증축 보완된다.

<표 3> 선교사 선교마을 교육시설

			
매산여학교(1914~1948)	매산학교(1916~1929)	어린이 학교(1925~현존)	
			
조지와의 기념관(1929~현존)	매산관(1930~현존)	여학생 기숙사(1945이전, 철거)	
			
남학생 공장 (19450전, 철거)	음악실 (19450전, 철거)	고등성경학교 (19480후, 철거)	매산고교 기숙사 (1959, 철거)

나. 수양관 마을

수양관 마을은 한국 선교 초기 풍토병, 전염병의 창궐, 선교 업무의 피로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한 선교사 휴양시설이다. 노고단은 1922년부터 순천 선교기지의 휴양시설로 이용되면서 마을이 구축되기 시작한다. 1934년 ‘조선 여행 안내기’에는 지리산과 함께 선교사 휴양시설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¹⁸⁾ 그러나 1935년 임대기간 만료와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적산가옥으로 분류되어 훼손이 시작되고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다.

1950년대 말부터 선교사들이 노고단에서 하계 휴양을 천막으로 이어가는데 가운데 1961년 왕시루봉을 휴양시설의 새로운 후보지로 선택한다. 주요 측량 기점을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부지를 조성하는데, 공사용 거푸집은 순천 선교 기지에서 제작하고, 교회 건물은 군산 비행장의 폐 막사(퀸셋)를 재활용하여 건축했다.¹⁹⁾ 현재까지 공사용 거푸집과 순천결핵재활원과 로이스보양원의 건축물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서양 건축 이입과 발달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표 4> 수양관 선교마을 주택



18) 우승완(2009), 앞의 논문, 65쪽.

19) 한국근대건축보존회 편(2009), 지리산 선교사 유적 조사와 문화재적 가치 연구,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선교유적지 보존연합, 77-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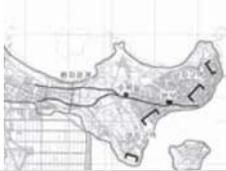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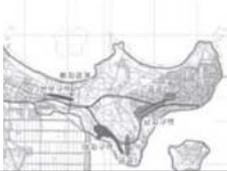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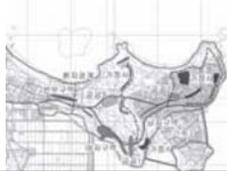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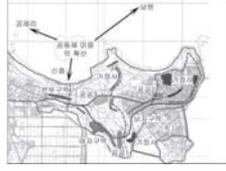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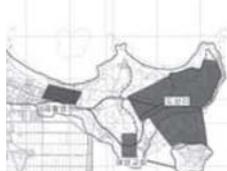
다. 질병공동체 마을

질병공동체 마을은 1926년부터 1928년에 걸쳐 마을로 조성된 여수시의 ‘애양원’으로 더 잘 알려진 한센인 마을이다. 광주광역시에 인가된 ‘광주나병원’이 순천 선교기지로 옮기면서 ‘비더울푸 나환자 요양원’이 되었고 1935년 ‘애양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병목처럼 잘록하고 구릉지 지형을 가진 애양반도에 월슨 선교사가 양성한 목수, 미장공, 함석공 등 기능공 110명이 구축한 질병 치료를 위한 마을이다. 초기 남녀로 구분된 한센인 병사가 가정사의 도입과 간접으로 인해 마을로 성장하고 그 영역이 확장된다. 1962년에는 정착촌 사업으로 폐쇄 공동체에서 개방 공동체로 전라북도 남원에서 마을을 조성해 일반 사회에 안착하고, 애양원은 1976년 도성마을이라는 개방적 마을 조직으로 재탄생한다.²⁰⁾

20) 우승완·남호현(2010), 앞의 논문, 18~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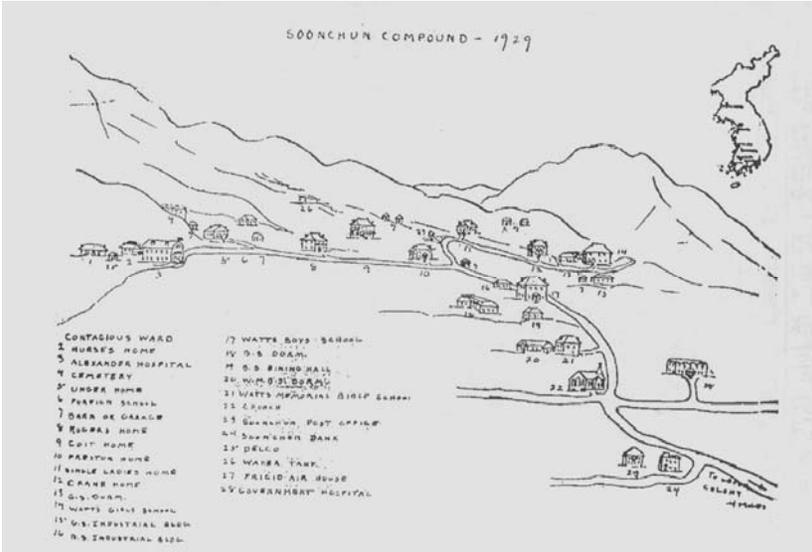
<표 5> 가정사의 확산과 간척에 의한 애양리 마을의 공간 변화

		
<p>1925년 계획(안)</p>	<p>1928년 마을조직</p>	<p>1936년 가정사에 의한 마을조직 확산</p>
		
<p>1962년 이후 가정사의 지역 외 확산</p>		<p>1976년 가정사의 확산에 의한 마을 재편</p>

2. 순천 선교기지 건축의 의미와 가치

남장로교 한국 선교기지들은 도시 변화로 마을의 원형이 훼손되었지만 다수의 건축물이 문화재청 등에 의해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순천 선교기지는 초기 선교기지의 구성 요소로 나타나는 선교사 마을, 선교사의 휴양을 위한 수양관 마을, 한센인 관리를 위한 질병공동체 마을이 조성 당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선교사 마을은 학교, 병원, 교회, 지원시설이 한국의 취락 구조나 도시질서 체계인 배산임수와는 다른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축되었다. 대중의 접근성을 위해 마을길 초입에 건축한 순천읍교회가 다시 건축되었지만 위치는 변함이 없고, 알렉산더병원의 병동, 외국인 어린이학교, 조지와츠 기념관, 유교적인 특성이 반영된 남학교는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림 6> 1929년의 프레스톤 선교사가 그린 순천선교부 선교마을 안내도, 우측 하단 사거리 코너부분 교회가 지금의 중앙교회이고 사거리 우측이 현 순천의료원의 전신인 도립 순천의원. (출처 : 매산인 10)

애양리 질병공동체 마을은 병원, 교회, 병사, 학교 등 주요 건축물을 유산으로 관리하면서 전시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을 만들면서 구축된 마을길, 운동장, 화장장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초기의 마을 공간뿐 아니라 이후의 확산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

왕시리봉의 수양관 마을은 산악지역에 구축된 마을로 지형적 특성으로 개발 영향을 받지 않아서 건축물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처음 조성 당시의 건축물과 함께 운반도구, 공사용 거푸집 등이 보존되어 건축 및 생활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훼손 상태가 심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란 원래의 상태(재료와 양식)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냐가 관건이다.

순천 선교기지는 이전 선교기지의 다양한 경험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였으며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국의 취락 구조나 도시 질서 체계와는 다르게 구축되었다. 입지 조건이나 배치에 있어서 선교사의 경험적 요소인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 한국 건축의 권위적 위상 또는 종교적 상징성과 연계 할 수 있는 대지 조건 등이 반영되었다.²¹⁾

현재 순천 선교병원 병동은 초기 모습을 찾기 위해 덧댄 벽면은 복원하고 일부 창호나 기둥은 당시의 기술로 제작된 재료로 보수하였다. 이처럼 선교 건축물을 새롭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재료가 바뀌어 구축 당시의 재료와 기술, 배치, 건축술 등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



<사진 4> 안력산더병원(安力山)의 격리병동(보수공사 후 모습)

곡성, 구례 그리고 경남의 하동과 남해까지 이르렀고, 선교기지 면적은 조선시대 전통 도시 공간인 순천읍성의 규모와 유사했다. 그리고 한국인의 관심을 이끌었던 선교 건축은 선교 관계자들의 주거 건축에도 반영되었다. 선교의 수단으로 시작된 교육과 의료분야는 1930년대 도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소개될 만큼 도시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컸다.

월슨 선교사가 양성한 다양한 전문 인력은²²⁾ 부산의 선교시설 건축에서 능

1900년을 전후하여 한국 도시 변화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선교기지 설립을 들 수 있다. 남장로회의 선교기지 역시 각 도시의 상징적 특징으로 남아있다. 1910년 설립이 결정된 순천 선교기지는 활동지역이 순천, 여수, 광양, 보성,

21) 우승환(2009), 앞의 논문, 57~59쪽.

력이 입증되고, 1926년에는 한센인 질병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그들이 습득한 근대 건축 수법은 순천 선교기지의 학교, 휴양시설, 주거 건축에 그대로 반영된다.

순천 선교기지의 하계 휴양시설 가운데 먼저 구축된 노고단의 수양관 마을은 일제강점기와 분단 상황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면서 그 잔해만 남아있다. 하지만 선교사 부인인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이인이 1931년 이곳 일대의 자생 식물을 조사한 후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해, 한국 식물의 이름과 의미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설과 연계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1962년 노고단 수양관 마을의 대체 마을이 왕시루봉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한국 선교 역사의 시대적 상황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선교사 철수로 선교병원 운영은 중단되지만, 한국인 종사자들에게 습득된 의술은 공공의료, 의학교육 분야 등으로 확산된다. 1960년 개원한 순천기독결핵재활원은 의료선교의 새로운 영역으로 결핵 퇴치에 크게 기여한다. 한센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립된 질병공동체 마을의 병원은 한센병의 퇴치로 일반인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 이후 선교기지의 시설들이, 현재는 각 관리 주체로 이전되면서 건물의 용도가 바뀌기도 하지만 선교시설이라는 고유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남장로교의 호남지역 선교 역사는 한국 교회를 축소하여 대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18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선교지역 분할 협정에 따라 남장로회는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에 차례로 선교기지를 설립한다.

22) 월슨은 자신의 주택 지하실에서 실업학교를 운영함. 목수나 석공 양성은 1년 여가 소요되었고, 직조기술은 1개월, 의료 기술은 3개월, 양철공은 1개월에 걸쳐 실시함. 바느질과 한복 만드는 법, 농사짓는 법 등도 가르침. 이때 양성된 기술 인력에 의해 서양식 건축으로 여수 애양원이 조성됨.



<사진 5> 1934년 순천장로회 하기 수양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이 가운데 순천 선교 기지는 마스터플랜에 의해 설립된 선교기지로 선교사 주택, 의료시설, 교육시설, 설비 구조물 등의 다양한 건조물이 남아 있다. 무덥고 습한 여름과 토착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선교사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만든 노고단 수양관 마을과 이를 대체한, 왕시

리봉 수양관 마을을 운영했다. 그리고 한센병과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구축했던 질병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여 기독교의 한국 선교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공간적 활동이 잘 보존된 곳이다.

IV. 목포와 순천 선교기지의 건축적 특징 비교

근대기 한국 건축에 나타난 미국 장로교 선교 건축은 그 수와 양을 고려해 볼 때 일본식 건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선교 건축은 우리 건축이 근대 건축으로 발전하면서 내재된 변화를 유도해 한국 건축의 건축을 이루고 있다.²³⁾

23) 도선봉(2002), 「한국 근대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장로회 선교건축의 특성」,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3쪽.

장로교 선교 건축 가운데 미국 남장로교(이하 남장로교)의 선교 건축은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연구 대상지는 전라남도 목포와 순천으로 이곳 남장로교 선교 건축 역시 다른 교파에 의한 선교 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교 초기에는 전통 한옥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개조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내 서양 건축으로 정착한다.



<사진 6> 광주 선교기지 여자 독신 선교사 주택



<사진 7> 미주리 목재 및 채광회사의 월슨

남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선교 건축에 영향을 많이 미친 이는 철도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월슨(Robert Manton Wilson)과 스와인하트(Martin Luther Swinehart)이다. 월슨은 건축 재능이 탁월해 성실한 중국인 기술자와 함께 광주 수피아여학교²⁴⁾, 여수 애양원 건축을 직접 감독하였다. 특히 선교기지의 영선과 재정을 담당했던 스와인하트가 내한한 이후에는 회색 벽돌, 개량 기와, 시멘트 슬레이

24) 월슨의 건축적 경험은 미주리 목재 및 채광회사에서 취득된 것으로 보임.(메리스튜어트 월슨 메이슨, 최병택 역(2009), 『베스와 맨튼』, 사회복지법인 여수에양원, 184쪽.)

트 등의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한양 절충형 건축에서 서양식 건축으로 변화를 보인다.

선교기지 설립 초기에는 목포의 경우 기존의 전통 한옥에 교회의 기능을 부가시켜 이용하고, 순천은 향교 소유의 한옥을 이용하여 학교와 함께 운영된다. 1910년 전후에는 중국인 기술자와 일본인 목수 그리고 한국인이 석공사와 노무자로 선교 건축에 참여한다. 지붕 마감은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벽체는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석재로 바른층 쌓기를 하고, 벽돌은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사진 8> 애양원 여자 병사



<사진 9> 왕시루봉 경량 철골조 교회

1920년 이후 선교기지는 중국인 공사 감독과 월슨이 양성²⁵⁾ 한국인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된다. 이들의 능력은 1923년 부산의 메킨지(James Noble Mackenzie) 선교사가 운영하는 부산나병원의 건축공사와 1926년 여수 애양원 구축에서 입증된다. 특히 1926년부터 구축된 애양원과 1930년 건축된 매산관은 석재를 허튼층으로 쌓아 선교 초기의 석조 건축물과 구별된다. 일제강점기까지 건축된 일정 규모 이상의 선교 건축에서 1층 바닥의 일부에 지하 공간을 구축해 설비 공간

25) 채진홍(2008),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남대학교출판부, 57쪽.

이나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1950년 이후 선교기지 건축에 바른층 쌓기 석조가 다시 나타나고, 1960년대 구축된 왕시리봉 수양관은 다양한 양식의 목조 건축이 주류를 이룬다. 왕시리봉 수양관의 교회와 창고, 주택 1동이 경량 철골조로 건축되고 일부 목조 주택에 조립식 콘크리트 자재가 혼용된 것은 자재 운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난방을 위해 온돌, 벽난로, 주철제 난로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한국 건축의 온돌 문화가 선교 건축에 반영된다.

V. 결 론

미국 남장로회 선교기지가 설립된 목포는 개항지로 전라남도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순천은 미국 남장로회의 마지막 선교기지로 종합계획을 갖고 구축한 당시 지방의 거점도시였다. 이 두 도시에 나타난 관련 건축물들은 선교기지 미국으로부터 전래된 근대 의료와 교육, 서양 건축술 등의 전래 과정이 함축된 공간으로 지역민들의 생활문화 변화와 도시 근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순천 선교기지는 선교정책과 필요에 따라 '선교기지 마을', '질병 공동체 마을', '수양관 마을' 등의 다양한 서양식 마을을 조성했는데 두 선교기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포 선교기지는 해상 교통로와 인구가 밀집된 도서지역과 가까운 점이 장점으로, 나주 선교기지 계획이 실패하면서 대안으로 선택되었다. 지형이 병목처럼 좁고 항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분기되는 곳에 자리했다. 교회는 10여 년 사이에 3회에 걸쳐 건축되고 있어서, 교인 증가에 따라 시설의 규모가 확장되는 좋은 본보기였다. 그리고 지식과 독립심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려 노력했고 민족운동과 기독교 계몽운동의 산실이었다.

둘째 순천 선교기지는 선교기지의 중심이었던 선교사 마을, 선교사의 휴양을 위한 수양관 마을, 한센인 관리를 위한 질병공동체 마을이 조성 당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선교사 마을은 전통 성곽 도시에 한국의 취락 구조나 도시 질서 체계인 배산임수와는 다른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축되었다.

셋째, 선교기지의 부속시설로 구축된 애양리 질병공동체 마을은 주요 건축물을 유산으로 관리하면서 구축 당시의 마을길, 운동장, 화장장 등이 남아 있다. 왕시리봉의 수양관 마을은 산악지역에 구축된 마을로 지형적 특성으로 마을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의 다양한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특기할만하다.

넷째, 목포와 순천의 남장로회 선교 건축 역시 다른 교파에 의한 선교 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교 초기에는 전통 한옥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개조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내 서양 건축으로 정착한다. 지붕 마감은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벽체는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석재로 바른층 쌓기를 하고, 벽돌은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다섯째, 서양식 건축술의 도입과 온돌문화의 반영이다. 선교 건축 초기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주된 기술 인력으로 참여하지만 월슨과 스와인하트에 의해 한국인이 건축 기술을 주도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애양원은 양성된 한국인 기술자에 의해 구축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1960년대 구축된 왕시리봉 수양관은 목재와 경량철골 이용한 가설 건축물로 난방을 위해 온돌이 사용되어 한국의 온돌 문화가 선교 건축에 반영된다.

참고문헌

- 김종철(2008), 「유진 벨 선교사의 목포, 광주 선교활동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준태(2016), 「미국 남장로교가 설립한 초기 한국 기독교여학교의 교육연구 (1903-1919)」,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영우 편(1997),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 제1권』, 성지문화사
- 도선봉(2002), 「韓國近代建築 形成過程에서 나타난 美國長老會 宣敎建築의 特性」,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화재청(2004),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 한국선교유적연구회(2016), 『전라남도 선교유적의 가치 재발견』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선교유적연구회.
- _____ (2017), 『전라남도 기독교 선교역사』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선교유적연구회.
- 국립순천대인문학연구소(2017), 『전남동부지역 기독교선교와 한국사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순천대인문학연구소.
- 송현숙(2011), 「호남지방 미국 남장로교의 확산, 1892-194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현숙 외(2016), 「호남지방 종교지리 연구 동향과 과제」, 『남도문화연구』 제30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UCI : <http://uci.or.kr/G704-SER000001883.2016..30.013>)
- 이만열(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 우승완(2009), 「순천의 근대기 도시화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승완, 남호현(2010), 「질병 공동체 애양리 마을의 형성과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권 2호, 한국도시설계학회.
- (UCI : <http://uci.or.kr/G704-001620.2010.11.2.014>)
- 오소미(2017), 「세계유산 관점에서 본 한옥교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분석」, 건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 편(1999),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서문교회

최성환(2011),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UCI : <http://uci.or.kr/G704-001560,2011..39.007>)

최성환(2012), 「개항 초기 목포항의 일본인과 해상네트워크」, 『한국학연구』 26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UCI : <http://uci.or.kr/G704-SER000012168,2012..26.014>)

채진홍(2008), 『나는 너희를 치효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남대학교출판부.

한국근대건축보존회(2009), 『지리산 선교사 유적 조사와 문화재적 가치 연구』, 사
단법인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徳間一芽(2010),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리스튜어트 윌슨 메이슨, 최병택 역(2009), 『베스와 맨튼』, 사회복지법인 여수에양원.
국가기록원, 목포 하수공사 보조 품신(1929) 외

| 국문초록 |

미국 남장로교 목포, 순천지역 선교기지 (Mission Station) 조성에 관한 고찰

한국의 역사에 있어 근대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치절한 격동의 시기였다. 열강들의 한국으로의 진출은 아직 개방되지 않아 다소 정체되어 있는 은둔국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럴 즈음 기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한 서양인 선교사들의 진출은 선교와 교육, 의료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게 되었다.

특히 근대기 한국 건축에 나타난 미국 장로교 선교관련 건축은 그 수와 양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수효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와 같이 공동주택 성격의 일본식 건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 건축은 한국 전통건축이 근대 건축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유도하였고 한국영토에 소재한 서양건축이라는 한 축을 이루었다.

본고는 한국의 근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교기지의 건축과 건축활동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서양의 건축의식과 건축이 한국의 건축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말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서양건축을 수용하였고 한국에 서양건축이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근대건축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목포 순천 선교기지, 로버트 맨톤 윌슨(Robert Manton Wilson),
마르틴 루터 스와인하트(Martin Luther Swinehart), 미국 장로교,
일제강점기건축, 선교건축

위 보

□ 호남학연구원 조직(2018. 6. 30. 현재)

부 서	이 름	소 속
원장	조 윤 호	인문대학 철학과
운영위원	김 신 중 김 용 의 나 경 수 이 강 래 박 태 진 천 득 엮 최 대 우	인문대학 국문과 인문대학 일문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인문대학 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공과대학 건축학부 인문대학 철학과
연구부장	박 구 용	인문대학 철학과
학술기획부장	김 병 인	인문대학 사학과
교육사업부장	장 일 구	인문대학 국문과
감성문화자원개발부장	정 경 운	문화전문대학원
편집출판부장	이 성 원	인문대학 사학과
HK 운영부장	정 명 중	호남학연구원
행정원	최 원 중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T.A	조 아 름 오 창 환 이 연 숙 채 지 선	인문대학 국문과 대학원 인문대학 철학과 대학원 인문대학 사학과 대학원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대학원

□ 수행 중인 연구 과제

연번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지원금액
1	인문한국 지원사업 - 세계적 소통코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계 정립	조윤희	학술 연구재단	2008.11.01~ 2018.10.31	799,000,000
2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김신중	한국 고전번역원	2018.01.01.~ 2018.12.31	192,560,000
3	담양 미암박물관 소장 고문헌 정리 및 도록 발간 용역	정명중	담양군	2017.08.01.~ 2018.07.31	18,600,000
4	약재만암 기념관 건립 기초자료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	김병인	영암군	2017.12.12.~ 2018.07.09	16,200,000
5	보성군향토문화유산지정 자료조사용역	김병인	보성군	2018.03.26.~ 2018.07.01	6,500,00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규정

제정 1973. 3.31. 제58호	개정 1982. 11.30. 제202호	개정 1988. 6. 15. 제313호
개정 1993. 4. 2 제463호	개정 1995. 6.12. 제529호	개정 2008. 8. 5. 제1145호
개정 2009. 9. 1. 제1211호		

제 1조(명칭) 이 연구원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연구원은 호남지방의 문화를 연구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 제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호남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2.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보존
3. 정기간행물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
4.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대회 등 학술회의의 개최
5.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별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함)
6.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8. 기타 설치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 4 조(조직)

- ① 연구원에 원장과 연구부, 학술기획부, 교육사업부, 감성문화자원개발부, 편집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
- ②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

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구원 내 연구사업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연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
- ④ 원장의 강의책임시수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 ⑤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⑥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구부 : 학술연구 업무
 - 2. 학술기획부 : 연구원 사업 전반의 기획 업무 및 국내외 학술교류 및 협력 업무
 - 3. 교육사업부 : 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및 운영 업무
 - 4. 감성문화자원개발부 : 감성문화자원콘텐츠의 개발 및 응용 업무
 - 5. 편집출판부 : 연구원의 각종 출판에 관한 업무
- ⑦ 행정실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연구원)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인문한국교원(인문한국 청년보장교수,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인문한국교원으로 임용된 자
- 2.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 3.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 4.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자
- 5. 보조연구원 : 연구원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 6.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하고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제 6 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원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 2. 연구원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 3. 각 부장, 연구원의 임명 및 편집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 인문한국교원 인사
 - 4. 기타 인문한국사업을 비롯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7 조(연구위원)

- ①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필요에 따라 연구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8 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하며 학내외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원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연구윤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원의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이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간접경비, 각종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3. 3.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와 호남학연구단의 모든 업무를 호남학연구원에서 승계한다.

부 칙(2009. 9.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남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논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과제 등 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

제 3조(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연구원의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연구원 산하에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7인 이내
 3. 간사 : 1인

제 4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 ①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 ② 위원은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간사는 연구원 행정요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일체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표절 여부는 학술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따름)
- ②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③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 ④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맡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제 7 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 ② 심사의 개시
 1.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 ③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2.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 심사 결과의 보고

1.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8 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①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1. 연구원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연구원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4.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②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1.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학술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제 9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① 제보자의 보호

1.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② 피조사자의 보호

1.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제10조(연구윤리의 교육)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논문집인 『호남문화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호남문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 ① 논문
- ② 서평
- ③ 자료 소개
- ④ 기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관련되거나 부합되는 글

제3조 『호남문화연구』에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단, 연구원의 실무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원 주최 전국학술대회 등에서 주제 발표했던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호남문화연구』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호남학연구원의 원장 및 실무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호남문화’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편집부장이 맡으며,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 ④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 ⑤ 기타 『호남문화연구』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③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④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 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호남문화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일반 원칙

- ① 『호남문화연구』는 1년에 두 번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자로 정한다. 이 간행 일정에 맞춰 원고 모집 마감일을 5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 ② 『호남문화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호남문화’ 또는 ‘지역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 일반에 관한 주제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운영 규정>에서 제시된 사업에 관련된 주제라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학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 ③ 논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 ④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이는 『호남문화연구』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을 호남학연구원 홈페이지 내 <논문제출> 시스템(<https://homun.jams.or.kr>)을 통해 호남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⑤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제목 — 영문제목 — 국문이름 — 영문이름 — 목차 — 영문초록 — 영문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국문주제어’의 체재를 갖춘다(단, 주제어는 네 단어 이상 제시).
- ⑥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넘긴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게재될 경우 초과 게재료가 부과될 수 있다.
- ⑦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정해진 게재료를 내야 한다. 심사료는 6만원이며, 게재료는 일반 논문의 경우 10만원, 각종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30만원이다.

- ⑧ 『호남문화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 갖는다. 또한 이의 확인을 위해 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논문 투고시 별첨한 <논문 게재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각주 표기 방식

- ①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 ③ 한국어 및 동양어로 된 논문은 「」 안에, 단행본은 『』 안에 제목을 넣는다.
-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며,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 ⑥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한다.

(예) 『중국내의 고구려유적』 (이하는 『고구려유적』)

- ⑦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 (출판연도) — 『서명』 — 출판지: 출판사 — 권수 —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서명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번역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예) James T. C. Liu(1959), Reform in Sung China: Wang An-shih(1021~1086) and His New Policies, Cambridge, MA: Harvard East Asian Studies;
이법학 옮김(1991),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51쪽.

- ⑨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 (발간연도) — 「논문제목」 — 『잡지명』
— 통권(혹은 권·호) — 학회지 —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3. 인용 방식

- ①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주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는다.
- ③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 ④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는다.
- ⑤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 ⑥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친절하게 밝혀야 한다.

4. 참고문헌 기재 방식

- ①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 서양어 순으로 하며, 한국어와 동양어는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하고, 서양어 문헌은 ABC 순으로 기재한다.
- ② 논문의 경우 수록된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시작 쪽수와 마지막 쪽수를 반드시 밝힌다.

(예) 박준규(1987), 「韓國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42쪽.

5. 원고 작성 및 제출 요령

- ① 국문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출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③ 원본의 논문 제목 및 필자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 ④ 원본에는 소속, 직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⑤ 논문체제 및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문제목(15.5pt)	
영문제목(13.5pt)	
	국문이름(9.5pt)
	영문이름(8.5pt)
목 차	
〈영문초록〉	
Key words :	
본문내용(10pt) - 줄간격(185%)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	

심사경위

『호남문화연구』 제63집에 투고된 총 논문은 9편입니다. 『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이 제63집의 게재 논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투고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의 게재율은 66.6%(6/9)입니다.

『호남문화연구』 제64집 수록논문 모집 안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는 학술지 『호남문화연구』 제64집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호남문화', '지역문화' 관련 전 학문 분야
2. 자격 : '호남문화', '지역문화' 관련 국내외 연구자
3.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원고 제출 마감 : 2018. 11. 15. (월)
5. 투고 형식 :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6. 심사 및 게재 결정 : 『호남문화연구』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
7. 필자 대우 : 학회지 1부 및 별쇄본 20부를 제공함.
8. 논문 게재료
 - 심사료 : 6만원
 - 일반 논문 : 10만원 / 연구비 수혜 논문 : 30만원
 - 지정계좌 : 광주은행 074-107-309110 (예금주 : 전남대학교호남학연구원)
9. 원고 제출처 ① 호남학연구원 JAMS 홈페이지(<http://homun.jams.or.kr>)
② 전자우편

연락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3호관 210호 호남학연구원 행정실
☎ (062) 530-2710/5020 Fax : (062) 530-2711
Homepage : <http://www.homun.or.kr>
E-mail : honamstudy@hanmail.net

□ 편집위원장 : 조윤호

□ 편집위원

박수철(서울대)

신해진(전남대)

엄기표(단국대)

이영배(안동대)

정명중(전남대)

정세근(충북대)

정인호(대구대)

조태성(전남대)

차철욱(부산대)

호남문화연구

제63집

2018년 6월 29일 인쇄

2018년 6월 30일 발행

편집·발행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제작·판매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 (062) 530-0571~2

팩스 : (062) 530-0579

등록 : 1981. 5. 21. 제53호

홈페이지 : <http://www.cnup.co.kr>

이메일 : cnup0571@hanmail.net

호남학연구원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전화 : 062) 530-2710

팩스 : 062) 530-2711

* ISSN 1225-3561

가격 15,000원